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 buddhanews.com |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3월 26일(음력 2월 19일) 수요일 (주간) | 제672 호



조계종 종회 본회의에 참석한 지관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이 논의된 3월 20일 종회 본회의에 배석해 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직접 논의에 참여하는 등 법 제정에 열의를 보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176회 중앙종회 '포살·결계법' 통과

대운하반대·티베트사태 평화해결 성명 채택

조계종 176회 중앙종회(의장 자승)의 최대 관심사로 손꼽히던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이하 포살결계법)'이 가결됐다. 한반도대운하 사업 반대와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중앙종회 명의 성명서도 채택됐다.

또한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조건을 현행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했던 임기를 10년 단임제로 바꾸는 종헌개정안이 가결됐고 '불기2551(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반회계는 세입 188억, 세출 17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115억원이다.

그러나 주목을 끌었던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기준을 강화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차기로 이월됐고, 종회의원의 동국대 이사 겸직 금지를 포함한 '종헌개정안'은 1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94·98년 사태의 멸빈자 사면을 가능하도록 한 종헌 부칙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밖에 초심호계위원에 승오 스님을, 직능대표선출위원에 명신(통도사) 종렬(화엄사) 통광(범어사) 도진(직지사) 지선(백양사) 성타(불국사) 스님 6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도문 지종 명선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동의하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국가마다 다르게 쓰이는 불기(佛紀)의 통일을 위한 협의기구 조직 창설 제안서도 채택됐다.

<관련기사 2면>

여수령 기자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입적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진성(圓潭眞性) 스님(사진)이 3월 18일 오후 9시경 주석 중이던 예산 수덕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76세, 세납 83세. 수덕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명박 대통령 등 애도 행렬이 이어진데 이어, 영결식 및 다비식은 3월 22일 수덕사 연화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졌다. <관련기사 4면>

여수령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법당에 아카시아 향기 가득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숲, 뇌를 깨우는 108배" 방영

절수행 도우는 편백,솔,아카시아 향기가 향발을 향방을 향인등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덕유산에서 직접 뽑는 한국 최초 태우지 않는 향, 부처님 제일공양으로 식품공학과 연구분석성분표시와 실용특허의 신뢰는 물론, 직접 눈으로 보고 안고가는 스님의 발길이 전국에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없는 특허명품 향인등을 사찰에 드립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청다향 합장

전화 055)941-1083 / 팩스 055)941-1084



집중기획 / 어린이청소년포교 현황·문제점

새싹불자 키우기

'주마가편'필요

〈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3월 17일 어린이법회 저학년용 교재인 〈야호! 법회가는 날이다〉를 펴냈다. 종단 최초로 어린이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

포교원은 지난해 '어린이청소년포교 원년'을 선언하고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러나 교구·교재 개발 이외의 사업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때문에 어린이청소년포교는 종책과 현장여건 모두에 '주마가편(走馬加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어린이법회 사찰은 800개로, 어린이법회 인원은 2만 4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법회 사찰 숫자는 약 200개에 머무르고 있다. 어린이청소년포교 2년차를 맞은 현재,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어린이법회 활성화 사업 교재개발에 밀려 뒷전
포교 시스템 구축·법회 지도자 양성 시급 과제

■어린이청소년포교 계획과 성과들

일반사회에서는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면 불교계에서는 '어린이청소년포교'가 그에 비견될 만하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외쳐왔던 종단 내외의 목소리가 무색하리만치 사업계획도 성과도 없었던 분야가 어린이청소년포교다.

이에 포교원에서는 2006년 11월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포교원 포교부에 '어린이청소년팀'을 신설했다. 포교원에서 의욕 있게 새싹불자를 키워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한마음선원·안국선원 등이 연이어 포교기금을 기탁, 어린이청소년포교 사업기금도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

포교원에서 2006년 발표한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은 △교재·교구 개발 △제도·조직 정비 △지도자 양성 및 관리 △포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 있는데 현재도 이 로드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종단 어린이청소년포교 원년이었던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 개발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종단차원에서 각종 교구·교재 개발을 시행, 법회 현장에서 통일본으로 쓸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법회 '교과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지도자용 설법교안과 법요집·불교학교 지침서·법회 교재 등의 자료발간과 어린이법회 의식곡 CD제작, 청소년 법요집 및 음반 제작, 애니메이션·포교사이트를 비롯한 콘텐츠 개발 등이 그 사업 성과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은 어린이포교사이트 '키즈 붓다' 개발로 2007년 중앙종무기관 종무평가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도 이번에 발간된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야호! 법회가는 날이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교재와 청소년 심성교육프로그램 지도 책자 등 교재 개발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로써 1차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구·교재 개발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에서 올해와 내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포교현장 확대'다. 이제부터는 법회 운영 사찰들을 네트워킹 함으로써 어린이법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려는 사찰을 위해서는 법회개설지원팀을 파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법회개설지원팀과 프로그램교육지원팀을 각각 5개로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어린이법회 현장에서는 '대환영'이다.

■ '시스템과 인력'이 답이다

그러나 포교원의 어린이청소년포교 사업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사업이 교구·교재 개발에 집중돼 시스템 구축 및 법회 지도자 양성 지원 미비, 청소년법회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어린이포교의 전체적 틀, 즉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스템의 한 축인 법회교사 부족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 과제다. 한 청소년법회 지도자는 "대한불교교사대학 입학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올 2월에는 단 19명만 배출됐을 뿐"이라며 "포교원에서 어린이청소년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만들기는 했으나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장이 침체 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목말라했던 교구재 개발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스템 문제는 올해 사업 계획에 들어있고 이미 마련된 지도자 양성 공식 틀은 폭넓게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둘째는 청소년포교에 대한 지원부족이다. 어린이법회는 조금씩이나마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법회 참석자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법회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포교원에서 내 놓은 계획을 봐도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와 함께 청소년 심성교육프로그램 교재를 발간하겠다는 언급 정도만 있을 뿐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청소년법회 지원 문제에 대해 올해부터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라미타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사찰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파라미타 조한곤 국장은 "어린이가 바로 청소년이 되는데 이 연계 과정도 포교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파라미타 홈페이지만으로는 청소년법회 지도교사들의 네트워킹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포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어린이청소년법회 환경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사실이다. 2006년 11월 발표했던 사업 계획을 실천하려면 이미 본말사 사찰의 환경조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개설해야 할 사찰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사는 1차가 끝났을 뿐이고 이번 달에 2차 조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한 어린이법회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법회가) 꼭 되어야 할 곳이 방치되고 있고 어린이법회를 하고 싶어도 한 달에 1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할 수 없어 못하고 있는 스님들도 상당수 있다"며 "시골사찰의 경우 차량지원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상황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알림 / 현대불교의 상법상 회사명칭은 '(주)에이치비엠씨' 입니다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결계신고 안하면 '불이익'

'포살결계법' 시행

승납 30년·연령 60세 이상 예외…법회 年 6회→2회

지관 스님 본회의장 지키며 강한 시행의지 보이기도

<1면에서 계속>▶포살결계법 제정에 강한 의지=이번 종회의 최대 이슈는 역시 '포살및결계에 관한법(이하 포살결계법)'이었다.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화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취임 당시 내건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종단 안팎으로 발생한 여러 사태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다 가을 이후 총무원이 법안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올해 1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을 상대로 결계와 포살에 대해 설명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종단 역점과제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꼽았다. 총무원은 '대중결계와 포살 · 갈마 시행안'을 담은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 각 교구 본사에 보내는 등 홍보에 나섰다.

이러한 포살결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탄 건 3월 18일 열린 176회 중앙종회에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터다. 제정안은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종회 안건으로 제출됐고, 총무원은 2월 28일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포살결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종회 개회 당일 인사말을 통해 "종단 승가대중의 결계와 포살을 확대 정례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때"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포살결계법을 제청했으니, 세심한 판단과 논의를 통해 심의 ·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례적으로 포살결계법 논의가 이뤄진 20일 본회의에 참석해 4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종회의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에서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종도들의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 등 홍보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살결계법 대상과 횟수, 권리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종회는 30여 분간 정회한 채 수정안 합의를 시도했다. 결국 합의한 수정안의 자구수정을 거쳐 4시간 여 만에 만장일치로 법안이 가결됐다.

▶포살결계법 어떻게 시행되나=종회를 통과한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은 종단에 소속된 모든 사미 · 사미니, 비구 · 비구니를 대상으로 하던 처음 법안에서 한 발 물러나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스님을 예외로 해 참여대상을 축소시켰다. 포살법회의 시행횟수 또한 결제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개최에서 결제기간 중 1회로 변경됐다. 이는 한 해 6회에서 2회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결계신고는 1년에 2회 결제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하고, 결제기간 중 1회 이상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 소임자 및 학인은 당해 학교로,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서 결계신고를 하면 된다. 총무원은 연 1회 결계보고를 취합해 <결계록>을 발간하게 된다. 결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미 · 사미니는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서 또는 승서할 수 없다.

포살결계법을 이관 받은 총무원은 법안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오는 5월 하안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제 관심은 포살결계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될 종령 제정으로 쏠리고 있다. 논란이 됐던 결계신고 및 포살법회 장소와 포살계사 위촉방법 및 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이 모두 종령에 담기기 때문이다.

▶서둘러 폐회 · 이월안건 수두룩=176회 종회는 포살결계법 제정이라는 굵직한 성과와 한반도대운하 반대 · 티베트사태 평화적해결 촉구 성명을 채택해 사회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이었던 반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당초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던 종회는 3월 18일 개회해 회기를 단축하고 20일 폐회했다. 20일 열린 본회의는 포살결계법 논의에만 4시간 가까이를 소요한 후 결산감사는 10여 분 만에 마쳤다. 이후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국 종회는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과 '각종 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결의의 건' 등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폐회했다.

이 과정에서 10건의 종법 제개정안과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종책질의 등은 차기로 이월됐다. 종회의원의 '계파간 나눠먹기'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직능대표 선출자격 강화의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은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종회 개회 당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초선 종회의원 20여 명에게 50만원씩의 거마비를 건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행정 · 입법기관 간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지적이 잇달았음에도 종회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초선의원모임의 회장인 진화 스님은 "(원장스님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약사원 앞 철로건설 백지화하라"

관음종 스님· 주민들 포항시청 방문 항의시위 개최



관음종 스님 50여명이 3월 18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철로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관음종 스님들이 포항시청으로 몰려간 까닭은?

2009년 착공예정인 동해남부선 울산 포항간 복선화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관음종 종정 주석 사찰인 약사원 앞에 철도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연일읍 자명2리 주민들과 대한 불교 관음종 스님 등 50여명은 3월 18일 철도노선변경을 요구하며 포항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현재 건설중인 동해남부선이 원안대로 자명2리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라 생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선을 확정한 포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강하게 비난하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약사원 주지 대광 스님은 "약사원 주변 암반은 현무암이 많고 지질구조가 약해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낙석이 떨어져 사찰 증축 때도 중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 철로가 깔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부처님 머리 위로 기차가 지나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철로건설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위대가 해당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포항 시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명2리 마을 주민 이태연(81) 할머니가 시청 직원의 과잉 방어에 밀려 넘어져 실신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시청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 부서 책임자를 자명2리 마을로 보내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시위대의 철수를 부탁했다.

2시간여에 걸친 이날 시위는 포항시청 관계자의 현장 방문 약속으로 일단락 됐다. 이어 시위대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같은 내용으로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약사원은 종정스님이 계신 관음종의 상징적 수행도량"이라며 "철도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전 종도들과 힘을 합쳐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포항=김주일 기자

총화종 중앙종회 개회

부종정 정송 스님 추대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62차 중앙종회를 3월 12일 총화종 총본산 수진사 대관음전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기 만료된 부종정에 정송스님(인청 정은사 주지)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정기 중앙연수 교육 및 법계고시일정, 대만 성지순례 일정 등을 확정했다.

또한 종단 해종행위자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제안 요청해 중징계키로 결의했다.

남정스님은 "오늘 종회를 기해 승려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찰, 종단 행사에 불참하는 사암 등에 대해 강력 경고 및 제재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확실한 종단의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금산사 종회의원 성우 스님

무투표 당선…조계종, 정여 스님에 임명장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중앙종회의원에 성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종회의원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은 3월 21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성우 스님은 1976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군산 은적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3월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제187차 회의에서 광탄·덕륜 스님이 제기한 주지후보 선출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됨에 따라 조계종은 3월 19일 범어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정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고종 종단강화 특별위 구성 결의

94회 정기중앙종회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3월 20일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제 94회 정기중앙종회를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중앙종회의장에 인공 스님, 부의장에 원봉·대은 스님을 유임시키는 등 12대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어 열린 종회에서는 ▲종단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종무직원 임용자격 및 직무윤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부종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사찰1선행 운동을 펼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단중흥 결의서 추인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외 17명 특별사면복권 단행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을 69억 3400여 만원으로 승인하고, 주요 사업으로 불교의식 한글화 작업,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록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訃 告

圓 曹溪宗 元老議員 德崇叢林 方丈 圓潭 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이시고 德崇叢林 方丈이신 圓潭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 2552(2008)年 3月 18日 (陰 2月 11日) 오후 9시 忠南 禮山郡 德崇叢林 修德寺 拈花室에서 法臘 76, 歲壽 83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雪靖 合掌

■ 焚 香 所 : 忠南 禮山 修德寺
■ 永訣日詩 : 佛紀 2552(2008)年 3月 22日(陰 2月 15日) 오전 10時 30分
■ 永訣式場 : 禮山 修德寺
■ 茶 毘 場 : 修德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修德寺 041) 337-6565 / FAX 041) 337-0072

曹溪宗 元老議員 德崇叢林 方丈 圓潭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티베트 자유’에 세계 관심 집중

지관 스님 “ 평화적 타협을” 교계단체 “무력중단” 촉구

티베트 독립시위에 대한 중국의 유혈진압 사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와 불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 사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대거 증강하고 있으나 시위는 중국내로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3월 20일 중국내 티베트인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쓰촨(四川)성에서만 시위대 3~5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1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달라이라마법왕 동아시아대표부 사무소 락파 쵸고 대표는 유혈사태 직후인 3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티베트 사태에 대한 한국불교의 관심을 요청했다. 락파 대표는 “티베트 사태는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억압이 폭발한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성하는 안정과 통합은



3월 10일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시위 장면. <자료출처:freetibet.org>

대화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폭력에 의한 폭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선을 다해 중국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타협해서 원만히 잘 끝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락파 대표는 “한국불교계와 불자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며 “한국불교계에서 이번 유혈사태의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불교계 단체들도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17일 성명을 내고 “중국정부에 의한 자행된 티베트의 무력진압과 유혈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 이상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티베트 국민들의 요구를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8일 성명에서 “중국은 지금이라도 티베트인들에 겨눈 총칼을 거두고, 과거의 야만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엔은 속히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티베트에서 자행된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3월 20일 열린 176회 종회에서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중국정부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東大 경주캠퍼스에 공자아카데미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3월 19일 경북 지역 최초로 중국 정부가 설립한 중국어 전문교육 기관인 공자아카데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자아카데미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추진하는 아시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것으로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 정부로부터 교수파견, 학술서적, 운영경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중국어를 비롯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 설립하는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2004년 11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서울공자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현재 66개국에 227곳이 개설돼 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공자아카데미는 국내 13번째이자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김주일 기자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 올 업무계획 발표

내년까지 사찰 목조문화재에 경보장치 및 진화장치 등이 완비된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3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목조문화재방재 시스템 구축과 문화재 조사 절차 간소화 등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보 · 보물 등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사찰 포함)와 궁궐과 왕릉과 같은 전국 144개 문화유산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화재조사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이 청장 발언의 요지다.

이 청장은 “올해는 경보장치 및 수동소화 설비를 완비하고, 내년에는 자동진화 설비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해 숭례문 화재 참사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임을 밝혔다. 시설설비뿐 아니라 경비인력도 투입된다.

이 청장은 “2인 1조 이상으로 구성된 주야간 감시인력을 사찰 등에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와 궁궐, 왕릉 등에 배치할 것”이라며 병무청 등과 협의해 사회복무 인력을 배정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TV 방배동 이전 법회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불교TV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이전 법회를 봉행한다.

방배동 사옥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무상사 법당은 지상 1층에, 시민선방은 지상 2층에 마련된다. 3~8층에는 스튜디오와 종합편집실 등 방송본부가 들어선다. 여수령 기자

능인정사 이웃돕기 일일찻집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3월 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건대동문회관 옆 솔바람 커피 일일찻집을 연다. 매년 3월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해 작은 인연의 만남을 맺어온 능인정사의 일일찻집은 올해로 다섯 번째다. (02)3436-5268 김주일 기자



특별칼럼

티베트 독립…멀고도 험한 길

中-印 화해무드 등 국제정세 불리
티베트 민족 스스로 미래 선택해야

현재 중국 정부의 강경책으로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 ‘티베트’는 사람들에게 상반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이들은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한 번 가보고 싶고, 뵙고 싶어 하는” 동경의 대상이다. 불교학자와 수행자들은 티베트인들이 여러 세기 동안 발전시켜온 독특한 수행체계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미래 불교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티베트 독립(혹은 자립)을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와 망명 정부는 “중국의 대국화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보기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극단적 생각을 펼치기도 한다.

이 상반된 주장들, 티베트를 둘러싼 이중적 이미지는 나름대로 이유와 배경이 있다. 그래서 더욱 티베트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중국에서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청(淸)나라 시대에 새로 달라이라마가 즉위하면 청 황제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티베트뿐만 아니라, 조선(朝鮮) · 월남(越南) · 유구(琉球)를 비롯한 중국 주변 국가들 모두가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은 오늘날 ‘새 정부 승인’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파견’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곧 현재 중국의 주장을 100%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청나라 시대 티베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이나 월남 등과 다른 특별한 예우를 받았던 사실(史實)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청 황실에서는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새 황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관정(灌頂)을 통해 자기들의 세속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청과 티베트의 관계는 중세 서양의 로마 교황청과 세속 군주들 사이의 관계와 상당 부분 흡사한 것으로, 일방적 주종(主從)이 아닌 상호 보완(相互補完)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와 중국 사이의 이런 균형은,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가 약화되어 가면서,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남아시아에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거문도 점령사건을 일으켰던 영국은 같은 이유에서 티베트의 완전 독립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영국, 나중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티베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국의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티베트 독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금 티베트 문제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 곳곳에서 위기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과거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들이고, 난민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갈등 관계가 화해 무드로 바뀌면서 티베트 문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절 인도로 구법 순례를 다녀와 수많은 불교 경전을 번역한 현장(玄?)스님의 순례 코스를 답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불교를 통한 중국과 인도 사이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조하였다.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조성한 불상을 서안의 백마사(白馬寺)에 봉안하면서 인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고 중국 고위층이 직접 “우리는 과거 인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할 정도로 인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인도 정부 또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인도 내 티베트 인들을 거주지에서 몰아내고 과거보다 훨씬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국제 정세가 이처럼 티베트에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다가, 티베트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티베트 내에 상당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영구 점령 의지’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막다른 고비에 놓인 티베트 민족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과거 당 왕조를 곤혹스럽게 했던 호전적 성격을 회복해 무장 투쟁에 나설까? 중국의 유혈 탄압에도 불고하고 앞으로 계속 ‘자비’를 내세우며, 선처를 바랄까? 아무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강대국들의 세력권 나누기에 희생양이 되어 고통을 겪었던 우리들은 연민의 마음(悲心)을 갖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유한 언어와 독특한 전통 문화를 가꾸어 온 티베트 민족의 미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티베트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우리 얼굴일 뿐만 아니라, 가깝거나 먼 미래에 다시 겪을 수도 있는 고통일지도 모른다.



이병두 자유기고가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원적

'덕숭가풍' 이어온 대표적 선사

수덕사 분향소 조문객 줄이어
지관 스님·李대통령 등 발걸음

<1면에서 계속>3월 18일 주석처인 염화실에서 원적에 든 원담 스님의 곁을 지키던 덕숭총림수덕사 원담진성대종사 장의위원회는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하는 문도들이 마지막 한 말씀을 청하자 대종사께서는 '그 일은 언구에 있지 아니해. 내 가풍은 (주먹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이로다!' 하셨다"고 전했다.

스님의 열반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9일 법어를 발표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법전 스님은 "인연 따라 모습을 나투고 세상을 종횡무진하더니, 오늘은 눈 앞에서 묘진(妙眞)을 나투어 두출두몰(頭出頭沒)하고 은현자재(隱顯自在)함을 보입니다"며 "공적(空寂)하고 응연(凝然)한 진상(眞相)을 우리에게 보인 것은 노화상(老和尙)의 활중득사(活中得死)의 소식(消息)입니다"고 법문했다.

수덕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무부장 원학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조문한데 이어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19일 분향소를 찾았다.

지관 스님은 조문 후 "종단에 어른스님들이 많이 계셔야 마음이 든든한데, 어른스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시어 안타깝다"며 "문중스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방장스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큰스님의 상좌인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법장 스님으로부터 큰스님 일화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조문메시지를 통해 "친견(親見)하여 난국을 헤쳐 갈 큰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열반하셨다니 못내 아쉬울 따름"이라며 "우리 곁을 떠나신 큰스님의 크고 높은 공덕을 기리며, 원담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밝혔다.

문도대표인 설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덕숭의 산천초목은 노래하고, 수류는 눈물을 흘립니다. 시회대중 또한 평생을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덕숭총림 가풍을 이어온 무애의 선지식이셨던 큰스님의 덕화를 기리며 슬퍼하고 있다"며 "속히 사바세계로 왕림하셔서 무명에 빠진 저희들에게 불조혜명의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스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원담진성 대종사 임종게

來無一物來
去無一物去
去來本無事
靑山草自靑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한 물건도 없이 가는 것이로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

1933년 벽초 스님 은사로 출가
국제서도전 수상 등 선필로 유명

■**원담 스님은**=원담 스님은 경허-만공-벽초 스님을 이어 '덕숭가풍'을 지켜온 이 시대 대표적인 선사(禪師)다.

원담 스님은 1926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꿈에 신승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 '몽술(夢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울지 않던 아이가 화주하러 온 스님의 목탁과 염불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스님은 7살이 되던 1933년에 수덕사 초대 방장인 벽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33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했다.

1958년 구례 화엄사 주지를, 1964년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67년에는 은사인 만공 스님의 법어를 모은 <만공어록>을 펴냈고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해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수덕사를 '덕숭총림'으로 지정하는데 힘썼다.

1986년 덕숭총림 제3대 방장으로 취임하고 94년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3년에는 <원담법향집>을 펴냈으며 2004년 대종사(大宗師) 법계를 품수했다. 이 밖에 승가사 조실, 용인 하운사 조실, 용인 법륜사 조실, 금산 금락사 조실, 향천사 천불선원 조실, 개심사 보현선원 조실을 역임했다.

스님은 선필(禪筆)로도 유명하다. 1980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안거할 때 경봉 스님이 '자네 글씨가 내 글씨보다 낫네!'라고 말할 정도로 문필에도 밝았던 스님은 1986년 '일본산업경제신문'이 주최한 국제서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독립기념관 건립 서예전을 열어 전액을 희사하기도 했다. 1982년에 쓴 수덕사 대웅전 현판을 비롯해 1984년 보은 법주사 주련을 직접 썼다. 2007년 12월 펴낸 <원담대종사선묵집>에는 스님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서예 작품들이 실려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행연보

1926년 전북 옥구 출생. 아명(兒名)은 김몽술(金夢述).
1927년 충남 서산으로 이주.
1933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1958년 지리산 화엄사 주지.
1964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취임.
1967년 <만공어록> 간행.
1970년 수덕사 주지 취임.
1980년 <경허법어> 간행.
1980년 승가사 조실.
1980년 용인 하운사 조실.
1982년 수덕사 대웅전 휘호.
1983년 덕숭총림 설립. <만공법어> 간행.
1984년 속리산 법주사 주련 휘호.
1986년 덕숭총림 제3대 방장 취임. 일본산업경제신문 주최 제3회 '국제서도전' 대상 수상.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취임.
2002년 용인 법륜사 조실.
2003년 법어집 <덕숭산법향> 간행.
2004년 대종사 법계 품수. 금산 금락사·향천사 천불선원·개심사 고현선원 조실.
2007년 <원담대종사선묵집> 간행.
2008년 독립기념관 소장 대종사의 작품 13점을 덕숭총림 선미술관에 기증.
3월 18일 오후 9시 수덕사 염화실에서 열반

대관음사 삼보전 재개관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가 삼보전인 우리절역사관·내생체험관·세계불교관을 옥불보전 7층으로 이전 재개관했다. 삼보전은 사찰의 15년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세계 각국의 불상과 내생체험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전법학림 내에 위치한 삼보전은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4대 재일(초하루, 원불, 지장, 관음)에만 개방한다.(053)474-8228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자승 신계사 참배 추진

부처님오신날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동자승들의 신계사 참배를 추진한다.

봉축 홍보사절단으로 활동하게 될 동자승 8명은 4월 5~6일 금강산 신계사를 참배하고 남북 불교계의 통일 염원을 전할 예정이다. 대구봉축위는 "신계사에서 평화통일기원법회를 열고 남북간 친선과 상호신뢰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053)623-6388 손법천 대구지사장

노인일자리사업 교양 교육

대전서구노인복지회관(관장 장곡)은 일자리 참여 유도를 위해 '2008 노인일자리 사업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3월 19일 열린 교육은 2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목적과 방향, 참여자의 자세, 건강관리, 생활 안전 등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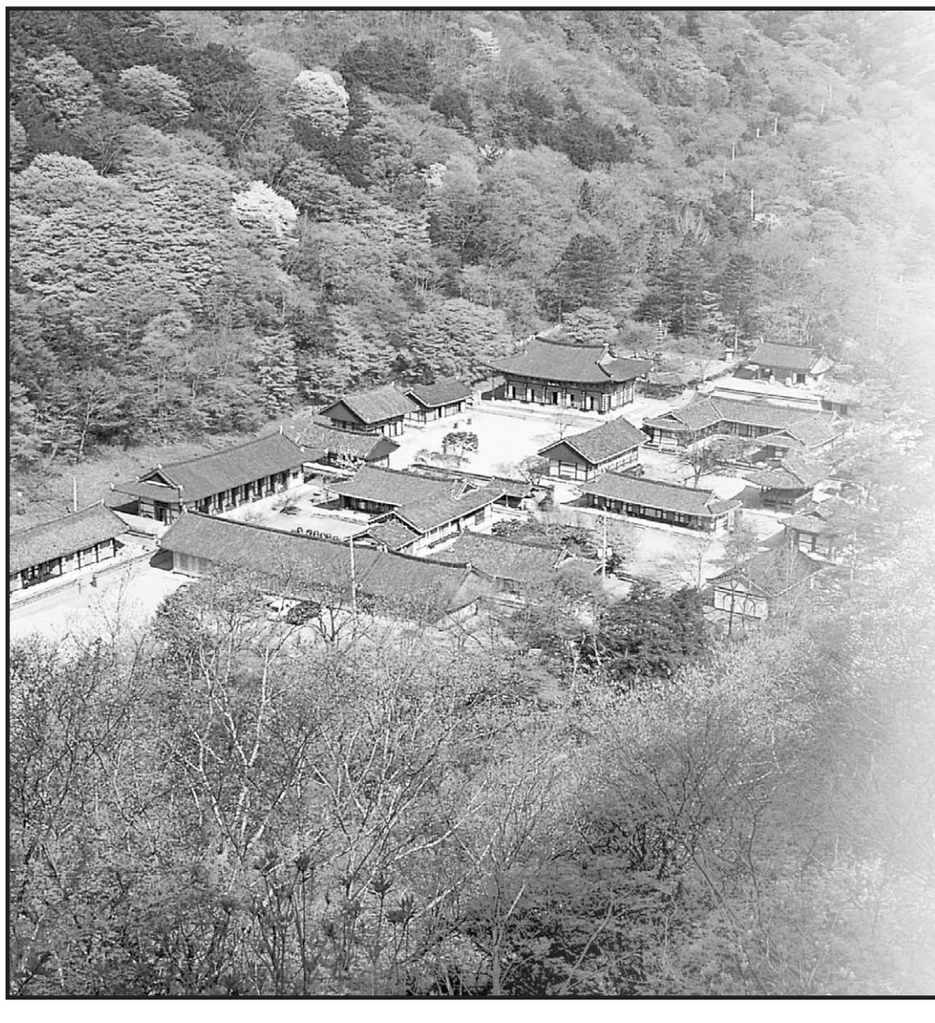
장곡 스님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직무 교육, 발대식 등에도 참여해 취업을 위한 소양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손효선 기자

조동종 자비암 인등 점안식

대한불교조동종 마산 자비암(주지 청정)은 3월 16일 승정부원장 법공덕룡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등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 이어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도 개최했다. 자비암은 11년째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법공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태어나 바른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부지런히 닦아서 죽음의 공포 없고 살아서 극락가는 대자유인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학인모집

불기 2552년(서기 2008년) 신입 - 편입 학인스님 방부를 받습니다.

◆ 모집인원 및 대상 : 신입생(치문반) 00명
편입생(사집, 사교, 대교) 0명
◆ 모집기간 : 신입생 · 편입생 2008년 4월 4일 까지
◆ 구비서류 : 행자교육 필증, 수계증 ..... 사본 각 1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3×4) 3장
수료증 사본 및 수행기록부 ..... 1부(편입생만 해당)
◆ 입학특전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규 4년제 지원(사집반 이상)
◆ 문 의 처 : 강원(지객스님) 061)392-7324 / 종무소 061)392-7502

불기 2552년 3월

백양사 승가대학 강주 법광



57년간 동참…"참회하며 국난극복 염원"

전필애 보살님의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이야기'

"그 당시는 어려움도 모두 부처님의 가피로 이기고자 노력했어요. 젊었을 때이니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났죠. 자운 스님은 정말 생불(生佛)이셨고 함께 동참하는 큰스님들을 뵐 때 환희심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자글거리는 얼굴의 주름조차도 아름다웠다. 올해 90세인 전필애(법화승 · 부산 초읍) 보살은 걷기조차 힘든 노구를 이끌고 자식들 몰래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에 참여했다.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에서 봉행하는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가 시작됐던 1951년 당시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동참한 산 증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감로사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의 역사는 57년 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국난을 참회기도로 극복하고자 불자들이 전국에서 감로사로 모였다. 자운 스님을 비롯해 청담 운허 영암 성철 향곡 석암 월하 벽암 지관 일타 월산 법전 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것이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이다.

전필애 보살은 삼천배 참회기도법회의 시작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 당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회기도를 시작하며 모인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 참회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위로를 받았어요. 이곳은 국난을 이기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곳이었죠. 참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두들 스님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참회기도로 정진했죠. 전 참회기도에 동참하고 난 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집에서 삼천배를 올렸죠."

감로사의 삼천불 삼천배 참회법회는 단순한 참회기도법회가 아니었다. 부처님의 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원력을 모아 역사의 아픔을 가진 민족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법회였다. 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며 국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스님들의 원력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 당시 자운 스님은 참가한 우리들 보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절을 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전생부터 오랜 세월동안 이어온 업장을 소멸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셨죠. 지금이나 그때나 모두 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빠짐없이 참회기도를 올려야 해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참회기도를 올리겠다는 전필애 보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모두를 감싸 안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57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법회, 올해도 어김없이 출가 열반 주간에 삼천배 법회가 열렸다.

감로사는 매년 음력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삼천불 삼천배를 봉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지 혜총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법사스님을 초청해 참가한 불자들에게 법문도 한다.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3시 30분 일어나 참회기도, 영가천도, 법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진한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창원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

"시대 따라잡아야 포교 가능"

템플스테이 겸 정진 시간으로 시작
어린이 포교도 주력, 문화행사 열어

출가가 있어 성도(成道)가 있고 팔만사천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출가를 통해 범부의 삶은 수행자의 삶이 되고 정진을 통해 성도에 이르게 된다. 음력 2월 8일 출가일부터 15일 열반일까지 불자들은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진열정을 다잡는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는 매년 '출가에서 열반까지' 니르바나 정진 대 설법회(이하 설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설법회는 3월 15일 부터 22일까지 활안 혜민 암도 종범 혜인 지오 지환 설정 스님을 초청해 법문의 자리를 펼쳤다. 8일 동안 경남 일대에서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설법회는 성주사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이 모여 템플스테이 겸 발우공양, 정진의 시간을 조촐하게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있지요.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큰스님 뵙는 공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정진하고 더욱 정진하자는 의미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은 3월 19일 설법회를 개최하고 이어가는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성주사가 불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수행 프로그램은 설법회 만이 아니다. 불교포교와 올바른 정진을 위해 일선에서 매달 색다른 정진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앞서가고 있다. 또한 GM대우자동차 법우회, 두산인프라코아 등 직능불자인들의 활동을 돕고 보리수 학교, 굴렁쇠 어린이법회 및 룸비니유치원 운영 등 어린이 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원정 스님은 수행 포교 뿐 아니라 문화행사에도 주목했다. 매년 산사문화축제 곰절 산빛 가람제와 송년 찬불제를 개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주사를 찾을 때 마음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 찻집도 마련했지요. 지역에 이바지하고 안으로는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튼튼한 사찰로 거듭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색다르고 발전된 기획으로 부처님의 법을 담을 것입니다."

바른 기획, 바른 문화를 선도하며 시대에 맞는 포교와 교육으로 신도들을 이끌고 있다는 말이다. 불교란 본질을 지키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리를 철저히 듣고 진리를 담은 그릇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단 하나의 소홀함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원정 스님은 또 다른 불교문화를 기획하고 있다. 방생을 색다르게 추진하는 것. '기차는 오늘 보리수로 떠나네'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열차방생법회다. 방생장소인 안동댐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열차방생법회는 3월 27일 열린다. 진해역에서 오전 6시 50분 출발. (055)262-0108

하성미 기자

"대승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 창립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가 3월 19일 창립됐다.

대승불교의 정신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가 창립됐다.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상임대표 유심)는 3월 19일 창립법회를 열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실생활에 구현하자"는 의지를 천명했다.

상임대표 유심 스님(관음정사 주지)은 "모든 사부대중이 어울려 함께 정진하는 장소로 성장할 것이다"며 "이기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말법시대에 모든 사부대중이 노력하여 불국토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립법회에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관음정사 조실 법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모님을 생각하는 신춘불교음악회

3월 30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강당

한국예술인연합회(이사장 혜인)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불교음악회를 개최한다. 3월 30일 오후 7시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대중에게 법문하며 범진 스님이 범패와 경기민요를 접목한 창작곡을 최초로 발표한다. 경기민요 출연자는 김예헌 외 50여명이다. 또한 회심곡과 품바 및 산회가로 전하는 불교내용을 통해 일반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전하고 이해하도록 나눌 예정이다. 그 외 합창단, 대금산조, 바라춤, 탑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범진 스님은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은중경>은 모두가 알고 있는 효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실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부처님의 경전을 잘 이해하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10-4233-3459

하성미 기자

"황우석 박사의 진실은 무엇?"

2년 전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의문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는 3월 27일 오후 7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正覓-황우석의 진실'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가정의학 전문의 정민권 원장(아주병원)이 '줄기세포사태에 대한 임상의학적 접근'을 발표한다. 이어 정실련 박희섭 회장이 '특허로 풀어 보는 줄기사태의 본질'을,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장 김성진 교수가 '누락변조된 서울대 보고서 8쪽에 담긴 진실'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우리사찰 안내판이 예뻐졌어요"

구례 화엄사 안내판 교체, 문화재청 사찰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마련

그동안 사찰 안내판들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과 일관성 없는 크기와 위치로 들쭉날쭉했다. 그나마 안내문 내용도 어려워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였다. 이런 고민이 이제 말끔히 해결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월 20일 구례 화엄사 문화재 안내판 개선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2007년 5월 사업자 공모로 시작된 작업은 1년여 동안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다.

화엄사 문화재 안내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화엄사 문화재 안내판을 디자인한 브랜드 나인의 심인보 대표가 디자인 컨셉을 "굽은 대로 곧은 대로"라고 할 만큼 안내판이 문화재 및 사찰 주변 환경과 하나된 모습이다. 안내판은 자연친화적 목재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금속제를 조합한 소재를 안내판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되 관람객을 최대한 배려했다. 관람객 시선을 고려한 디자인과 최적동선을 유도 · 안내하는 설치위치,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갈한 안내문으로 정비됐다. 특히 안내문안은 초 ·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됐으며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영문번역도 외국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의역해 문안을 간결하게 했다.



변경전 '구층암' 유도안내판(좌측)과 변경 후(우측)의 모습. 새 안내판의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적절한 높이와 금속 소재로 관람객들에게 위압감과 거리감을 주던 철재 보호책도 바뀌었다. 목재보호책으로 사찰 경관과 석조물 등과 조화와 관람객의 시각적인 편안함을 추구했다.

문화재청 이길배 사무관은 "이번 화엄사 안내판 개선으로 전국 930여개 전통사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광사 · 해인사 등에서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이 추진중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화엄사 문화재안내판 정비는 문화재청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주요 유형별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보급 계획'의 일환이다. 2006년 궁궐 유형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발을 마치고 경복궁, 창덕궁에 설치한데 이어, 2007년 사찰 유형 문화재 안내판 사업을 화엄사에서 진행했다. 2008년 2월부터는 왕릉 · 고분 유형 안내판을 준비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행복한 꽃동산 만들어요"

광주 무각사 꽃밭 만들기 행사 개최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꽃동산을 만드니 너무 즐거워요. 친구들에게 자랑할래요."

광주시민들이 자주 찾는 5 · 18공원에서 '행복한 꽃동산 만들기-아름다움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꽃밭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와 자비봉사단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맥문동, 매발톱, 할미꽃, 벌개미취 등 토종 야생화를 5 · 18공원 일대에 동참 시민들이 직접 심는 행사다. 청학 스님(무각사 주지)은 "대중들 마음에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의 꽃씨를 심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시작한 꽃밭 가꾸기는 4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가족단위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정수사 중창불사 회향 및 극락전 낙성식 봉행

완주 정수사(주지 동수)가 8년여에 걸친 중창불사를 마치는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3월 17일 열린 '중창불사 회향 및 극락전 낙성식'에는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 덕림 스님(전북불교회관 원감), 김완주 전북도지사, 임정엽 완주 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인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상을 봉안하고 있는 정수사는 889년(신라 진성왕 2년)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정유재란,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많은 전각이 소실된 것을 지난 2000년부터 산신각, 대웅전 등을 복원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시아문화 해설사를 위한 강좌 개설

4월 3일 인도박물관에서 개강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2008 아시아문화 해설사 아카데미'를 열고 4월 3일 인도박물관에서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체 13강의 상반기 강좌가 열린다. 강좌가 모두 끝난 후에는 현장스님과 '일본 속의 백제문화' 역사탐방(4박 5일 일정)도 떠난다.

4월 3일 개강식에는 이병훈 단장(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시민들에게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대중강좌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아시아문화 문화 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 스님(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은 "아시아문화의 네트워크와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카데미 개설 취지를 밝혔다.

강사로는 박정석 교수(목포대), 홍성흡 교수 · 최혜영 교수 · 김경학 교수(전남대), 정찬주씨(소설가), 조윤미 박사(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황병하 교수(조선대), 양동춘 교수(녹색대학), 박양희씨(인도명상음악가), 무쿨 바수 대표(웰빙아시아) 등 전문학자와 문화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문의: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사무국 (062)224-004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8 아시아문화해설사 아카데미 강의 편성표

1강	4월 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과 비전	이병훈
2강	4월 10일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해	박정석
3강	4월 17일	아시아문화란 무엇인가?	홍성흡
4강	4월 24일	서양문화를 통해서본 아시아문화의 정체성	최혜영
5강	5월 1일	인물로 보는 한국의 차문화	정찬주
6강	5월 8일	인도문화 엿보기	김경학
7강	5월 15일	티벳의 정신문화	현장스님
8강	5월 22일	동남아시아문화 읽기	조윤미
9강	5월 29일	아시아 불교문화의 이해	이희재
10강	6월 5일	아시아 이슬람문화의 이해	황병하
11강	6월 12일	아시아 전승의학의 현대적 의미	양동춘
12강	6월 19일	인도의 명상음악	박양희
13강	6월 26일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의 지혜	무쿨 바수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광주 원각사 청년회 이승동 회장

세대초월해 신행 · 포교활동

빛고을 광주를 대표하는 중심가는 충장로다. 쇼핑과 금융의 중심지로 젊은이들이 붐비는 충장로에 조계총림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가 위치한다. 원각사는 어린이법회와 청년회법회를 열고 있는 광주지역 모범 포교사찰이다.

광주지역 청년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6월 창립 88주년 제 27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 광주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원각사 청년회 이승동(법명 法海) 회장을 만났다.



전국 2500여명의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불청대회는 올해 '꿈과 희망 · 대동 · 나눔'을 주제로 6월 14~15일 광주일원에서 열린다. 빛고을 광주에 모인 청년불자들은 광주불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동한마당을 열 예정이다.

이승동 회장은 "비보이팀, 닷집 터트리기, 재미있는 율동 등 공동체 놀이와 범종을 울려라, 불청의 역사 다큐멘타리와 같은 불교적인 내용, 그리고 5 · 18묘지 참배 등을 할 예정"이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불교적 가르침을 배우고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장기기증과 헌혈행사를 전국의 각 지구에서 동시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승동 회장은 지난 2년간 원각사 청년회를 이끌어왔다. 이번 불청대회를 위해 다시 소임을 맡게 됐다는 이 회장은 "이번 불청대회를 계기로 광주지역에서 2~3개의 청년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찰 청년회 창립에 대한 스님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0여 년 전만해도 광주지역 사찰 청년회는 13개 지회와 광주지구가 있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청년회는 '원각사 청년회' 뿐이다. 원각사 청년회는 교리공부와 연꽃나눔봉사반, 경로잔치, 차보시, 영호남교류법회 등 활발하고 왕성한 포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지난 1991년 원각사 청년회에 입문해 지금까지 청년회의 동량으로 신행생활을 해온 이승동 회장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에 다녀서 진실하다'는 말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신행생활에는 단연 수행이 으뜸이다. "한 글자에 한 번의 절을 하며 법화경과 반야심경을 사경 기도를 한다"는 이 회장은 사경을 하며 부처님을 닮고자 노력해 왔다. 이 회장의 돈독한 신심은 가족에까지 이어져 이승동 회장에게는 "2남 1녀 중 한 아이라도 출가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다. 어려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는 이 회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의 단결된 모습으로 빛고을 광주에서 대한불교청년회의 비전을 찾기 바란다"며 불청대회에 대한 강한 원력을 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청대회 광주불교의 활성화위해 열릴것

각 사찰 스님과 단체들 적극적 지지 필요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창종 10주년 기념대법회

종 정 도암 혜우

승정원장 일암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 정일 포교원장 덕산
문화원장 도월 종회의장 지원

종 도 일 동

■ 일시 : 2008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충북 충주시 목행동 이화예식장
■ 문의 :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총무원 043)854-6855, 010-3176-2855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34-1 해월사)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100년 전 연등축제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초파일 행사 100년 역사'를 한 눈에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는 최근 연등축제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집 <초파일 행사 100년-연등축제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봉축위는 "연등축제의 근현대 변화과정을 밝혀 보기 위해 한국불교연구원과 조계종 행사기획단이 공동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연등축제 제등행렬이 1955년 조계사에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자료집에는 1907년부터 2007년까지의 초파일 행사 관련 기사와 제등행렬 약도, 행렬 순서도, 포스터,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난 100년간의 초파일 날짜와 제등행렬 · 연등축제일이 도표로 정리돼 있으며, 1947년 4월 16일 작성된 '석존강탄절기념봉축에 관한 건' 문서도 실려 있다.

#1907년 '봉원사서 경축예식' 기록

그렇다면 근현대의 초파일 행사와 연등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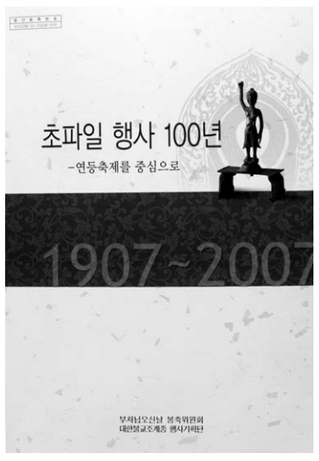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한 연등행사는 일찍이 신라 경문왕 6년(866) 황룡사에서 간등(看燈)을 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불교민속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탑돌이 또한 신라 원성왕대(785~799년)부터 기록이 보인다.

근현대 초파일 행사 기록은 1907년 5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음력 사월 초파일은 석존탄신이라. 명진학교 일반교원이 학도(學徒)를 반솔(伴率)하고 봉원사에 전왕(前往)하야…경축예식을 봉행했다'는 데서 시작된다. 1909년 5월 30일 '황성신문'에는 '욕불절(浴佛節)인 고로 덕수궁에서 의친왕 이하 각 황족(皇族)에게 주찬(酒饌)을 하사하셨다더라'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들어간 직후에는 행사 주관이 일본의 정토종으로 변했고, 1911년 행사는 일본 순사가 직접 호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다. 1912년부터는 행사 규모가 점점 커져 낮과 밤에 걸쳐 두 번씩 행사를 하게 됐다. 이 해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각황사에서 행사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1920년에는 조선신도회가 주최한 초파일 봉축행사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입장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또한 법요식 뿐 아니라 설교 · 강연 · 음악 · 무용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었다. 관불과 관등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1937년부터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초파일 행사가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치러지게 됐으며, 해방 후 다시 음력 행사가 공식행사로 자리 잡았다. 1940년대에는 종파마다 다르게 진행되던 행사를 종파연합으로 치르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관불행사 및 욕불행사, 관등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 연등축제 변화과정 보기 위해 펴내
> 신라시대부터 불교민속 자리잡아
> 1910년 이후 日 정토종에서 주관하기도

#제등행렬은 1955년 조계사에서 시작

현재 치러지고 있는 형태의 제등행렬은 1995년 조계사에서 시작됐다. 이 해 제등행렬은 조계사를 출발해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중앙청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이어졌다. 이후 1962년까지 조계사와 동국대 부근에서 치러지다 1963년 무대가 동국대학교로 옮겨졌다. 1963년 제등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을지로3가→종로3가→조계사→중앙청→태평로→을지로입구→을지로4가를 거쳐 동국대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1975년 초파일의 공휴일 제정으로 인해 제등행렬 참여인원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어 1976년부터 1995년까지는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여의도광장을 출발해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실시됐다. 이후 1996년 동대문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해인 2007년까지 치러졌다.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올해부터는 동국대를 출발해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기성 선사의 수행 트렌드는 '淨攝禪敎'

이종수씨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회의 발표



기성선사의 사상을 '정섭선교'라 표현한 이종수씨(가운데)와 논평자 김종진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좌),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우).

'왕과 나' '이산' 등 사극 열풍과 함께 몰아친 조선시대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도 일었다. 3월 15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의 제79차 월례학술회의가 그것.

'조선시대의 불교사상과 인식'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이종수(동국대 강사)씨는 '18세기 기성쾌선의 정섭선교론'에서 18세기 기성 대사의 선사상을 정토를 중심으로 선교를 아우른 '정섭선교(淨攝禪敎)'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18세기는 승려 33인이 문집 36종을 간행했을 정도로 조선조에서 불교가 왕성했던 시기로 구분되며, 기성 대사는 가장 많은 문집을 남긴 서산 대사의 법계를 잇는 편양계 스님이다.

이씨는 "선승이라는 칭호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선종의 승직명이던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수행승에 대한 일반적 호칭이 됐다. 일반화된 선사들을 사상에 따라 구분할 필요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기성 대사의 정토론은 교학과 선학을 두루 섭렵한 이후에 염불문을 세워 회통시킨 것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한편 민순의(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씨는 '정도전과 권근의 불교종파 이해와 의의'에서 정도전과 권근으로 대표되는 여말선초 성리학자들의 화엄학 등에 관한 불교이해를 고찰했다. 또 김경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씨는 '무기와 62견의 관계'를 통해 외도 사상에 대한 붓다의 분석과 대응방법을 62견과 무기를 통해 접근하고자 했다.

김씨는 "무기로 표현되는 붓다의 침묵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적극적 답변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11)한국불교연구원

kibs.or.kr

연구 · 신행 운동 · 세계화 '견인'

공동 연구 · 공동 수련 · 공동 참여의 한 마음으로 지성불교 · 생활불교의 요람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목탁이 되고자 한 단체가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불교의 사상 · 역사 · 예술 등을 연구하며, 올바른 신행을 정립하고, 해외로 한국불교를 선양하는 단체다. 다양한 불교강좌를 개최해 깊이 있는 불교학을 갈구하는 불자들에게 감로수 역할을 해온 연구원은 故 이기영 박사가 1974년 설립해 1997년부터 정병조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1985년 창간된 계간 학술지 <불교연구>는 제28집까지 발간됐다. 연구원 출판부는 <고려시대선사상 연구> <실천불교> <반야심경의 세계> 등 다수의 불교서적을 발간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로 중국내 한국 구법승을 조사한 연구원은, 1차년도 삼국 및 신라중대를 시작으로 2차년도 신라하대 및 고려시대, 3차년도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중국 내 한국구법승 자료를 정리했다.

연구원의 올해 중점행사는 6월 28일 개최 예정된 '실크로드세미나'다. 문무왕 사무차장은 "실크로드 지역의 불교문화를 중국 섬서사범대 학자들과 함께 발표하는 국제학술회의다. 하반기부터는 실크로드 관련 연구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02)762-5624

조동섭 기자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4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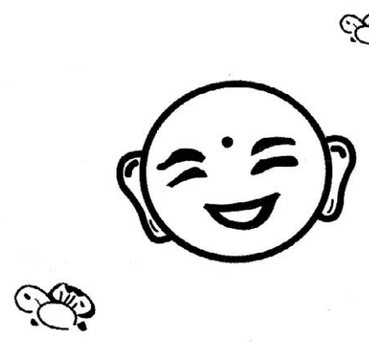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제8대, 15대, 23대)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제6대) 등 종단 주요요직을 역임하며 어린이 포교부터 노인복지, 군포교, 교육불사, 역경사업, 종단행정 등 근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석주 스님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석주정일문도회(대표 월호)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는 4월 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석주 스님의 생애와 사상 · 교육 · 포교 · 종단개혁 · 근현대 한국불교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는 학술회의는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이 '석주 스님의 생애와 사상', 홍윤식 교수(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가 '석주 큰스님과 종단개혁불사',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석주 큰스님과 교육불사', 고명석 연구원(조계종 포교원)이 '석주 큰스님의 포교활동',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이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술회의 개최에 앞선 4월 8일 오전에는 칠보사에서 석주정일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례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네가 웃으니 꽃이 피네요 摩訶

나누는기쁨공동체 · cafe.daum.net/jurira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당신은 마음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이판승을 위한 자비명상 - 집착을 벗어나 자유로움으로
4월 14일 - 18일 (4박 5일) 85만원

재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5월 26일 - 30일 (4박 5일) 85만원

사판승을 위한 자비명상 - 신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6,7월 매주 화요일 8주와 8월 중 (4박 5일) 180만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십시오

* 문의 및 접수 : 천안 만일사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63 ☎ 041)622-1190

티벳이 자유롭길 바랍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합니다.

일주문



제10차 스터디투어 진행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은 3월 11~16일 캄보디아에서 제10차 스터디투어를 진행했다. 해외 초등학교 · 유치원등을 방문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를 찾아가는 3000배 정진법회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3월 15일 천안 문화동청사에서 '외국인유학생 자매결연 및 한마당축제'를 열고 유학생 65명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공군 호국군성사 수계법회 봉행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재곤 스님(관음사 주지)은 4월 13일 군산 공군 38전투비행단내 호국 군성사에서 수계 법회를 봉행한다. 063)471-0199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 열어

대한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은 3월 27일 오전 11시~오후 7시 불교방송국(BBS) 지하 1층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을 연다. (02)713-2905

불자장성 군 수뇌부 임명

김태영 합참의장 · 임충빈 육참총장





이명박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불자장성 2명이 요직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3월 17일 대장급 인사에서 불자 장성 김태영 대장(사진 · 좌)과 임충빈 대장(사진 · 우) 을 각각 합동참모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했다.

김태영 합참의장(前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사진 왼쪽)은 59세,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육사29기 출신이다.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 1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대장 진급과 함께 임명예정된 임충빈 육참총장은 58세,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남고와 육사 29기 출신이다. 17사단장, 1군단장을 거쳐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다. 지난 2월 25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열렸던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8주년 기념식에서 총무원장 상을 받았다. **조동섭 기자**

이전 **연중기획**(대표 김중근)이 서울 경운동 SK허브빌딩 B109호로 이전 했다. (02)312-3205

바로 잡습니다. 제671호 일주문의 대구 원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허주 스님' 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대만서 사경전시회 성황

원응 스님, 후원금 현지 고아원 · 장애인시설에 기부



대만에서 사경전시회를 개최한 원응 스님(사진 가운데)이 현지의 12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원응 스님의 왼쪽은 자광사 주지 원교 스님이고 오른쪽은 대만불교TV 자비대의 심경 스님.

"부처님 법에서는 국경 · 종교 · 인종 차별이 없고 모두 하나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세계 인류 평화를 막고 있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여 년 사경을 해 온 지리산 서암정사 조실 원응(元應) 스님이 대만에서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를 성황리에 열고 후원금 전액을 현지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의 사경전시회는 3월 2일~13일 대만 타이베이(臺北) 국부(國父)기념관에서 열렸다. 대만 자광사(慈光寺, 주지 원교)가 주최하고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와 대만 자광문교기금회가 협찬했다. 전시회는 관람 인원이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우리와는 수행 풍토가 다른 대만에 한국의 사경 수행을 소개함은 물론 한문으로 조성된 경전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화엄경 금니 사경' 병풍은 60만 자(字)로 이뤄져 있으며 그 길이가 1300여 미터에 달한다. '화엄경 금니 사경' 외에도 여러 경전에서 뽑아 쓴 75점의 작품들이 대만 국민들에게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는 것이 현지의 전언이다. 또한 전시된 작품은 일체 판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로부터 1억 2000만원이나 후원받았다고 한다.

스님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세계평화'로 잡았다. 이에 따라 스님은 후원금 전액을 대만의 12개 단체에 내 놓았다.

12개 단체 중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과 지체장애인 수용시설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와 대만 운림현(雲林峴)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에도 후원했다.

"우리 불자들은 인류는 하나라는 생각 아래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씩 버린다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평소 '실천하는 불교'를 주창해 온 스님의 수행 정신을 아낌없이 보여 준 계기였으며, 한국과 대만의 불교문화 교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윤정 논설위원**

"사찰 무료 지하수 개발 신청하세요"

관정개발 봉사하는 보현회 김태룡 부회장



물자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아직도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이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의 봉사모임 보현회(회장 정인악)는 물 부족을 호소하는 사찰에 무료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봉사를 펼치고 있다.

지하수 관정개발 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보현회 부회장 김태룡(57) 주식회사 산수음료 대표이사는 "보현회의 무료 지하수 개발봉사에 많은 사찰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현회가 관정개발 봉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오던 봉사를 보현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산불피해를 입은 양양 낙산사를 비롯해 곡성 태안사, 아산 옥련암, 김천 청암사, 서울 봉덕사, 곡성 관음사 등 사찰 12곳에서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수량(水量)은 하루 1478톤.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하루 74만명, 생활용수로 활용할 경우 하루 6000명이 이용 가능한 수량이다. 이 밖에도 관정개발을 신청한 사찰 대부분을 직접 공사하거나 자문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지하수 개발 공사는 적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큰 불사다. 그러다 보니 수질이 나쁘거나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한 사찰에서도 선뜻 공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공사 기간만도 수질검사부터 완공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다.

"낙산사 관정공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후 사찰들의 신청이 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최근에는 급감하고 있다"며 "식수와 생활용수로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비용은 일체 무료지만 지하수 관정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사찰 근방에 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하며, 사찰 부지가 3300㎡(약 1000평) 이상일 때 개발 확률이 높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동안 사찰에서는 우물 개발업자와 무리한 물량계약을 함으로써 무리한 시공과 불량한 자재 사용으로 지하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보현회에서는 생수업체인 산수음료의 앞선 기술과 최고급 자재로 시공해 사찰에 감로수(甘露水)를 공급하도록 관정개발 봉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02)2254-1477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동국대 병원불교회 합동의료봉사



동국대 경주 · 포항 · 경주한방병원불교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합동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불교회는 3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에서 내과 외과를 비롯한 양방병원 5개 진료과와 한방병원 2개 진료과의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북면 270여 가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봉사에는 의료인 40여 명을 비롯한 7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불교회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금강선원 금강불교대학 1기 졸업식



부천 상동 금강선원 부설 금강불교대학(학장 해광)은 2월 29일 제1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생 24명에 대한 준법사 수계식도 함께 치러졌다. 해광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해도 배움은 끝이 없는 것이므로 계속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생들은 3월 6일 서산마애불과 수덕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한편 금강불교대학은 4월 3일부터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32)665-8472 **여수령 기자**

동두천 자재암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동두천 자재암 자원봉사단(단장 법해)은 3월 16일 태안 구례포 지역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45명의 자원봉사단과 가족이 함께 동참한 이날 봉사활동을 통해 오염된 모래와 자갈의 기름을 제거했다. 법해 스님은 "아직도 기름제거에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는 곳이 많아 불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재암 신도들은 입춘불공 때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응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교육에 활용/ 따주기 사회봉사/ 생활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이웃에 건강 복 짓기 등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강좌 구분
(1) 스님반
(2박 2일 : 금요일 오후 도착, 토요일 9시 시작 ~ 일요일 13시까지)
(2) 포교사 및 일반인반
(1박 2일 : 토요일 오후 2시 시작 ~ 일요일 13시까지)

나. 강좌 내용
(1) 공통(스님반, 포교사 및 일반인반)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2) 스님반 추가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강좌 일정 및 장소(선착순 12명)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1)스님반 : 2008. 4. 12(토) ~ 4. 13(일)
〈4월 11일 금요일 오후 도착〉(34만원)
(2)포교사 및 일반인반 : 2008. 4. 19(토) ~ 4. 20(일) (25만원)
※ 각 반 강의개시 2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옥황토방 숙박/ 자연식단 제공 / 따주기도구 · 비법교재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이동 치과병원이 '달려갑니다~'

불교의료지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이동 진료차량 마련

"다른데 아픈 건 참아도 이 아픈 것은 못 견디겠어요."

제때 치료하지 못한 치아만큼 통증이 심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의료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들의 경우,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치과 진료만큼은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미뤄두기 십상이다. 진료비가 워낙 비싼 것도 이들이 치과 진료를 미루는 이유다.

이런 이웃들의 치과진료를 돕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 좋은 날(이사장 김의정)과 동국대 일산병원불자회 회원들이 의기투합한 불교의료지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가 소외된 지역의 치과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동치과진료버스를 마련했다. '반갑다 연우야'는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이동치과진료 차량의 무사운영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반갑다 연우야' 이동치과진료버스에 탑승,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앞으로 '반갑다 연우야'는 이 차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 치과진료를 하게 된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반갑다 연우야' 회원 20여명을 비롯해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차량 제막식, 경과보고, 발전기금전달, 활동계획 발표,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 꼭 치과진료차량까지 마련해야 했을까. '반갑다 연우야'는 2006년 결성돼 전국 각 지역 복지관과 시골 마을을 의료봉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이웃, 특히 거동 못하는 무의탁 장애인들의 경우 치아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반갑다 연우야'는 2007년 3월부터 이동치과진료 사업계획을 수립, 모금 운동 및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2억 1000만원을 모연해 치과진료차량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차량에는 치과치료용 덴탈 체어, 엑스레이(X-ray) 진료기 등의 최신식 치과진료장비와 장애인용 리프트, 천장 냉난방기 등이 설치돼 있다.

앞으로 '반갑다 연우야'는 이 차량을 통해 무연고 장애아동, 노인 및 장애인, 농촌지역 주민 등에게 발치 및 소독, 스케일링, 보철 관련 치료, 상비약품 배포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치과 의료비가 비싸 이가 아파도 치료는 엄두도 못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진작 이런 치과차량을 마련하지 못해 부끄럽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널리 퍼져 불제자들이 자비실천을 이뤄가는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주말마다 의료 봉사를 가는 '반갑다 연우야' 선생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차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반갑다 연우야'는 앞으로 엄인웅 치과치료단장(서울 인치과 원장)을 주축으로 월 2회 치과진료차량을 통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 활동은 3월 29일 서울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⑰ 노숙인복지시설 영등포 보현의집 승봉규 복지부장

'노숙인'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몇 가지 있다. 사실 좋은 것은 별로 없다. 서울역 부랑자, 게으름, 나태, 음주, 시비 등 거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먼저 연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숙인복지는 곧잘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하냐"는 반대의견에 부딪치곤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서울 영등포 보현의집(원장 지거) 승봉규(46·사진) 복지부장은 "사회적 편견이 노숙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노숙인에 대한 편견 버려야"



"노숙인이 사지가 멀쩡하다고요? 겉보기에만 그렇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국민체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몸도 문제지만 사실 마음이 더 문제에요."

승 부장은 노숙인복지를 이끌며 느껴왔던 사회적 편견에 몹시 마음이 상해있었던 모양이었다. 다른 복지수혜자들 보다 유독 '냉대'를 받아왔던 노숙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서글플 만도 하다.

승 부장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 중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틀렸다고 말한다. 우선, 노숙인들 중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시설 내에서도 술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과 실랑이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마음의 짐이 크고 공황상태가 길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 쉽게 포기하게 되는 심리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승 부장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지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해야하냐"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혜택 가장 필요한 사람은 노숙인
진솔한 상담 통해 마음의 벽 허물어

이런 사실은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알 수 없을 터다. 승 부장은 2002년 9월 영등포 보현의집과 첫 인연을 맺었다. 지금이야 그도 전문 사회복지인이지만, 처음부터 복지사로 보현의집에 온 것은 아니었다.

"사실 복지의 '복'자도 모르고 시설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아저씨들 '관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웬일일까, 그는 어지간한 다른 사회복지 전공자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승 부장의 장수비결(?)은 다양한 사회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주점 경영, 사업체 운영, 영국 호텔 유학 등의 삶을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 보는 등 그 역시 굴곡 많은 삶을 살아왔다. 이런 인생 경험이 노숙인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역할을 했다. 노숙인 상담을 할 때 승 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한다.

"요즘 아저씨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월례회의를 할 때 주체적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했구나' 싶어 얼마나 환희심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어느덧 복지시설 종사 6년 차. 이제 그는 복지를 조금 알만하고 이 6년이 자신의 모든 인생보다 훨씬 값진 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 승 부장은 하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아저씨들을 면담하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시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장애우 위해 써주세요"

60대 할머니 유산나눔 실천…승가원에 땅 기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에서 훈훈한 소식이 날아왔다. 한 기부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승가원에 기부한 것이다.

미담의 주인공은 현재 경남 양산에 거주중인 60대 중반의 모 할머니로 지난 2월 처음 승가원에 전화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승가원은 3월 1일 모 할머니를 방문, 땅의 등기와 증여 문서 일체를 기증받았다.

기부자 모 할머니는 땅을 기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도록 승가원 측에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사실 이번 땅 기증은 할머니의 주변인은 물론 자식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다.

할머니가 승가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6년으로 할머니의 둘째 딸이 승가원에 꾸준히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다. 이후에는 함께 십시일반 모은 용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번에 할머니가 기증한 땅은 경남 함안 일대 2필지로 약 764㎡의 땅이다. 할머니는 "크지도 않은 땅이지만 죽기 전에 꼭 장애인들을 위해 쓰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약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녀를 어렵게 키워냈다. 현재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맞기 전, 자신의 재산을 '유산나눔' 형식으로 기부한 것이다.

승가원은 "가끔 큰돈을 기부하시는 일은 가끔 있지만 '유산나눔'으로 땅을 기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할머니의 뜻을 잘 받들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지역 복지 꽃피우는 예술展

고창복지관 기금 마련 전시회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이 '제1회 복지후원금 마련 작품전시 및 모금전'을 개최했다. 3월 17~25일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복지관 운영위원장인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스님, 문수사 주지 선법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장세영 고창군의장을 비롯한 기관장 및 지역 어르신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법만 스님은 환영사에서 "복지는 소외계층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모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원융무애한 삶이 참다운 복지며 문화가 될 것"이라며 선운사와 고창사회복지관은 초심을 잃지 않고 걸림 없는 복지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고창복지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원담 · 성수 · 중광 · 석정 · 범주 스님 등의 선서화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비파 · 여태명 · 손숙희 작가의 그림과 이해인 수녀의 시화, 최태근 · 임성호 작가의 도예 작품 등 12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관장 무공스님은 "앞으로 고창 복지관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주간보호센터에도 나올 수 없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기초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제공, 목욕, 집안청소 등의 활동을 하기위한 차량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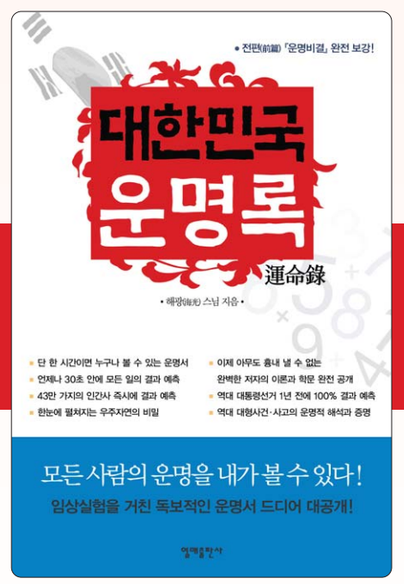
"전수생 모집"
□ 대상 : 초보 · 학력 · 나이 제한없음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6시(3시간)
□ 기간 : 8개월(개강일 : 4월 6일 일요일)

※ 좋은이름 지어드립니다.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재물 운,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20,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작명,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전국대형서점,불교서적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 반 상 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

"종교는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해외불교칼럼



배타적 태도와 '막무가내' 식의 전도는 종교의 본래 사명을 왜곡시키며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진은 종교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교회에 마련된 투표소. <현대불교자료사진>

몇 년 전 캐나다를 공식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살아 숨쉬는 평화'란 주제로 3만 여명의 대중에게 법문을 펼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적을 파멸시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새겨볼수록 묘한 뉘앙스가 풍겨나는 얘기다. 그렇다면 적과 서로 옹기종기 친하게 지내자는 얘긴지? 뒤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 곰삭은 홍어처럼 톡 쏘는 한 마디를 던졌다. "내가 관대함을 배우는 데 있어 나의 적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적을 이젠 아예 스승으로 모시자는 건가 ? 참 이상야릇한 해학이다. 그 말에 담긴 뜻을 헤아리느라 잠시 멈칫하던 군중사이에서 갑자기 터진 봇물처럼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도 마침내 불교 특유의 역설을 이해한 것이다. 애써 겉모양이나 위엄을 챙기려 하지 않는 달라이 라마는 이처럼 늘 웃음이 넘치며 쓰는 말씨도 아주 쉽다.

이어 토론토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가 답례인사를 하게 됐다. 그러자 각계 인사와과 학생 등 약 2000명의 참석자들은 조용히 그가 입을 떼길 기다렸다. 잠시 머뭇대던 그는 장난꾸러기소년 같은 미소를 띠며 서툰 영어로 더듬더듬 이어갔다. "저, 그 어려운 법률 공부 안 하고도 어,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다니, 하하. 네, 참 좋군요." 참석자들은 죄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구는 종교지도자의 유형에만 익숙했던 그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일종의 파격일 테지만, 이는 곧 붓다세존의 본 모습이다.

서구인들은 불교의 그런 측면을 가장 반기며 친근하게 여긴다. 그래선지 요즘 미국인들도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우스개를 부쩍 만들어 낸다. 그 중 하나다. "내 친구가 모처럼 일요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얼른 살짝 빠져 나오려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의 손을 꽉 붙들더니, '자, 이젠 형제님도 우리 주님의 군대로 들어오셔야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가 '어? 목사님, 저는 이미 들어간 걸요'라고 대답했다. 목사님이 그를 지그시 눌러보며, '그럼 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말고는 형제님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나요?'라고 묻자 내 친구가 갑자기 귀엣말로 속삭였다. '쉿 ! 목사님, 여태 모르셨나요?' '모르긴 뭘 몰라요?' '쉿, 목사님, 저는 주님 군대의 특수비밀요원이걸랑요.' '그래서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늘 아무도 안 보이는 데 숨어서만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쉿.'" 그 농땡이 신자가 주님 군대의 탈영병이든 특수비밀요원이든 이 얼마나 상큼하고 재미있는 그림인가? 종교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해주자고 있는 게 아닐까?

언젠가 함께 불경스터디그룹을 하던 르네라는 외국 여기자가 어느 대학교에 프랑스어 강사로 들어온 자기 동창생을 함께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림역에서 부천행 전철로 갈아타려는데 한 아줌마가 날 똑바로 찍어보며 다가왔다. "지옥 불을 면하고 천당 가려면 당장 회개해요!" 이내 구경꾼들에 빙 둘러싸인 내가 낮게 물었다. "아, 예, 근데 뭘 회개하면 좋을까요?" 그 말에 열을 받은 건지 그녀는 이젠 내게 사탄이니 마귀니 막말에 삿대질까지 해댔다. "어머, 천당의 안내도우미치곤 의사전달방식이 거의 지옥 여간수 버전이잖아!" 곁에서 내내 지켜보다 못해 한마디 내뱅긴 르네가 내 두루마기 소매를 끌어당기자, 그녀는 시뻘건 숨을 내뿜으며 날 파랗게 노려봤다.

때마침 들어온 부천행 열차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며 난 그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열차 안까지 잔뜩 화를 끌고 들어온 르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스님이 그 이상한 여자한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셨기에 여기까진 안 쫓아온 거죠?" 내가 대답했다. "아줌마, 그 좋은 데로 얼른 먼저 가계세요. 저는 천천히 따라갈 게요." 르네가 킥킥대는 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은 나 혼자 중얼댔다. "아줌마 자매님, 시방 저는 천당보다 해우소가 더 급하거든요." 왜 그리 힘들게들 믿으시나 모르겠다. 본디 곱고 순진한 우리나라의 선남선녀들을 누가 왜 그리 가르치는 걸까?

편역:성휴 스님

참조:TCN, Campus Pranks

"백전백승의 경영비법은 배려심"

윌드스타 불심도스타

필 잭슨 ❸

선불교·美원주민 철학 스포츠에 응용
'중도·상호신뢰·열린 토론의 장' 강조

미국에 선이 도입된 것은 불교가 알려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공식 기록상, 선이 미국에 소개된 것은 동학혁명 한 해 전인 1893년으로 당시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의회에 참석한 샤쿠쇼엔(釋宗演) 스님이 그 선구자라는 게 보편적 견해다. 지금도 서구에서 흔히 선은 젠(zen), 좌선은 자젠이란 일본말로 통용되며, 선을 통한 깨우침을 일컫는 용어도 일본어로 사토리(悟り)라 발음할만치 일본불교의 기여도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일본불교는 검도, 궁도, 유도, 합기도 등 각종 무술부터 분재, 다도, 서화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통문화를 서구인들에게 선전 보급함에 있어 선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선은 재미일본인들의 강력한 사회적, 정신적 결속요인이 되어왔고, 일본불교는 서구에 찬란하고 유구한 동양문화를 과시하고 동양인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이후 미국 불자가 급증하면서 선 역시 사회 깊숙이 파고들며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다.

모든 인종, 종교, 과학, 문화, 예술의 용광로라 일컬어지는 미국에선 불교도 여타의 사상, 철학 등과 원활한 융화를 이루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불교의 특징은 일상 속의 불교(Buddhism in Daily Life), 그리고 생업 속의 선(Zen at Work)으로 대별된다. 즉, 수행과 생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수행이 일상의 삶과 일에 직결 활용됨을 뜻하는바, 이는 미국인들의 실용성, 독창성, 기업정신과 다시 결합하여 막강한 시너지를 창출해낸다.

거기에 자본주의 대국 특유의 다양한 상업적인 발상마저 더해지는 까닭에 꼭 불자가 아니라도 실리적인 측면을 추구하여 사찰과 선원, 동아리 등을 찾는 이도 많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선원들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세미나와 영상물을 통한 교육과 도서출판물들도 줄을 잇는다.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계층'이라 분류되는 미국인치고 적어도 한두 번 불교나 선과 접해보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게 미국 종교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한때 개신교도였던 필 잭슨의 뛰어난 인간경영 및 용병술 역시 불교의 미국적 응용사고의 결실이다. 그는 선불교와 미국토착원주민들의 철학을 합성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십분 활용했다. 인종갈등 등 팀 내의 이질요소를 극복하고 상호조화를 이룬 팀플레이의 달인인 그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매달림을 버리라, 마음을 비우라, 나를 버리라' 이는 자아를 버림으로써 되레 자아를 이룸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제시하는 리더의 필수적 자질은 이렇다. "첫째, 리더는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 선입견, 편견이 없이 팀 구성원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라." 이는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Middle Path)가 그것이다. "둘째,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하고 상호신뢰감을 구축하고자 하는 리더는 우선 상호친근감부터 조성하라. 셋째, 리더는 팀 구성원 각자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토로할 장을 늘 열어두라." 즉, 불교에서 말하는 원융(圓融)이 그의 분명한 지론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팀 내에 너와 나가 따로 없는 어우름을 갖추는 한, 선수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는 따로 필요치 않다. 굳이 장황한 훈시로써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려 말라. 그들을 드래프트 했을 때 동기는 이미 부여된 것이다. 우리 팀을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발로 찾아왔고 이미 그만치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승부욕이란 아무도 가르칠 수 없으며, 각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절로 박수가 쳐지는 멋진 말이다. 그는 NBA 프로농구 코트라는 대강당에서 세계적인 CEO들에게 '불교적 리더십'에 대해 한 수를 가르치고 있다. "두루 배려하라. 늘 남을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배려(Care & Share), 그것이 곧 백전백승의 경영비법이다."

성휴 스님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might be a famous master, but not a dead one yet.

소승이 명망이 높은지 모르나 사망은 안해본 터라.



The Emperor asked the famous master, "What happens to a man of enlightenment like you after death?" "Well, how should I know?" replied the master. "I am asking it because you are a very famous master," sneered the Emperor. "Your Majesty," smiled the master, "I might be a famous master, but not a dead one yet."

황제가 널리 알려진 선사에게 물었다. "선사처럼 큰 깨우침을 얻은 이들은 죽은 다음에 어이 되는 것이오?" "글쎄요, 소승이 그것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선사가 그리 대답하자 황제가 슬슬 이죽거렸다. "그대는 명망이 높은 선사라서 짐이 묻는 게 아니겠소?" 선사가 미소를 지었다. "폐하, 소승이 명망이 높은지는 모르오나 사망은 아직 아니해본 터라."

번안:성휴 스님 / 그림:이태수

다우존스, 불·힌두교 관련 상장주식 평가

인도에 다르마 투자법인 설립

세계적인 산업평가기구인 다우존스는 3월 7일부터 다르마, 즉 불법을 신봉하는 불교 및 힌두교 관련 상장주식 평가에 착수했다.

'다우존스 다르마 지수'는 최초로 세계적인 3400여 다르마 유관 우량기업체의 지수를 미국, 영국, 일본, 인도에 도입하며 이를 위해 인도의 종교관련 개인사업체와 다르마 투자 법인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는 1999년 이슬람주식시장지수를 시작으로 종교관련 지수를 개설했으나 현재까지 기독교에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NBC, BCTV

참선호흡으로 흙더미서 구사일생

중국 저장성 닝보 시에서 3월 7일 한 건설업자가 약 2m의 흙더미에 생매장됐으나 참선호흡으로 살아났다. 금년 52세의 왕지엔신씨는 평소 꾸준히 참선을 수행해온 불자로 매몰사고 직후부터 참선호흡을 통해 두 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담당의사는 이런 경우 보통 5분 안에 사망한다며 그의 기적적인 기사회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BCTV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54염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원 불멸의 평생염주





▷특별선물:27주 법륜염주와 손목합장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부처님 보석인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를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꼭 갖고 싶은 인도전설의 염주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108주로 한것은 108번뇌의 끊음을 뜻하는 것이고 염주를 2등분씩 줄여 54주 염주 27주 염주, 단주와 합장주로 만든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뜻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상인및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것을 지금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분, 중대한 문제 해결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소원이 이루워진다는 전설의 염주다. 수입후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천연백수정 54주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할 분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 불심사에서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천연백수정 54주염주와 가족친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27주 법륜염주와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선물로 보시하고 있다. 염주알 크기11mm 가격95,000원

부처님 존상인 법륜을 매듭으로 넣어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소원 성취의 선물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약이 있듯이 물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大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통한 종자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숫한 영험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신묘장구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린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 9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위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8,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세상을 담는 그릇

발우展 빈 그릇에 가득찬 가르침…佛心 UP~

"발우를 보니 그동안 쉽게 먹고, 쉽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철(38)씨.
"스님들이 탁발하고, 발우공양 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 절로 숙연해 집니다." 보현행(47) 보살.

발우를 비롯한 승물(僧物)과 고승들의 선서화, 도자예술과 함께 승가의 무소유와 소욕지족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세상을 담는 그릇-발우전'이다. 백령도 몽운사(주지 지명)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명 스님이 수집한 14개국 발우 100여점, 승물 30여점, 그리고 선서화 300여점과 도자 120여점이 전시됐다.

발우는 스님의 밥그릇이다. 발(鉢)은 범어 'patra'의 중국어 표기 발다라(鉢多羅)의 약칭이며, 우(盂)는 그릇을 뜻하는 한자어다. <사분율> 제31권에는 최초의 발우에 대해 전하기를,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공양 받을 수 있도록 사천왕들이 황금 발우를 올렸지만 거절하고, 돌 발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걸식을 위한 식기가 됐고, 선종에 이르러 발우는 법을 전하는 증표로 법기가 됐다.

3월 18일 열린 개관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발우의 의미에 대해 "발우는 행복한 사람의 심상처럼 원만한 형상이다. 항상 담겨있지 않고 비어있음을 모두가 바로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지명 스님도 "사바세계 중생들 모두가 채울 수 없는 욕심에 항시 고통 받고 있다"며 발우는 출가수행자가 안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중생구제를 위한 '세상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 입구부터 발우공양을 실감나게 재현한 한지미술가 류기화씨의 닥종이 인형들이 제일 먼저 관람객들을 반겼다. 발우공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전시된 닥종이 인형들을 보면 발우공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도움으로 2006년 다람살라에서 기증 받은 제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의 철발우와 가사, 장엄모 등과 함께 티베트 2대 종파인 까규파의 제17대 법왕 까르마파의 발우를 볼 수 있다. 그 외 캄보디아 탭 봉 스님(마하니까이 법왕), 베트남 민 짜우 스님(티엔비엔반한 사원 방장) 등 남방 선지식들의 발우, 티베트 고승의 두개골로 만들어진 두개골 발우와 황옥, 백옥 발우 등 이색 재질의 발우도 선보였다. 한국 발우 중에는 지명 스님이 석주 스님으로부터 직접 기증 받은 '석주 스님 발우'와 무정 스님(강화 청련암)이 부친 한윤성 스님에게 전해 받아 기증한 '구하 스님 발우' 등이 있다.

전시를 보고 난 뒤 정하린 어린이(12)는 "우리나라 스님들의 발우는 4가지로 된 나무발우인데, 다른 나라 스님들은 발우 그릇이 하나지만 쇠, 금, 도자 등 다양한 발우를 쓰는 것이 참 신기했다"며 함께 온 어머니에게 "혹시 다른 나라 스님들도 그릇 4개를 쓰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만 들여온 것이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함께 전시된 승물 중에는 흔하게 볼 수 없던 삭도도 눈에 띄었다. 지명 스님은 "삭도는 세속과 출세간을 가르는 경계의 도구"라며 정진을 위해 버리는 개념을 갖는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승물 18물외에 죽비, 목탁과 스님들이 소장했던 염주와 금강저 등도 볼 수 있다.

또 서옹 · 서암 스님 등 역대 조계종 종정과 경봉 · 석주 · 고산 · 원응 스님 등의 선서화들과 함께 수안 스님의 선화와 설봉 스님 · 천한봉 · 김정옥 씨의 도자기들도 이번 전시회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100여점 넘는 발우에 어느 하나 채워진 것 없는 모습을 보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고 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개막식이 열린 3월 18일. 많은 불자들이 몰려 이번 전시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개막식 후 전시물을 관람중인 수안 스님, 김의정 신도회장, 지명 스님, 홍파 스님(왼쪽부터).

승물 18물

승물(僧物)은 대승비구가 지녀야할 물품을 말한다. 스님들이 걸망 속에 넣고 다니거나 수행 정진할 때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소유가 허락된 물건을 일컫는다. 승물 중 삼의, 발우, 좌구, 녹수낭 등은 근본불교 시대부터 비구가 항시 지녀야할 것들로 '비구 6물'로 규정됐다.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 <범망경 보살계>에는 12가지 물건이 더해져 '비구 18물'로 불렸다.



삭발할 때 쓰는 삭도와 청수 올리는 그릇, 물을 거를때 쓰는 녹수낭과 불감(왼쪽부터).

삼 의: 승단에서 개인의 소유를 허락한 세종류의 옷으로 대가사인 승가라와 예불 · 강의 · 포살시 입는 울다라승, 운력과 취침 등 평상시 입는 안타회를 말한다.
발 우: 스님이 사용하는 밥그릇이다.
양 지: 양치용 나뭇가지로 오늘날 칫솔을 말한다.
조 두: 녹두, 팥 등을 갈아 만든 가루비누다. 경전 등을 대할 때 항시 심신의 청결함을 갖추도록 한다.
병: 물을 담아 불단에 올리는 병이다. 수계할 때 관정에 사용되고, 녹수낭으로 걸러 식수로도 썼다.
석 장: 스님들의 지팡이로 육환장이라고도 한다. 길을 갈 때 소리로 짐승이나 벌레들이 미리 피하도록 한 자비의 도구다.
좌 구: 좌복(방석)을 말한다.
녹수낭: 물을 거르는 여과주머니로 오늘날 정수기와 같다.
향 로: 향을 피우기 위한 그릇이다.
도자(삭도): 머리, 손톱을 깎거나 옷을 마름질할 때 쓰는 칼이다.
화 수: 요즘의 성냥처럼 불을 일으키는 도구를 말한다.
수 건: 얼굴, 몸 등을 닦기 위한 천 조각.
섭 자: 코털을 단정하게 하는 도구.
경: 출가자 본인이 수지독송 하는 소의 경전을 뜻한다.
승 상: 줄을 엮어 간이형으로 만든 의자나 침상을 말한다.
율: 출가자가 지켜야할 계율을 적은 책자다.
불 상: 불성을 갖춘 모든 중생을 공경하기 위해 소지한다.
보살상: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말한다.

지명 스님 몽운사 주지

"어렵게 모은만큼 큰 의미 되새기길"



이번 전시회는 백령도 몽운사에서 불사 중인 지명 스님이 수집한 발우가 주인공이다. 지명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발우를 수집하게 됐을까?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사용하던 발우에 금이 갔었습니다. 도반스님이 건넨 옹기 발우를 받아 쓰면서 자연스레 발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명 스님은 "발우는 승가 소욕지족의 상징물이자, 무소유의 대명사"라며 "청빈한 수행자 상을 되새기며 승물의 위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2002년 첫 번째 전시회를 하고 나니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스님은 3년전부터 본격적인 발우 수집에 나섰다. 만 5년 만에 다시 열게 된 이번 전시회에는 달라이 라마의 발우와 가사 등 귀한 발우들과 함께 '승물 18물'로 전시물품을 확대시켰다. 발우 하나를 얻기 위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수천km를 날아간 적도 있는 지명 스님은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과 라오스 대사 등 지인들의 도움이 있기에 귀중한 발우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렵게 모은 물건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전시회를 찾아 발우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원 건립기금 마련 자사호 展

즈미다장 김경환 대표 소장 작품 200여 점 공개



보이차 · 자사호 전문가인 즈미다장(茶莊) 김경환(45) 대표가 선원 건립기금 및 복지단체 지원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인사동 환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김 대표는 2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자사호와 다완(茶碗), 텍스타일(textile, 직조천) 등 200여 점의 작품을 내놨다.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독일 내 건립될 선원과 파주 시민선방, 계룡산 무상사, 양주 석굴암 불사 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우시설인 열린지평도 후원할 방침이다.

주요 전시품이 될 자사호(紫沙壺)는 중국 이싱(宜興) 지역에서 출토되는 자줏빛 흙으로 구운 차호로, 예술성과 실용성이 뛰어나 중국을 대표하는 도자기로 손꼽힌다. 최근 국내에 보이차 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자사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시회에서 선보일 자사호는 김 대표가 중국 현지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며 직접 수집한 것으로, 명 · 청대 제작된 작품이 대부분이다. 황실용으로 제작된 채색 자사호도 다수 전시된다. 김 대표는 "자사호는 조각과 서각, 기형(基形) 등이 작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종합예술품"이라며 "전시 품 중 40여 점은 최상급 골동품으로 다양한 자사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 밖에도 다완과 차도구, 중국 소수민족이 제작한 텍스타일 등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공간 기획까지 직접 맡은 김 대표는 전시 기간 동안 갤러리 내에 찻자리를 열어 보이차 시음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02)738-6569 여수령 기자

대중가요와 한국무용 풍부한 산사음악회

부안 내소사 4월12일 열려

부안 내소사(주지 진화)가 4월 12일 오후 7시 제7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전통차 내림 시연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매직쇼와 함께 얼쑤 오목대 등이 국악공연을 펼치고, 바리톤 임해철, 소프라노 김진희 교수, 현진우, 이명주 등이 출연해 클래식, 대중가요와 한국무용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와 그림' 귀일 스님 '포악대소상 전' 열어

흙 빚어 기와 굽는 일도 '불심'

4월 7~14일 인사동 학고재
5월 2~12일 울산 홍강 갤러리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사찰 기와그림의 맥을 홀로 이어가고 있는 안동 지조암 귀일스님이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 학고재와 울산 홍강 갤러리(5월2일~12일)에서 '포악대소상(暴惡大笑像)' 전을 잇달아 연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포악대소? 무슨 말일까 궁금해서 스님에게 물어보니 말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릅뜬 포악스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동시에 크게 웃고 있는 해학성을 지닌 용면이란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전통 그림이라고 소개한다.

귀일 스님이 버려진 기왓장을 도화지 삼아 오방색 천연 안료로 길상문양을 입혀 불화 만들기를 신행으로 일삼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는다.

스님은 특히 200년 이상 묵은 기와만 골라 사용한다. 도자기처럼 일일이 손으로 구워낸 옛 기와는 색이 아름답고 유약이 적당히 벗겨져 안료가 잘 먹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전한 기와는 온전한 대로, 깨진 기와는 깨진 대로 각양각색의 그림판이 된다. 큰 바닥기와에는 귀면(鬼面)을 그리고, 작은 골기와나 깨진 기와에는 신장(神將), 비천(飛天), 나한(羅漢), 해태, 연꽃, 당초문 등을 오색안료나 금박안료로 입혔다. 기와만 그림 재료가 아니었다.

폐자재인 서까래를 톱으로 얇게 켜서 갖가지 연꽃문양을 그린 차탁도 만들었다. 세월이 말린 소나무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

지인들의 권유에 못이겨 2000년 5월 서울 인사동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100점을 출품했더니 10여점 남고 다 팔렸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히 감탄했다. 꽤 번 셈인데 "대관료, 표구비 빼고 나니 많이 남진 않더라"며 웃는다.

기와그림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전시 요청이 잇달았다. 2002년 대구 인터불고호텔 개인전, 인사동 가나아트화랑 개인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초대전을 열었고 2003년 몽골에서 열린 몽골문화관광부 초대전에도 작품 20점이 건너가 호평 받았다.

지금까지 가진 전시회만 7차례. 무거운 기왓장을 들고 다니기에 지친 스님은 그동안의 전시회 수익금으로 2005년 봉정사 입구에 기와그림 전시관 '만휴(卍休)'를 개관했다.

"기와그림에 예술혼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작은 불심이 있을 뿐이지요. 옛 절은 돈이 아닌 불심으로 이루었습니다. 흙을 빚어 기와를 구운 것도 불심입니다. 우리가 신라미술을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기예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때처럼 지극한 불심이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1백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방송 봄철 맞아 3월 말부터 개편 단행

불교방송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 강화 눈길

BBS 불교방송(서울 FM 101.9㎒)이 봄철을 맞아 3월 말부터 프로그램을 새단장한다.

뉴스와 시사 정보프로그램이 강화된 이번 개편에서는 평일 오후 2시 <BBS 취재현장>과 밤 9시 5분 성우 안지환이 진행자로 뉴스쇼 <생방송 사람 IN>이 신설됐다.

일부 음악프로그램도 새단장 했다. <살며 생각하며>(월-일, 23:05-01:00)는 시인 고운기 씨가, 주말 <뮤직 편치>(토-일, 12:10-14:00)는 전문DJ 임범수와 가수 세리가 진행을 맡는다. 트로트 가수 강진 · 서지오가 함께 진행하는 <트로트 전성시대>(토-일, 14:05-16:00)와 주말 저녁 프로그램인 <생방송 큐>(19:00-21:00)는 새롭게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신 행 365일 >(월 -일 , 08:55-09:00)이 다시 편성됐다. 이 프로에서는 탤런트 김용림씨의 차분한 음성으로 가슴에 새겨야할 감로법문을 만날 수 있다. 매일 새벽 방송되는 <경전공부>(월-일. 05:30-05:50)는 한 주 동안 방송된 내용을 토 · 일 밤 9시 5분부터 재편성해 청취자들이 보다 편안한 시간에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㉜ 약과



통과의례나 명절 · 잔치 · 제향때 필수 음식
고려시대때 유행해 왕족에서 민가까지 즐겨

약과(藥果)는 밀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한 것을 기름에 튀긴 유밀과(油蜜果)의 하나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고급스러운 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과는 주로 정월에 많이 만들어 먹는데 통과의례나 명절, 잔치, 제향(祭享) 때의 필수음식이었습니다. 약과는 이미 고려시대 때 널리 유행해 왕족과 귀족 그리고 사원과 민가에서 널리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왕족과 반가, 사원에서 유밀과를 만드느라 곡물과 꿀, 기름 등을 많이 허실함으로써 물가가 올라 민생을 어렵게 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여서 고려 명종 22년(1192)과 공민왕 2년(1353)에는 유밀과의 제조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약과는 본디 '약(藥)이 되는 과자(果子)'라는 뜻인데, <오주연문장전산고>와 1613년 지어진 <지봉유설>에 "그 재료인 밀은 춘하추동을 거쳐서 익기 때문에 한 달 가운데 네 때의 기운을 받아 널리 정(精)이 되고, 꿀은 백약(百藥)으로 가장 좋으며, 기름은 살충(殺蟲)한다"고 해 약과 재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과의 모양은 처음에는 대추나 밤, 감, 물고기 등의 모습이었다가 조선시대에는 원형이 되었고, 제사 때 음식을 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다시 방형(方形)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예로 <성호사설>에서 "약과는 여러 가지 과실 모양이나 새의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나, 훗일에 고이는 풍습이 생겨나면서 넓적하게 자르게 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약과는 기름에 지질 때 기름이 속까지 배어들도록 천천히 지져 집청액에 넣으므로 단면이 여러 켜를 이룬 듯 하고, 그 사이에 기름과 꿀이 속속들이 배어 있어 고소하고 단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약과 재료 : 밀가루, 소금, 후추, 참기름, 소주, 설탕시럽, 집청액(조청, 물, 생강)

만드는 법

① 밀가루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고루 섞은 후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비벼준 다음 체에 내린다.
② 체에 내린 밀가루에 설탕시럽과 소주를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게 반죽을 겹쳐주면서 한덩어리가 되도록 2~3차례 반복한다.
③ 반죽을 밀대로 밀어 0.8cm 정도 두께로 만든 다음 모양틀로 찍거나 칼로 잘라 칼집을 준다.
④ 140℃ 정도의 낮은 기름온도에서 속까지 익도록 튀겨낸다.
⑤ 조청에 물, 생강 저민 것을 넣고 끓여 집청액을 만들어 뜨거울 때 약과를 담갔다가 건져낸다.





연극은 왜 밤에 공연되나…“꿈을 그려내기 위해”


유민영 단국대 명예교수

한국의 공연예술계가 거대 자본의 서포트를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영화 상업화의 후속물결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연극의 1번지인 대학로에 나가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은 방송국 개그의 오프라인이라 할 수 있는 소극장 몇 곳뿐이다. 그나마 방송과 영화 그리고 연극을 넘나드는 배우들의 공연장은 관객몰이를 한다. 해외의 거대 뮤지컬과 오페라가 고가의 티켓가격으로 한국의 공연예술계를 흔들었던 지난해를 돌이켜 본다. 작품의 완성도와 흥행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탄탄한 기획과 제작 시스템 그리고 홍보와 차기 작품으로의 반영이라는 연결고리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도 연관된 문화인들의 과제이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명사와 함께하는 토요예술강좌

‘한국 근대극 100년을 돌아보며’

강사 : 유민영(연극평론가, 단국대 인문과학대학 명예교수)
주최 : 국립극장
일시 : 2008년 3월 15일
장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은세계’ 창극 이후 격동의 연극사 100년 건강한 ‘정극’ 있어야 뮤지컬 등 다양한 발전”

배우 아닌 사람이 무대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 느낌이 색다릅니다. 평생 교육이라 하지 않던가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통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분들이라고 봅니다. 연극이 왜 밤에 공연되는지 아시나요? 현실을 반영한 꿈을 그려내기 위함입니다. ‘심청전’만 보더라도 장님이 눈을 뜨는 환상이 연극무대에서는 현실화되지요.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게 될 ‘한국의 100년 연극사’는 환상만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개화기로부터 비롯된 연극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역사를 반만년이라는데 왜 연극사는 100년뿐일까요. 연극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국에서 연극이란 말을 쓴 것은 근대부터 입니다. 신극 100년, 연극 100년, 근대극 100년, 다 옳은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판소리, 광대놀이, 산대놀이라고 했지 연극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극사를 정리하고자 하니 시대구분에 있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연극사는 서양처럼 사조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까닭입니다. 우리 연극을 주도했던 이들에게 연극이란 철학이 아닌 직업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용어 사용이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1908년 지금의 광화문 새문안교회 언저리에 있었던 극장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창극으로 공연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한국연극 100년이 됩니다. 창극은 분명 전통극이 아닌 근대극입니다. 반면 당시의 단원들은 기존의 판소리꾼과 기생들이었습니다. 개화의 물결 속에 조금만 다르면 새로울 신(新)자를 붙였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 신연극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국립 창극단의 뿌리입니다. 188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신파극이 일제의 한국침략과 함께 이 땅에 스며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서울에는 종로통을 기준으로 명동 을지로 퇴계로 남대문 등지에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고 돈암동 성북동 계동 가회동 효자동 등 북촌은 한국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남촌 즉 명동이라든가 남대문 등에 그들이 극장을 몇 개 만들어서 자국에서 신파극 단체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19년 3 · 1운동은 일거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의 향학열로 문화 역시 지적으로 변화되면서 저급한 신파는 퇴조하고 동경유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아마추어연극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이들의 아마추어연극은 미숙하긴 했지만 서구의 근대극을 흉내냈고, 연극을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려했습니다.

다행히 1930년대 들어 동경유학 출신 해외문학파들이 뭉쳤고 거기서 극예술연구회라는 본격신극단체가 탄생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서구의 근대극 수입과 그 정착을 목표로 하여 헨릭 입센(Henrik Ibsen) 등을 본격 소개했고, 극작가 유치진을 배출하여 이 땅에 사실주의 연극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정통 사실주의 연극 흐름과 동양극장의 대중연극이 병존하면서 연극계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저항적인 본격 연극은 쇠퇴하고 동양극장식의 대중연극만 번창하게 됩니다. 심지어 창극까지 일본말로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그때의 상처는 오늘날까지 우리 연극사의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1945년 8월 민족해방을 맞음으로써 연극 또한 어둠의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기존 극단들은 거의 해체되었고 새로운 극단들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었기 때문에 친일색이 없는 것들이 그대로 무대에 올려지는가 하면 새로 쓴 작품들은 거의가 식민지 시대에 마음껏 쓸 수 없었던 독립운동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좌파연극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작품들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비판이라든가 토지개혁 문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1946년부터는 좌우익연극으로 분열하기 시작했고 평양으로부터의 손짓도 분주해졌습니다. 평양에는 변변한 연극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연극인들이 다수가 월북했는데 북한에서 연극인들을 배려한다는 환상과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탄압, 그리고 경쟁자들과의 인간적 갈등 같은 여러 요인의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아시아 최초로 국립극장 신협이 문을 연 것도 잠시,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모처럼 조성된 연극기반은 완전히 파괴됐고 피난지인 대구와 부산 광주 등에서 겨우 연극의 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종전과 함께 3년여 만에 서울에서 연극을 다시 할 수 있었지만 사설단체가 된 극단 신협이 겨우 연극사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연극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연극계의 대전환기는 1960년대입니다. 1962년 남산에 드라마센터가 개관됨으로써 연극의 중흥을 시도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문 닫게 됐지만 이 때 전재산을 털어 심어놓은 유치진의 씨앗은 리얼리즘 희곡의 꽃인 ‘산불’로 피어납니다. 운영과 유지의 빈곤 속에서도 인재를 양성하여 전문 배우를 키움으로써 연극아카데미가 세워졌고 서울연극학교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서울예술대학이 됐습니다. 난해한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명쾌하게 형상화해 스타연출가로 자리매김한 임영웅을 비롯해 무대미술과 의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서양연극의 때를 벗겨버리고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제작하기 위한 고민이 활발해졌습니다. 박조열을 선두로 오태석, 윤대성 등이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시대의 이슈로 부각된 전통의 현대적 계승 내지 재창조라는 명제가 연극계를 풍미했습니다. 허규 주도의 극단 민예도 등장했고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정치성드라마라 할 마당극 운동도 광범위하게 번져갔습니다. 언론자유가 없던 시대에 마당극은 권력에 가려져있던 각종 부조리와 인권탄압 실태 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유신독재의 종식과 함께 새 시대가 열리는 듯 했지만 또 다른 군사독재가 등장함으로써 연극계는 여전히 암흑시대를 헤매야 했습니다. 소극장들이 난립한 가운데 임영웅의 산울림 소극장 개관과 오태석의 극단 목화와 극단 미추의 창단, 그리고 부산지역의 연희단거리패의 상경은 연극계의 미래를 낙관케 했습니다. 연극이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산울림소극장의 활약은 당시 연극계의 사건이었습니다. 산울림소극장이 일련의 페미니즘연극을 시도함으로써 중년의 인텔리 가정주부들을 대거 극장으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 연극계가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대형연극, 이를테면 서양풍의 뮤지컬과 토속적인 마당놀이 같은 상업성 짙은 연극양식이 무대를 점령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극은 겨우 소극장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춤과 음악을 주된 표현방식으로 삼은 뮤지컬과 마당놀이가 대형극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신시뮤지컬은 외국뮤지컬단체와 직거래하거나 대형 인기 있는 작품들을 수입하여 관중을 끌어들였습니다. 에이콤은 창작뮤지컬 ‘명성황후’등 창작뮤지컬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MBC와 극단 미추가 공동으로 추진한 마당놀이는 체육관이라든가 야외의 천막극장까지 만들어서 서양뮤지컬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난타’ ‘도깨비 스톰’ ‘점프’ 등과 같은 비언어연극도 1990년대 이후에 대중에 다가간 연극양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건강한 정극이 있어야만 뮤지컬 형태의 연극도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는 뮤지컬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연극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굴곡진 현대사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연극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서양의 앞선 연극양식을 수용하는 다양성 속에 우리 나름의 민족연극 양식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배우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에 유희의 인자가 깊은 까닭입니다.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특히 음악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지방화를 모색해야합니다. 수익성을 떠나 지역의 문화인들이 자체 제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꿈, 우리의 사상이 담긴 진정한 우리의 연극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할 길입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국립극장 사회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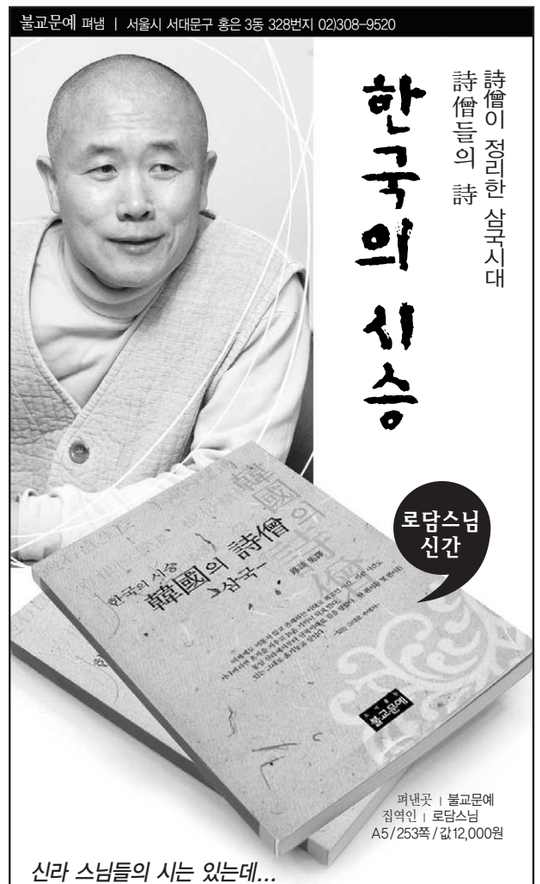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언제 · 어디서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지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명사와 함께하는 토요 예술강좌’ ‘청소년 연극교실’ ‘전통무용 강좌’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ntok.go.kr) 문화교실 참조.

불교문예 펴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8번지 02)308-9520

詩僧이 정리한 살국시대 詩僧들의 詩

한국의 시승 韓國의 詩僧 -삼국-

로담스님 신간



펴낸곳 | 불교문예
집역인 | 로담스님
A5/253쪽/값12,000원

신라 스님들의 시는 있는데…
백제 고구려 스님들의 시는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승려신인 로담 스님이 발품을 팔아 정리한
우리 고대사에 빛나는 깨달음의 노래들!

한글한문(겸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 : 예경:각청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묵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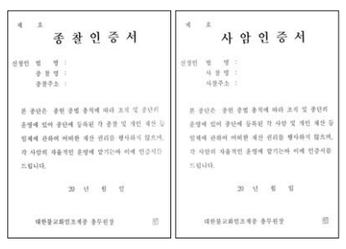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8년 4월 12일 – 4월 18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월 19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5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쇼울,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한국과 미국 '사이'엔 뭐가 있지?

한국과 미국, 오늘날 한국 사람에게 이 두 나라 이름이 주는 어감은 어떨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 속의 미국을 생각해 보고 미국 속의 한국을 생각해 본다면, 두 나라의 이름에서 동시에 받는 느낌은 그 사람의 삶과 정신의 중요한 단면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서 자란 '미국'의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반미와 친미라는 개념으로 대별되어 왔다. 물론 정치, 문화, 학술,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반미와 친미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로 볼 때, 반미와 친미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을 따질 것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선택이며 선택을 위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반'과 '친'의 선택.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무엇을 읽어 내는 것이다.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박성배 교수는 4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국적 인종 종교 문화 정치적 이념 등의 차이를 넘어서 남을 돕는 '동지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그리고 그러한 코드 속에서 '한국학 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 속에 제대로 된 한국을 심는 것이다. 그 중심에 불교가 있다. 불교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동양을 서양에 길들여서 이해시키려 하거나 서양의 눈만으로 동양을 보려하는 오류를 극복하는 길 찾기에 다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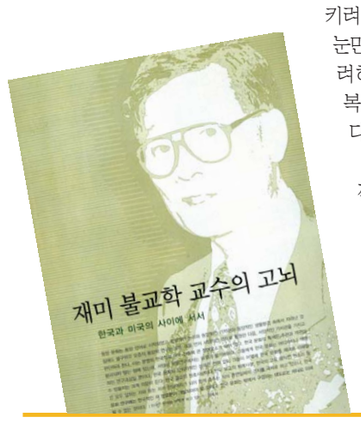
박성배 교수는 진정한 한국불교를 미국에 전파하는 길로 한국의 고승들이 남긴 저술들의 국역과 영역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뉴욕주립대학에서 원효 스님의 저술을 영역하는 사업은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 깊은 학문적 성과와 현실적 삶에 뿌리를 둔 불교운동으로 존경받고 있는 박성배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의미와 가치를 역설하는 제1세대 학자다. 하와이 대학의 버트 랭커스타 교수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한국불교 전공자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대학 시절의 불교활동, 출가 후 성철 스님의 시봉,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과정 등. 박성배 교수가 살아 온 길에서 자신에게 던져준 수많은 고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재미불교학 교수의 고뇌>는 그가 털어 놓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묶은 책이다. 박성배 교수는 서문에서 "내 글이 자기를 바로 알고 남들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상존하는 진리의 발견을 독려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과 좌담 혹은 인터뷰 기사들도 있고 '돈점문제'에 대한 굽힘 없는 소신이 강하게 어필된 글도 실렸다. 불교의 사회화 일상화를 위해 창안한 '몸과 몸짓'의 논리에 대한 설명과 이 논리를 적용해 바라보는 세상사에 대한 법칙 불교학의 새로운 관점 등도 눈길을 끈다. 1997년 본지가 창간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3형제 정담' 내용도 새롭다. 박성배 교수가 친형인 정조 스님(입적)과 역사학자 박성봉 교수(경희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안성 석남사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성찰과 준비'를 주제로 나눈 정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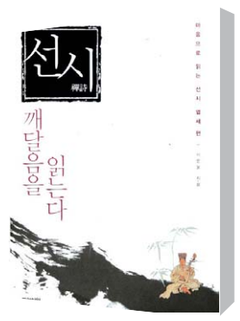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재미 불교학 교수의 고뇌
박성배 지음|혜안 펴냄|2만원

재가 선가들의 '선적심령' 읽기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
이은윤 지음|동아시아 펴냄|1만5000원

"긴 낚싯대 곧장 아래로 드리우니/한 물결 일렁이자 일만 물결이네
고요한 밤 물이 차가워 고기는 입질 않고/텅 빈 배에 밝은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네"

중국 당나라 선승 화정선자(華亭船子)의 선시 '긴 낚싯대 드리우니(千尺絲綸)'이다. 고금의 선객들이 지향하는 깨달음의 경계가 잘 그려진 시로, 불교가 그토록 갈구하는 깨침의 미학을 대표하는 게송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충 읽어봐도 담백하고 그윽하며 고요하고 한가한 선취가 물씬 풍겨진다. 그렇다면 이 선시가 우리에게 설하고 있는 법문은 과연 무엇일까? 금빛 수면 같은 고요한 마음자리에 한 생각이 일자 마치 낚시추를 따라 이는 물결처럼 일파만파의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을 쉬고 관조하자 안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空卽是色 色卽是空)'의 정신이 초월적 언어로 그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떠오르는 환한 달빛에 산새들 놀랐음인가(月出驚山鳥)/때때로 산새들 울어대는 봄날의 개울가(時鳴春澗中)"라고 노래한 왕유(699-761)의 시 '새 우는 개울가(鳥鳴澗)'는 대자연에 대한 섬세한 체험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윽한 언어로 그려내 "선적인 적정(寂靜)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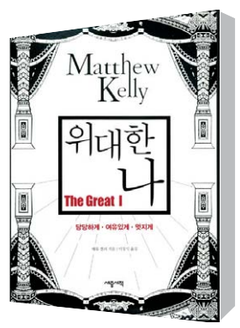
절제된 언어와 상징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선시(禪詩)를 소개한 <선시, 깨달음을 읽는다>가 출간됐다.

금강불교신문 사장으로 재직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유종원(773-819), 도연명(365-427), 소동파(1037-1101) 등이 남긴 13편의 시에 담긴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동서양 고전을 인용해 깊이 있게 설명한다. 글 곳곳에 수십년 동안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했던 저자의 불교적인 관록이 묻어나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저자는 "스님들이 지은 시를 모두 다 선시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굳이 선시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게송류의 철학시와는 달리 선적 심령이 밖으로 나타난 형상, 즉 선적 의경(意境)을 갖춘 심미시로서 시학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합리적인 욕심'으로 삶의 리듬을



위대한 나
매튜 켈리 지음|이창식 옮김|세종서적 펴냄|1만원

당신의 출근길은 너무도 바쁘다. 일터는 전쟁터다.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까?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다. 나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한다. 그런데 그 때문에 불행해야 한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 우리 시대의 삶이 격고있는 '행복 패러독스'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팔고 있다. 울면서 겨자 먹기와 다름이 없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유'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자는 '뻔한 말'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있는 힘껏 자신의 별을 쫓으라고 종용한다. 열심과 욕심은 좋은 것이며, 특히 합리적인 욕심은 '삶에 리듬'을 주며 성공과 행복, 혹은 여유와 생산성 모두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9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10	불자생활백서	윤창화,고명석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무상의 철학 타니티다시 지음
권서용 옮김|산지니 펴냄|1만8000원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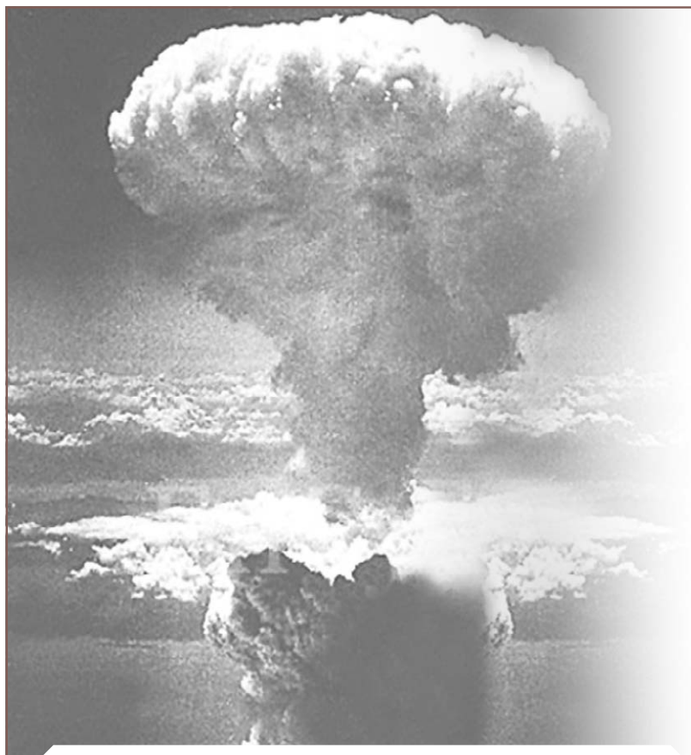
일본인 저자가 인도의 불교사상가 다르마끼르띠(600-660)의 인식론을 조명한 학술서다.

다르마끼르띠는 7세기 인도불교사상가이다. 원시불교, 설일체유부와 경량부, 중관불교와 유식불교를 근간으로 형성된 그의 사상은 난해하다. 특히 다르마끼르띠의 인식론은 '존재'에 입각한 인식론이 아니라 '연기(緣起)'나 '과정'에 입각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적 존재론인 '무상(無常)'의 개념을 다르마끼르띠의 '찰나멸(刹那滅)'로 설명한다. 흐르는 물처럼 변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도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점에서 다르마끼르띠의 찰나멸은 아견(我見)과 아상(我相)에서 벗어나 '순간적 존재성'을 인식하는 논리적 개념이다.

저자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찰나멸할 뿐"이라며 "니체의 선언이 서양의 실체중심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 다르마끼르띠가 '모든 것은 찰나멸'이라고 선언한 것은 모든 맹신적 신앙의 종교나 언어 · 문자 · 분별적 사고에 매인 철학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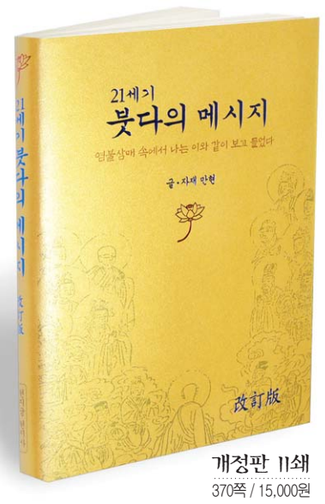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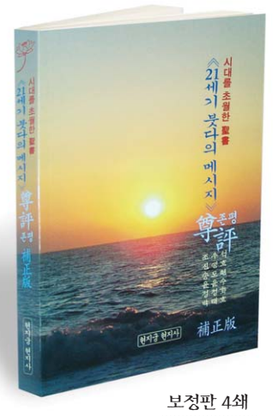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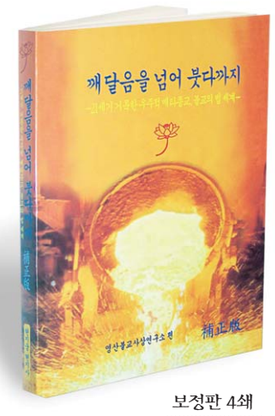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절찬리 판매중
13쇄 발간 2여년만에 들어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콘텐츠로써의 불교 담아내려 애쓸것"

다할미디어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문화콘텐츠와 불교의 만남
사회속에서 문화 전달하고자

사회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식될 때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불교 안에는 '스님'이라는 특화된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 의식 · 음악 · 미술 등이 그 나름대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로서의 불교도 매력적이지만 '전통'이라는 이름과 맞물려 조화를 이뤄내는 불교도 아름답다. 이런 불교의 가치를 제대로 발굴하고 책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도 의미 있을 터다. '다할미디어(대표 김영애, 이하 다할미디어)'는 바로 이런 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다. 3월 18일, 다할미디어를 찾아 서울 논현동으로 출발했다.

다할미디어는 불서전문출판사가 아니다. 그러나 김영애 대표가 이끌고 있는 '정신'에는 분명 불교적 요소가 들어 있다.

"한국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문화에서 불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정신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걸요. 그 불교문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너무 식상한데, 다할미디어가 밀고 있는 생각도 결국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다.

"절에 갈 때마다, 저는 이 좋은 콘텐츠들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불교적 · 한국적인 것을 무작정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고유 가치를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작업에 너무 무심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낸 책이 근간 <나의 행자시절>이다. 이 책은 저자 박원자씨가 월간 <해인>지에 12년간 연재한 것을 묶어 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결국 이 시대에 주목받는 것은 '사람이야기'인데 이 책에서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스님들의 인간사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스님들의 어린 시절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은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대중에 통한 결과인지 <나의 행자시절>은 현재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할미디어에서는 그 동안 55종의 책을 만들어 냈다. 2000년에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하지만 지난해 무려 12종의 도서를 출간했다. 이 중 6~7종이 불서거나 불자가 저자인 책이다. 이전에는 어떤 불서를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석굴> 등 미술을 다룬 책이 많다. 그 까닭은 김 대표 자신에게 있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특히 7~8세기 동양불교미술사를 전공한 것이다. 그 때 화엄사상을 공부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불교의 매력에 푹 빠졌단다.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을 했던 것도 그 즈음이었다고.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제게 불교 서적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불연(佛緣)이 적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 대표는 참 의욕적인 CEO다. 출판팀 홍영기 팀장도 "직원들이 대표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며 웃는다. 인생도 적극적이다. 뭐든 보고 듣기 위해 여행을 자주 떠난다. 그러면서 해외 각지에서 사 모은 이미지와 캐릭터 상품을 보고 연구한다. 한국적인 것은 무엇일까, 불교 이미지를 제대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것을 또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다.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결국 '출판에 충실하자'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역시 텍스트가 제대로 갖춰져야 이미지를 통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할미디어에서는 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도 충실히 기획하고 있다. 즉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해 제대로 된 한국 · 불교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다할미디어는 지금까지 본 출판사와는 분위기나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더 넓은 사회를 보면서 그 사회 속에서 우리문화의 가치를 오롯이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이뤄낸다면 우리문화, 불교문화의 부가가치가 확인되는 셈이다.

"종교적인 색채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접근시킬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입니다.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교문화는 대중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중화된 콘텐츠를 다시 세계화 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다할미디어 불서 BEST 1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년도
1	나의 행자시절1~3	박원자	2001
2	다섯빛깔 룽다와 흰색 까닥	최태만 글, 신장식 그림	2007
3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	윤범모	2004
4	절 안의 생활, 절 속의 문화재	김영애	2000
5	인도미술사	미야지 아키라 지음, 김향숙 · 고정은 역	2006
6	중국불교석굴	마쓰창 외 지음, 양은경 역	2006
7	산사에도 그리움이 있었네	이승수 편역	2002
8	잼있는 스님이야기	현진 스님	2001
9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안	2002
10	구수한 큰맛	고유섭 지음, 진홍섭 엮음	2005
11	화가 나혜석의 고백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윤범모	2007

적 펴냄|1만원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한산시(寒山詩)
한산 · 풍간 · 습득 지음, 김달진 옮김 | 문학동네 | 2001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김영래 연구교수

"대자유인의 탕탕한 삶 배워"



내가 삶에 대한 의문을 처음 갖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한번은 혼자서 북한산성에 갔었는데, 산등성이를 오르다가 좀 아래쪽 계곡에서 청춘남녀들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옆의 바위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저것이 행복이라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재물을 늘리고, 각자의 욕구와 취미를 추구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한 생을 마감하겠지' 하는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인가? 나는 이러한 삶에 만족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만족 못 한다'는 답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그렇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여정에서 나는 불교를 만났다. 불교야말로 내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필자는 닥치는 대로 불서를 읽었다. 그러다가 집어 든 한 권의 선시집(禪詩集)이 <한산시>였다. 시 한수 한수가 청량제처럼 내 마음에 다가왔다. 욕심과 무지의 그물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태평한, 대자유인의 당당(堂堂) 탕탕(蕩蕩)한 삶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수도 있구나!

만족한 삶을 위한 방법 찾던 중 만나
시 한수한수가 청량제처럼 마음 씻어

'한산'은 당나라시대에 천태(天台) 시풍현(始豊縣)에 있는 한산(寒山)에 홀로 거하면서 '습득'과 벗하면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살았다. 늘 국청사(國淸寺)에 와서 대중이 먹고 남은 밥을 얻어 가지고 '습득'과 함께 한산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푸른 시내에 샘물은 맑고/ 차가운 산에는 달빛이 밝다/ 가만히 앉에 정신이 절로 밝고/ 공(空)을 관(觀)함에 경(境)은 더욱 고요하다."

'풍간'은 국청사 스님인데 '한산', '습득'이 도인임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번은 '한산'과 '습득'이 길에서 '풍간'을 만났는데, "스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간다"고 하더란다. 이 말을 듣고 '한산'이 말하기를 "그러니 스님은 우리의 도반이 못되십니다!" 했다고 한다.

"우리 집에 굴이 하나 있으니/ 이 굴속에는 아무 것 없네/ 깨끗하고 비어 당당하며/ 밝기는 대낮보다 더 밝네/ 나물밥으로 약한 몸을 기르고/ 누더기 옷으로 환(幻)의 물질을 가리나니/ 일천 성인이 나타나건 말건/ 내게는 원래 천진(天眞) 부처 있어라."

그러나 인정이 다하지 않았으니 어찌 시름이 없겠는가.

"흰 구름 높은 산에 걸려있고/ 푸른 물은 맑은 못에 출렁인다/ 그 가운데 이따금씩 고기잡는 어부들/ 돛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나니/ 구슬픈 그 소리 차마 듣지 못하네/ 가뜩이나 시름에 겨운 내 마음/ 누가 일러 참새를 쫄이 없다 하는고/ 저 지붕 추녀를 뚫지 않는가."

끝으로 후세에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남긴 당부는 이렇다.

"내 알리노니 도를 닦는 이들이여/ 밖으로 구해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사람에게는 정령(精靈)한 한 물건이 있어/ 글자도 무늬도 없네/ 부를 때에는 분명히 응하건만/ 숨어 있다 해도 있는 곳 또한 없네/ 친절하고 알뜰히 잘 보호해/ 얼룩이나 헌대가 지지 않도록 하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⑦<끝>

오개번뇌 끊는 자리가 일체 선공덕 일으키는 곳

問曰 不善法廣 塵數無量 何故但棄五法 答曰 此五蓋中 卽具有三毒等分 四法爲根本 亦得攝八萬四千諸塵勞門 (一)貪欲蓋 卽貪毒 (二)瞋恚蓋 卽瞋毒 (三)睡眠及疑 此二法是癡毒 (四)悼悔 卽是等分攝 合爲四分煩惱 一中有二萬一千 四中合爲八萬四千 是故除此五蓋 卽是除一切不善之法 行者如是等種種因緣 棄於五蓋

여기에서는 문답을 가설하여 의심에 대해 풀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선하지 못한 법이 가이없이 광대하여 그 수가 무량무변한데 무엇 때문에 유독 탐 진 치 등 오개법(五蓋法)만을 버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겠다.

오개법 가운데는 탐 진 치 삼독법과 탐 진 치에서 평등하게 분류된 등분법(等分法)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 네 가지 번뇌법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탐심은 탐욕이며, 진심은 진에심이며, 치심은 우치함이다. 이 세 가지 삼독법은 각자 소속은 있으나 유일하게 등분이라는 이 하나의 종류는 탐 진 치 세 종류의 번뇌를 두루 포섭해서 거두어들인다.

일시일념 가운데 바로 탐 진 치를 갖추고 있거나, 탐심을 일으키다가 다시 진심을 일으키기도 하며, 진심을 일으키다가 다시 치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는 삼독이 대치하면서 일제히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등분번뇌라고 말한다.

비록 악한 법이 많기는 하지만 팔만사천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팔만사천 악한 법도 역시 탐 진 치 등분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번뇌가 팔만사천 번뇌를 포섭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팔만사천번뇌는 오염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것은 갖가지 사견번뇌가 우리의 자성청정심을 모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범부 중생들은 이러한 사견번뇌에 항상 수고롭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겁토록 생사윤회가 끝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번뇌를 논해보면 탐(貪) 진(瞋) 치(癡) 만(慢) 의(疑) 신견(身見) 변견(邊見) 계금취견(戒禁取見) 견취견(見取見) 등 십사(十使)번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십사번뇌 가운데서 하나의 번뇌가 으뜸이 되면 나머지 아홉 개 번뇌는 보조활동을 하게 된다. 즉 한 가지 번뇌가운데는 동시에 열 가지 번뇌를 각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십사번뇌는 마침내 일백 가지 번뇌를 이룬다.

이 일백번뇌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배대하면 삼세가 각각 일백번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삼백번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일백번뇌는 시간에 저촉되어 서로가 보조활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일백번뇌에 머물게 된다.

탐·진·치·등분법이 팔만 사천 번뇌 포섭
범부는 사견때문에 생사윤회 단절되지 않아

과거와 미래 이세의 이백 번뇌 가운데는 또 각각 하나의 번뇌를 으뜸으로 삼으면 나머지 아홉 번뇌가 그 한 번뇌를 보조하여 이백 번뇌가 공동으로 이천 번뇌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다 현재의 일백번뇌를 합하면 이천 일백 번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탐 진 치 등분의 네 종류 중생에게 각각 이천 일백 번뇌가 있어 이것이 다시 팔천사백 번뇌를 함께 이루게 된다. 또 사대(四大)와 육쇠(六衰)의 편에서 보면 지수화풍은 사대이고 색성향미촉법은 육쇠인데, 이것은 선법을 쇠잔하게 할 수 있다.

이같은 사대 육쇠의 십종번뇌에는 각각 팔천사백 번뇌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팔만사천진로번뇌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번뇌가 팔만사천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번뇌는 오개로 다 수습된다.

왜냐하면 팔만사천번뇌는 모두가 탐 진 치 삼독으로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독은 오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개는 삼독에 포섭된다.

첫 번째 탐욕개는 탐독에 포섭되고, 두 번째 진에개는 진독에 포섭되며, 세 번째 수면개와 의개는 치독에 포섭된다.

이같은 세 종류의 번뇌를 모두 '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은 마시기만 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탐 진 치 세 종류의 번뇌가 우리의 법신부모를 독처럼 죽이고 그 공덕마저 잃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번뇌를 삼독번뇌라고 한다.

네 번째로 도회(悼悔)는 등분에 포섭된다. 도회는 안과 밖이 있는데, 안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산란하고 밖으로 일어나면 몸과 입이 산란하여 이 산란심이 신구의 삼업에 두루 보편하게 일어나게 된다. 때문에 등분에 포섭된다.

이상의 번뇌를 분류하면 오개번뇌이고 종합하면 네 분야의 번뇌가 되는데, 한 가지 번뇌의 분야 가운데는 이만일천의 모든 진로문(塵勞門)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네 분야의 번뇌를 하나로 합하면 팔만사천번뇌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할 점은 오개번뇌를 제거해서 버릴 경우 이는 바로 일체의 모든 선하지 못한 법을 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수행인은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개법을 급히 버리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譬如負債得脫 重病得差 如饑餓之人得至豊國 如於惡賊中得自免濟 安穩無患 行者亦如是除此五蓋 其心安穩 淸涼快樂 如日月以五事覆翳煙·塵·雲·霧·羅候阿修羅手障 則不能明照 人心五蓋亦復如是

여기에선 비유로서 오개를 제거하면 이익을 얻게 되는 모습에 대해 밝혔다.

수행자가 오개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은 마치 부채를 걸머진 사람이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고, 오개를 버리면 걸머진 빚에서 바로 해탈하여 자유자재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또 오개번뇌가 있는 사람은 마치 중병을 앓는 사람과 흡사하고, 오개를 버리면 중병을 앓는 사람이 차도가 있어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오개를 버린 사람은 굶주린 사람이 풍족한 나라에 도달한 것과 같고, 악한 도적 가운데서 벗어난 것과 같다. 이와 같다면 그의 몸과 마음은 자재하고 쾌락하여 근심이 없을 것이다.

수행자가 오개를 제거하면 마음이 안온하고 시원하여 쾌락하다. 가령 오개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원하고 즐거운 일을 담론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개가 자신의 마음을 덮고 가린 것이 마치 다섯 가지 일이 해와 달을 가린 것과 같다는 점이다.

다섯 가지 일이란 연기 티끌 구름 안개 나후아수라의 손이다. 나후아수라왕의 손은 가장 크고 광대하여 해와 달 등 모든 광명도 가릴 수 있다고 한다. 그 나머지 연기 티끌 구름 안개도 역시 해와 달의 광명을 가릴 수 있어 해와 달이 대지를 환하게 비추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오개번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성 청정심을 가려 환하게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이상에서 비유로서 오개번뇌의 해로움을 나타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오온법(五蘊法)

(3)상온(想蘊)

'상온(想蘊)'은 수온을 통해서 좋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여하에 따라서 대상사물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지적작용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는 지정의(知情意) 가운데서 지(知)적인 방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온은 수온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대상의 경계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고, 그 모습에 따른 지적 관념을 일으켜서 그 관념에 걸맞는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온도 색온·수온과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번뇌를 일으키는 모습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처소를 순차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친 부처님의 훌륭한 방편입니다.

가령 푸른색을 띤 사물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식할 때, 이것이 푸른색이지 나머지 다른 하얀 색이나 붉은 색 등이 아니라고 한계개념을 규정지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른 푸른색 사물과 다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추리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대상을 식별 그에 걸맞는 명칭부여
끝없이 비교추리하는 지적분별활동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이 푸른색 바탕은 마찬가지이나 그 푸른색 사물이 옷에 있는 푸른색인가, 아니면 꽃에 있는 푸른색인가를 구별 짓고 그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는 우리의 지적작용인 것입니다.

이 같은 작용을 세분하여 '육상신(六想身)'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안근에 부딪친 색경을 의지해서 일으키는 지적작용으로부터 의근에 부딪친 법경에서 일어난 지적분별활동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중생들은 이러한 지적 관념에 따라서 그 대상은 무상(無常)인가 유상(有常)인가, 혹은 크고 작은 것의 크기가 무량(無量)인가 유량(有量)인가 하는 등의 끝없이 비교 추리하는 지적 사고활동이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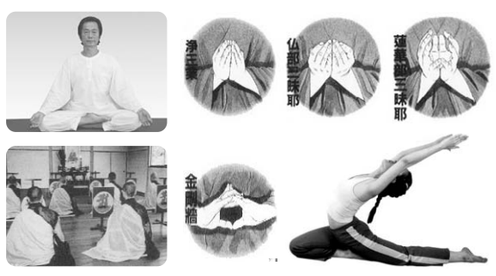
이 같은 지적활동은 다시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 십일종상온(十一種想蘊)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다한 지적활동이 하나의 무더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수온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수행요가의 상징 요가삼밀과정(2년)
요가삼밀학과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중심의 요가, 보다 나은 자아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가를 교육하면서 더 나아가 신,구,의 삼밀수행 차제를 나타내는 진언, 수인, 관법의 밀교의 수행을 통한 불교요가인을 양성하기위한 과정입니다.

2. 요가삼밀학과 (2년과정)



3. 개강일시 : 4월 6일(일) 오후 2시

기간 · 요일	과 정	지도교수
2년과정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요가과정 요가이론, 요가수트라,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요가자기진단법, 요가운동처방법	요가:안지용교수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02)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 종 안 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야후) 연합불교방송

VIP 여 행 사

불교성지 순례상품

[불교성지순례]
▶문수도량 : 오대산 순례 + 북경(5박 6일)
₩ 9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 상해 / 항주 / 소주(5박 6일)
₩ 890,000

[불교성지순례]
▶지장도량 :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순례 + 황산(7박 8일)
₩ 1,090,000

[불교성지순례]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순례(5박 6일)
₩ 1,500,000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VIP여행사 |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 Fax 055)743-5003
E-마트 : ☎ 055)741-9999 / Fax 055)742-4444

대한민국 제2회 맥(脈)수련회

1.21세기 인류의 문제와 진리의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2.한국의 鮮脈사상을 연구해 국내와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분. (한국선,진역명리,육합풍수지리,전통한방원론,천부경,도덕경...)
3.한국전통민방요법을 연구해 향토명의가 되고자 하는 분.
4.유전정보에 의한 유전자(DNA) 컨트롤에 의하여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수 있는 원리강론
5.세계에 맥사상을 보급해 자신과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맥수련 안내
일 시 : 2008년 3월 29일(토) ~ 3월 30일(일)
1박 2일 (매월 마지막 토 · 일요일)
장 소 : 충남 공주시 상신리 "자승정" 수련장
초청강사 : 白石 박 경진 선사님
(참선지도 25년 경력, 관련서적 40여권 집필)
주 제 : 세계적인 鮮脈 지도자가 되는 길
주 최 : 日 脈 太 學 敎
참 가 비 : 10만원 (입학금 10만원)
교육문의 : 043)283-2278 / H.P 010-9701-0675
장소문의 : 041)881-9575

日脈太學敎 는
대한민국의 선맥을 보급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지도자 100명을 양성하여 국내와 외국에 파견할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선지식을 찾아서

"마음 비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지요"





혜광 스님은

1955년 봉은사에서 충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3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65년 해인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봉은사 동화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방에서 8안거 성만. 제 11대 중앙 종회의원 역임. 경주 불국사 석굴암, 완주 화엄사, 법주사 주지 역임. 현재는 수원 팔달사 주지.

혜광

혜광 스님(팔달사 주지)

수원에서도 도심에 위치한 팔달사에서 혜광 스님을 만났다. 산골에서 금방 내려온 것처럼 산중의 풋풋함과 수더분함이 묻어나왔다. 50여년 가까이 산골에만 살다가 은사스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온지 햇수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저잣거리에 적응이 안 되어 참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산골에서야 심호흡 한 번에 솔향기 풀 향기까지도 머금을 수 있는데, 저잣거리의 공기는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나의 이런 짐작과는 어긋나게 혜광 스님은 "고요함 가운데서 고요함을 유지하기는 쉽지만, 소란스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면서 조용한 곳만을 찾아 정진하는 것도 병통일 수 있음을 이곳에서 깨달았단다.

"산중 사찰이 수행중심도량이라면 도심사찰은 포교 중심의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포교라는 것이 사찰의 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지요."

부처님께서 포교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한 길로 둘이 가지 말고 따로 가서 교법을 넓게 펼 칠 것'을 당부하셨듯이, 혜광 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양쪽 날개와 같은 것임을 저잣거리에 내려와서 온 몸으로 체득하였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혜광 스님은 깊은 산골에서 홀로 토굴생활을 하였다.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씨앗 뿌려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가부좌 틀고 앉으니 세상 편하고 좋더란다. 봄이 되면 산매화가 지천으로 피어서 무릉도원에라도 온 듯한데 그 아름다운 것을 혼자 본다는 것이 참으로 아깝더라는 말씀을 하였다. 산매화, 조팝나무를 비롯하여 온갖 들꽃이 피고 지는 그 산골이 지금도 그립기만 하단다.

포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자신의 복을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그래서인지 혜광 스님이 팔달사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도량을 단장하는 일이었다. 도심에서 갈 곳 없어 방황하다 다리라도 쉬어 갈 겸해서 찾아들어왔을 때 살갑게 마음 붙일 수 있도록 도량을 가꾸었다. 산중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황량하고 외로움 타는 도회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짚고 있다. 이것 또한 산중에서 오래도록 참선공부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혜광 스님은 13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경전공부보다도 근검절약을 더 먼저 배워 온 터라, 음식물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질을 흔전만전 쓰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혜광 스님은 어릴 때 어른 스님들이 들려 준 이야기를 평생 수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어떤 수행자 두 사람이 스승을 찾아 길을 나섰다. 길을 걷다 보니 도랑을 따라 상추 한 잎이 둥둥 떠내려 오고 있었다. 명성이 자자한 스승이 머무는 절에서 떠내려오는 상추잎이 분명하기에, 두 수행자는 잠시 실망스러웠다. 한 수행자는 "삼보 정재를 저렇게 허투루 다루는 사람에게서 무얼 배우겠어요. 우리 다른 스승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 하였다. 그때 바지를 둥둥 걷은 사미승이 숨 가쁘게 달려오더니 도랑에서 상추 한 잎을 얼른 건져올렸다. 그제서야 두 수행자는 안심을 하고서 스승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는 이야기다. 혜광 스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전달되어서인지 팔달사의 신도들 역시 김치 국물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어른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는 입산하여 행자생활 몇 년 동안 일생 중노릇 할 기틀을 닦는 것인데, 그때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것이 일생동안 수행자로써 터전이 닦아지고 그때 지은 복력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 고 했어요. 복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날 누리고 있는 복을 다음 세대까지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껴 쓸 줄 알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그 복력을 평생토록 누리며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후덕했던 사람들의 인심이 자꾸 식어가고 있으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자손들이 얼마나 누리게 될지 걱정입니다. 참으로 잘 살 때 조심하고 있을 때 더욱 잘해야 오래오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시하고 복 짓는 일을 소홀이 해서는 안 되지요."

혜광스님은 70년대에 경주 석굴암의 주지 소임을 맡았다. 그때 석굴암의 입장료가 300원 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먼 시절의 이야기로만 들린다. 어느 날 군부에서 감사를 나왔다. 평소에도 장부정리를 착실히 해 놓은 터라 혜광 스님은 자신있게 수십 권의 장부들을 그 앞에 내 놓았다. 그런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기에 "더 이상 감사 받지 않겠다"면서 장부를 빼앗아 스님 방으로 와 버렸다. 참으로 어수선한 시절이라 군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삼천초목도 벌벌 떨 때가 아닌가? 그런데 체구도 작은 스님이 그리 당차게 나가니 그 일행 중 한사람이 묻더란다.

"스님은 무슨 큰 빽이라도 있소?"

"나 큰 빽있지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재차 묻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처님 빽있지요."하니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더란다. 다음과 같은 혜광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처님을 최고의 '빽그라운드'로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장보살은 모든 중생의 가난과 고통을 제도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이것은 모든 중생의 가난과 고통은 이미 부처님에 의하여 구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에게는 여전히 가난과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진실하게 절실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여! 여기 나에게 모든 중생들이 받아가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행복이 있다. 어려워하지 말고 받아가라' 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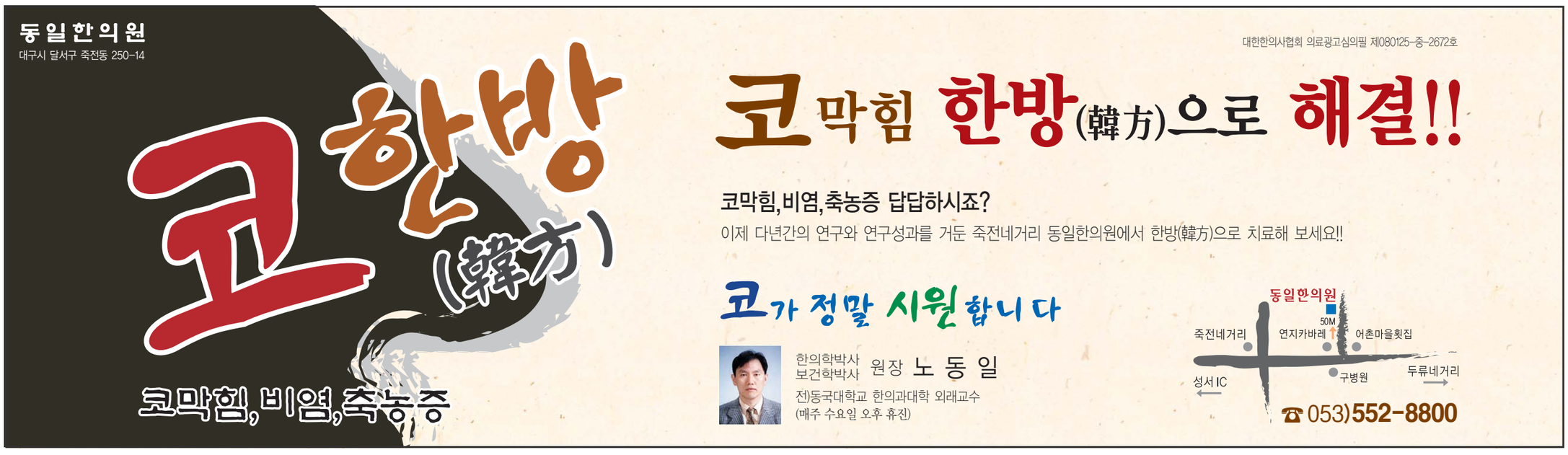
중생들은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올 때는 빈 그릇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미 욕심을 그득 그득 채우고서 오니 주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득 찬 그릇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비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라도 중생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 빽그라운드인가. 혹자는 부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주고받는 것은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다.

혜광 스님은 요즘 들어서 출가한지 반세기가 넘는 55년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린 나이에 입산하여 부처님의 은덕을 입고 시주 은혜를 많이 지고 살면서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혼자 자문자답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단다.

어찌 출가한 스님들만이 밥값을 걱정하랴.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데 그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싱그러운 봄, '희망' 한그루 심자



수종 선택·나무심기 요령

산과 들의 나무에는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는 묘목을 식재하기 좋은 때다.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때에 식목일을 앞두고 가정과 사찰에서 심고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알아봤다. 나무를 심어 주변경관도 바꾸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면 일거양득 아닐까?

어떤 나무가 좋을까?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 김영 대표는 가정과 사찰 식재용으로 "관상용으로 뛰어나고 식용으로 열매까지 얻을 수 있는 유실수, 수명도 오래가는 나무가 좋다"고 권한다. 김영 조합장이 권하는 나무들을 살펴보자.

▧관상용으로 심기 좋은 나무=▲대표적 관상수인 '불두화'는 꽃 모양이 부처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님오신날인 4월 초파일을 전후해 꽃이 만개한다. ▲백일홍은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피어 있어 관상용으로 좋다. ▲'산목련'으로도 불리는 '함박꽃나무'도 나무 수명이 길고 보기가 좋아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산수유나무' 열매는 차나 술로 활용되고 강음(强陰), 신정(腎精)과 신기(腎氣) 보강, 수렴 등의 효능이 있다. 두통 · 이명(귀울음) · 해수병 등에 약재로 쓰였다. 또 야뇨증 등의 민간요법에도 사용됐다. ▲'능소화'도 사찰에서 관상수로 사용하기 좋다.

어린 묘목엔 화학비료 금물

나무 심기전 뿌리에 물 듬뿍

▧유실수 • 약용수로도 좋은 나무= ▲'모과나무'는 관상수 · 과수 또는 분재용으로 심는다. 열매는 차로 활용한다. ▲높은 산지에서 자라는 '마가목' 열매와 나무껍질은 약용으로 이용된다. ▲숲에서 자라기 쉬운 '산딸나무'도 정원수로 사용기에 좋다, 열매는 식용한다. '박태기나무' '느릅나무'의 껍질은 유피(楡皮)라 불리는 약재로 쓴다. '박태기나무'는 통경 · 중풍 · 대하증에 치료에 쓰이고, '느릅나무'는 치습(治濕) · 이뇨 등에 사용한다.

나무 어떻게 심을까?

나무는 심으려는 것이 어린 묘목인지, 나무인지에 따라 심는 방법이 다르다. 그린농원 박애숙(46)씨는 "나무를 심을 때 무조건 비료를 줘야하고, 나무면 모두 똑같은 깊이로 밑둥이 덮일 만큼 심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히 어린 묘목은 심을 때 절대 화학 비료나 거름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어린 묘목의 경우 뿌리가 약해 비료 등의 독성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묘목이 접목한 것인지 아닌지의 구분도 중요하다. 박씨는 "접목을 한 나무는 접목부위까지 심어 주지만, 접목하지 않은 나무는 빠른 수분과 영양 공급을 통해 일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깊이 심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무 심기 전 뿌리에 물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다. 뿌리에 물을 주고 나무를 심으면 쉽게 뿌리가 퍼지기도 하지만 한동안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봄 가뭄에 식재할 곳의 땅이 메말랐을 때는 심기 전후에 관계 없이 특히 땅이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듬뿍 준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서울의 경우 시내에서 대표적인 종로5가 종묘상들을 비롯해 양재동 꽃시장, 고양,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 주변 농원에서 묘목을 구할 수 있다. 전국 단위 대규모 도 · 소매 공급처로는 200여 묘목 재배농가와 43개 묘목 전문 농원이 있는 충북 보은군 이원면이 유명하다.

마침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원묘목유통센타에서 '제10회 보은이원묘목축제'가 열려 다양한 묘목을 실속있게 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무료로 묘목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웰빙 열풍과 함께 유명해진 매실나무 1년생 묘목을 2000~5000원에, 감나무 1년생은 2000~3000원, 단풍나무는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제 시작일인 3월 28일에는 물고기 잡기 대회 등 체험행사와 마당극, 옥천묘목가요제, 태권무 시범, 연예인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려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곤충체험전, 지점토 공예 시연, 야간 빛축제 등이 준비돼 가족의 봄나들이에도 손색이 없다. 직접 이원축제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에 연락해도 된다. (043)732-5560

글=조동섭·손효선 기자, 사진= 손효선 기자

나무 심기 Tip! Tip! Tip

1. 나무 심을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의 크기는 심을 나무뿌리의 1.5배가 적당하다.
2. 나무를 구덩이에 넣고 뿌리를 잘편다. 만약 뿌리에 틀이 있다면 제거하고 심는다.
3. 구덩이에 흙을 채운다. 접목한 묘목은 접목 부분까지, 보통은 뿌리 위까지만 흙을 덮는다.
4. 땅위에 흙이 북돋게끔 덮고 살짝 밟는다. 큰 나무는 버팀목을 세워 나무를 고정해 준다.



health 건강 칼럼 column

24. 어린이 시력검사

흔히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시력검사가 얼마나 정확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린이 시력 발달에 치명적인 약시의 조기 발견은 약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유치원 입학 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 이 시기에 가정에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생 직후 신생아 시력은 눈앞의 손가락 정도 크기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생후 5~6주 정도가 되면 사물을 지속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좌우 모든 방향으로 주시하는 능력은 생후 100일 정도가 지나야 갖춰진다. 따라서 생후 1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신생아는 엄마의 눈이나 모빌을 보는 듯 하다가도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더욱이 두 눈이 동시에 한 사물을 보는 양안시 기능은 생후 3개월 이후에나 형성이 되므로 그 전에는 눈이 사시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생아의 이런 모습은 모두 정상적인 반응으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양안시가 형성된 생후 100일 정도 지난 아이가 사물을 주시하지 못하거나 눈이 심한 사시처럼 보인다면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9~10세 때 성인 시력 완성

약시는 10세 전에 치료해야

심한 선천 백내장이나 다른 눈의 구조적 이상으로 시자극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 생후 7개월 이전에 이를 해결 않으면 사물을 지속적으로 보는 주시능력이 평생 형성되지 않는다. 한눈이 실명 상태라도 다른 한눈으로 주시가 가능하므로 검사할 때는 한 눈을 가린 상태에서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한다. 즉 한눈을 교대로 가려서 한눈으로만 사물을 보게 한다. 이때 유독 싫어하는 쪽이 있다면 그 눈은 시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반응을 '주시선호'라고 하는데 유아기 때 중요한 시력 검사 방법이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성인의 시력이 완성되는 것은 9~10세 정도이다. 한 눈만 근시, 원시, 난시가 심한 경우, 또는 사시가 있는 경우 유아기 때 주시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지속적인 시력 발달이 안돼 약시가 될 수도 있다.

약시는 안경으로 최대 교정해도 시력이 잘 안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만으로 10세 이후에는 적절한 치료를 해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약시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는 10세 미만이며, 어린 나이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아이가 조금 커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 눈씩 가리고 사물이 보이는지 직접 비교해도 된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차이가 심하면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단순히 안경 교정할 눈인지, 약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유아기 검사가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시이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미간이 다소 넓은데 유아기 때는 특히 콧대가 낮아 미간이 더 넓어 보인다. 이때에는 사시가 없는 눈이라도 눈이 마치 내사시처럼 몰려 보이지만 대부분은 정상이다. 특히 돌 이전에 생기는 내사시는 매우 심한 사시각을 보여 누가 봐도 확연한 내사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약간 몰려 보이는 것은 대개 미간이 넓어 사시처럼 보이는 것으로 정상이다. 사시를 확인하려면 눈앞에 50cm 거리에서 불빛을 보게 한 후 각막에 반사되어 비치는 불빛이 양 눈에 동일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3~4세 이후에는 간헐사시가 나타날 수 있다. 사물을 집중해서 볼 때 눈이 갑자기 몰리던가, 아이가 피곤해 보일 때 간혹 바깥으로 눈이 돌아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안과를 찾는다.

뚜렷한 이상이 없더라도 4세 이후에는 안과를 찾아 전반적인 눈의 발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눈 안과 원장)

당뇨,혈압등 성인병에 좋은 첫서리 맞은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뽕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뽕잎차는 야생 뽕나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생 뽕나무는 비료나 퇴비를 멀리하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깊고 그윽합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산삼 뿌리와도 같은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차입니다.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음용하면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기침, 가래를 내리고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는 며칠만 마셔도 변화가 나타나며 혈압을 떨어뜨리며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한번만 마셔도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오줌이 많아지고, 자주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의 고소한 뒷맛은 오래도록 기분을 상큼하게 합니다. 우선 맛이 좋고, 나중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맛과 향이 뛰어난 차입니다. 몸에 좋은 차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선원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주지스님, 일반 신도님들께서 몸이 냉하거나 당뇨,체질순환이 잘 안되시는 경우 장복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오장 육부가 좋아지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건강 인사를 하시는데도 정성 가득한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드려 만든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초심차(初心茶)
뽕잎을 펴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번, 이것이 구증구포 바로 금강선원의 초심차 입니다.
선원주변에 맑은 공기와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난 봉나무로 부터 채취된 뽕잎을 재료로 하고 있어 무기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뽕잎을 씻고 찌는 물은 청정한 맥반석 지하수를 다시 한번 자화육각수로 정화하여 사용하므로 차를 우려냈을 때 더 깊은 맛과 깨끗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 발심차(發心茶) 첫 서리맞은 뽕잎차
11월초에 첫 서리맞은 뽕잎을 채취하여 발심차(첫서리 맞은 뽕잎차)가 나오기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싱싱한 봉나무잎을 따서 곱게 썰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을 떨어뜨려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www.ggzen.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축
고무신코 만 행 화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부대중 선 물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특 무 명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밴드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홈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 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오늘의 禪語

⑫ 불성과 영혼

'불성'은 깨달을 수 있는 자질

'불성(佛性)'이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속성 혹은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씨앗이나 자질로서, 누구나 수행하여 그 바탕을 발굴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래(부처님, 깨달은 분)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에서 여래장(如來藏)이라고도 합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빈부귀천이나 지능지수에 관계없이 태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바탕과 기본권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불성사상'이라고 합니다. 불성사상은 깨달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로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3) 중도의 이치가 불성이다(中道佛性說).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대승열반경>, <대정장> 권12, p.523, b).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아도 성불한 것이 되고, 모든 존재는 상의(相依)관계에 의해서만 생성 소멸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도 성불한 것이 되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도 성불한 것이 됩니다. 최초로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고 설한 경전이 <대승열반경>이므로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에 대한 정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에서는 앞의 세 가지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본래청정심(本來淸淨心)'이 불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음이 곧 부처다(卽心是佛, 心卽是佛, 是心是佛)'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心外無佛)' 또는 '마음을 찾으라' 등은 모두 '마음(心)이 곧 불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본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대승열반경에선 '꼰·연기·중도'로 불성의 정의 설명
힌두교 아트만·영혼과 상이한 개념…혼동 주의해야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경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대승불교경전인 <대승열반경>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처음으로 '불신(佛身)은 입멸하지 않는다(佛身不滅=法身常住)'는 설과 함께 '미물을 포함한 일체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하는 불성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전에 의하여 비로소 중생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승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 공(空)의 이치가 불성이다(空佛性說). 일체개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대승열반경>, <대정장> 권12, p.523, b).

(2) 연기(緣起)의 이치가 불성이다(緣起佛性說). 12연기의 이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대승열반경>, <대정장> 권12, p.524, a).

이상의 여러 가지 경전과 문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성이란 다름 아닌 '각성(覺性)'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속성' '가능성' '자질' 또는 깨달음을 제공하는 '인자(因子)'나 '바탕'입니다. 힌두교의 아트만이나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상당한 불교인들이 불성을 아트만(영혼)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핵심사상이 '무아' '공'이고, 또 <반야심경>의 '일체개공(일체는 공하여 실체가 없다)'을 신념처럼 외치면서 왜 불성을 영혼과 동일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의 정체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오류는 아마 불성에 대하여 설명할 적에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인자(因子)' 또는 '바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으라" "무엇이 보고 듣고 하는 지 그 놈을 찾으라" 또는 "불성은 모양도 색깔도 없으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트만과 불성을 혼동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열반경>엔 그 어디에도 불성을 영혼과 동일시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만일 불성이 곧 아트만(영혼)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외쳐대는 깨달음이란 결론적으로 영혼을 깨닫자는 것인데, 영혼의 어떤 점을 깨닫자는 것입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영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하루 10여 시간 이상씩 참선하여 그런 것을 깨닫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한 열반의 경지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영생불사(永生不死)하거나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간답니까(휴거)? 신통술 같은 것을 얻어 미래사가 훤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불교의 깨달음과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성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비롯한 달마·혜능·원효 등 역사상 위대한 고승들은 모두 다 영혼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수행했고, 영혼의 세계를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 불성이 바로 영혼이라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무속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굳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필요 없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묻는 것이 깨달음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불성과 영혼을 동일시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교리·사상·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두 지아비의 '극락왕생' 이끌어

⑫ 광덕의 아내

통일신라 문무왕(661~681) 때,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란 숨어 사는 두 사문(沙門)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 먼저 극락에 가게 될 때에는 서로 알리자고 약속하였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 숨어서 신을 삼는 것을 생업으로 처자를 데리고 살았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느 날, 해가 고요히 저물었을 때 창 밖에서 "나는 이미 서방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빨리 나를 따라오게" 하는 광덕의 소리가 들렸다.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 보니 구름 밖에서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광명이 땅에 뻗쳐 있었다.

다음날 엄장이 집에 찾아가 보니 과연 광덕이 죽어 있었다. 이에, 광덕의 아내와 함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엄장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하오?" 하였다. 그 아내가 허락하여 마침내 함께 살게 되었다.

'삼국유사'에 관세음보살 응신으로 기록
결혼생활 중에도 음욕 극복한 수행 경지

밤에 잠자리에 들어 엄장이 정(情)을 통하려 하자 그녀가 말하기를, "그대가 서방 정토에 가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엄장이 놀라며, "광덕도 이미 동거했거늘 난들 어찌 안 되겠소?" 하고 물었다.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광덕이 나와 십여 년을 동거하였으되 아직 단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거늘, 어찌 더러운 짓을 하리오? 다만, 밤마다 단정히 앉아 일념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십육관(十六觀 : 왕생극락하기 위해 닦는 16가지 관법)을 지어서, 이미 진리에 달관하여 밝은 달이 창에 비치면 그 빛에 정좌하였소. 그 정성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서방정토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달리 어디로 가리오. 무릇 천리를 가는 자는 그 첫걸음으로써 규정할 수 있으니, 지금 그대의 신앙은 (서방이 아닌) 동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엄장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물러나와 곧 원효 대사에게로 가서 가르침을 간절히 구하자, 원효 대사는 정관법(淨觀法: 번뇌·망상을 맑히는 관법)으로 지도하였다. 엄장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뉘우쳐 자책하며 일념으로 관을 닦아, 마침내 극락정토로 왕생했다.

<삼국유사> '광덕과 엄장편'에서 일연 스님은 광덕의 아내가 분황사의 종이며, 관세음보살 19응신(應身)의 한 분이라고 기록했다. 노비가 출가수행자를, 게다가 두 지아비를 교화하고 있으니 관세음보살의 응신으로 보고도 남음이 있다. 그녀는 비록 형식적인 결혼생활을 했지만, 한 방에서도 정절을 지킬 정도로 음욕을 조복(調伏)한 수행자이기에 그런 찬탄을 받을 만하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 할 때 그녀는 삼독(三毒)의 불을 끈 수행의 경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행의 목적은 관법·염불·화두 등의 방편을 통해 탐진치(貪瞋癡) 삼독심을 항복받는 데 있다. 온갖 번뇌·망상과 분별심을 결단코 항복받을 수 있다면 37가지 수행법이 구지 필요가 없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복기심(降伏其心)', 즉 그 마음을 항복 받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법화경>의 '절복기심(折伏其心: 그 마음을 절복받음)', <화엄경>의 '조복기심(調伏其心: 그 마음을 조복받음)'도 같은 의미다. 부처님의 구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즉 나무 아래서 마군을 항복 받았다는 것은 곧 그 마음의 모든 번뇌를 항복 받은 것을 뜻한다.

가장 강력한 탐욕인 음욕을 항복받지 못한 채 염불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욕망을 항복받지 못하고서 무애행과 '번뇌 즉 보리'를 말한다면 그는 거짓 수행자일 뿐이다. 그 어떤 수행을 하든 물질과 정신작용으로 이뤄진 오온(五蘊)이 공(空)함을 요달해, 번뇌·망상의 속박으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6바라밀과 8정도를 닦아 마침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4상을 내려놓고 대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신행게시판

● **호압사 불교교양강좌 개강=**서울 호압사(주지 지정)가 4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주간 수준 높은 불교교양강좌를 개설한다.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하는 이번 교양강좌는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 강의와 더불어 불교문학·음악에 대한 특강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김경현 선재한의원 원장의 건강 특강과 찬란한 전통불교문화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문화재 탐방도 두 차례 마련했다. 경전 강의는 차차석 동국대 교수와 석길암 금강대 국제불교연구소 연구원이 나서며,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이미향 동국대 강사, 유근자 동국대 강사 등이 특강을 한다. (02)803-4779

● **호두마을 위빠사나 명상센터 4월 수행=**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명상센터가 4월 수행 일정을 발표했다. 4월은 주말마다 초보자 주말수행을 마련한다. 능해 스님을 지도법사로 2박3일간 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수행은 4~6일, 11~13일, 18~20일, 25~27일 열린다. 이에 앞서 3월 28~30일 사사나 스님을 지도법사로 주말수행이 이뤄진다. (041)567-2841

● **보리수선원 한 달 집중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이 매일 4월 1~30일 111차 한 달 집중수행을 한다. 오후 4시 30분 시작해 오전 10시에 끝난다. 4월 13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제30차 자애관 수행이 이어진다. 자애관 수행은 자애의 마음을 계발해 성냄이 일어나지 않으며, 성급한 성격이 여유로운 상태가 되는 수행법이다. (02)517-2841

● **법왕정사 삼천배 철야정진=**서울 법왕정사가 분당하얀마음선원에서 제100회 삼천배 철야정진을 한다. 3월 29일 저녁 9시부터 30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되는 삼천배 철야정진에 동참하려면 수련법복, 발로해, 큰 목욕수건, 작은 수건, 면양말, 방수포, 면티, 흰장갑,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저녁 7시까지 도착하면 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02)456-0035

● **금강선원 참선마을 내나무심기 템플스테이=**합천 금강선원 참선마을에서는 내 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내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마음을 맑히는 합천댐을 둘러보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드라마 '서울1945' 촬영지도 탐방한다. 참가비는 5만원. (055)931-959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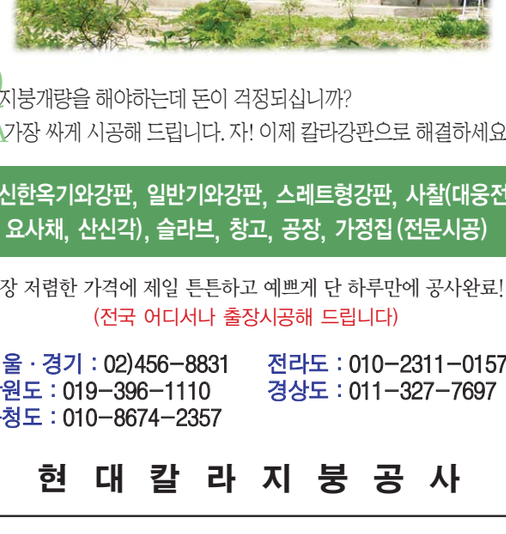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냥: 150*125
특허 브라켓
※ 황토흙벽돌, 내화벽돌, 판넬등 시공가능
◆물로청소하는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 (연결 이동 사용할수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함)
지구산업
www.bangaro.com / 조립식평상
TEL (063)323-3010~1 / FAX (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 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2311-0157
경상도 : 011-327-7697
현대칼라지붕공사

‘예송논쟁’에 휘말려 살다 간 불우한 여인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㉞

인조 계비 장렬왕후 – 휘릉





❶ 동구릉 능역 안 가장 호젓한 곳에 자리잡은 휘릉. ❷ 휘릉의 문인석. 왼쪽 눈은 평평하고 오른쪽 눈은 돌출되어 있다. 세태를 비판하는 석공의 의지가 반영된 듯. ❸ 단종의 국장을 재현한 모습.

왕보다 젊은 대비로 남·서인간의 복상 다툼 불러와
신하들 뜻에 따라 상복 입고 벗으며 쓸쓸한 삶 마감

최고의 법문은 죽음이다. 죽음 앞에선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다. 왕후장상이든 이름 없는 무지렁이든 죽음의 비중은 같다. 망자를 위한 마지막 예의가 죽음의 의식이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장엄하고 숙연한 의식이 장례다.

장렬왕후는 장례의 격식을 두고 이리저리 휘둘린 여인이다. 자신의 죽음이 아닌 타인의 죽음에 정신없이 출연했다. 한 줌 재가 될 육신, 썩어 흙으로 돌아갈 몸을 두고 창처럼 팔을 치켜세우며 입에 거품을 무는 싸움의 중심에 그녀가 출연했다. 이른바 예송논쟁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물론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싸움이었다.

조선 건국 후 지식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교를 비판하며,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가꿔갔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불교의 풍속을 제거하고, 이를 유교적인 것으로 대체해 나갔다.

17세기 조선에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벌어진 예송논쟁(禮訟論爭)은 학문이 정치와 결합하면서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었다. 유학에 따르면 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었고, 또한 모든 공부는 예의 실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정계에서 벌어진 예송논쟁은 곧 누가 통치를 담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었다.

1차, 2차에 걸친 예송논쟁의 광장에 장렬왕후가 끌려나왔다. 그녀는 인조의 계비다. 원비 인열왕후가 4남 용평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자 1638년, 15세인 장렬왕후가 44세였던 인조와 가례를 올린다.

장렬왕후는 자녀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별 영향력 없이 조용히 지냈던 왕비였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할 때 장렬왕후는 26세에 불과했고 세자(효종)보다 5살이나 적었다. 효종은 1651년 계모 장렬왕후에게 자의대비라는 존호를 올려 왕보다 젊은 나이에 대비가 되었다. 자의대비가 예송논쟁에 휘말린 것은, 젊은 나이로 대비가 되어 왕실의 어른이 됐고 효종보다 오래 살아 효종의 국상이 나자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을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국상을 당하자 복상문제로 윤선도 등 남인과 송시열의 서인이 다툼을 벌인다. 송시열은 성리학을 근거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는 자식이 장자인 경우는 3년상을, 차자일 경우에는 1년상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효종이 차자이므로 자의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인은 차자(次子)일지라도 왕위에 오르면 장자가 될 수 있다는 허목의 차장자설을 내세웠다. 효종이 차자지만 왕통을 이었기에 3년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1차 예송논쟁이다.

이런 경우 남인의 주장이 왕조국가에서는 맞지만, 성리학을 내세운 송시열의 주장을 내치기엔 갓 즉위했던 19세의 현종은 힘이 없었고, 선왕 효종 대부터 송시열은 이미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서인의 이런 주장이 가능했다. 조선 전기 왕권이 서슬 퍼렇던 시절이라면 감히 신하가 이런 망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1차 예송논쟁은 집권세력인 서인의 승리로 돌아갔다. 현종15년(1674)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또 다시 자의대비 복상을 두고 2차 예송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며느리의 상복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선왕후를 차자부(次子婦)로 대접해 9개월 복상을 주장하고 남인은 왕비로 대우해 1년 복상을 주장한다.

이때 현종은 선왕을 감히 차자로 몰고 갔던 1차 예송논쟁에 대해 불만이었고, 1차 예송논쟁에서 1년상을 주장했던 서인이 남인의 주장을 듣고 9개월로 고쳐서 올렸던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현종은 이를 추궁했고 서인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현종은 국조오례의를 따른 것인 줄 알았는데 중국의 옛날 법을 썼느냐고 분노했다. 1차 예송논쟁의 1년 복상을 3년상으로 고치고 인선왕후 복상은 1년상으로 하라고 명한다.

“신하가 되어 감히 임금에게 야박하게 굴면서 누구에게 두텁게 구는가?”

‘누구에게 두텁게 군다’는 현종의 말은 효종이 차자라면서 1년 복상을 주장했던 송시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2차 예송논쟁은 서인의 참패였다. 서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등용된다.

6월 4일 장례를 마친 인선왕후를 둘러싼 예송논쟁의 열기가 식기도 전인 8월 18일 현종이 갑자기 승하한다. 왕조실록은 과로로 인한 번열과 설사가 심해 죽었다고 기록했다. 현종대의 실록은 남인이 쓴 <현종실록>과 서인이 집권하면서 다시 쓴 <현종개수실록>이 나올 정도로 왕조실록도 어지러운 시대였다.

조선시대 내내 전통적인 관습인 양 유교를 내세우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유교의 훼갑으로 꽁꽁 무장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약해진 왕권과 강해진 신권 정치가 유교를 내세우는 원인이었다.

왕권이 강했던 조선 전기는 왕이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지만, 사림들이 주도권을 잡은 후기는 신권이 유학을 정치무기로 삼은 예가 바로 예송논쟁이다. 송시열이 왕보다 더 숭상했던 것은 주자였고, 송시열이 영수였던 노론의 세력이 조선후기를 장악하고 성리학을 무기로 집권했다. 송시열을 봉향하는 서원이 50여 개나 됐던 것을 봐도 단순히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원은 정치세력의 발판이자 정치후보생 양성소였고 노론은 조선 후기 내내 230여 년 동안 기득권을 놓치지 않았다.

복상 소동의 원인이 됐던 자의대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의대비는 인조부터 효종, 현종, 숙종 대까지 살다가 숙종14년에 창경궁 별당에서 일생을 마친다. 실록이란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비의 기록은 미미하다.

몇 차례의 예송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정치사건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자의대비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꽃다운 나이에 궁에 들어와 왕비가 되지만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구중궁궐을 벗어나지 못하고 늙어죽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왕실 여인의 모습이다.

자의대비는 왕실의 어른이었으나, 그녀의 삶은 신하들의 주장에 의해 상복을 1년 입으라면 1년 입고, 9개월 입으라면 입어야 하는 조선 여인의 숙명이었다. 예송논쟁에 휘말렸던 자의대비는 자식 하나 없이 65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태조 이성계가 묻힌 건원릉 바로 왼쪽 언덕에 생시나 지금이나 말없이 누워있다. 비록 생전에는 논객들의 삿대질에 이리저리 휘둘렸지만 죽어서는 가장 든든한 태조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휘릉(徽陵)은 조선 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 조씨의 능이다. 건원릉 능역 안에 있다. 장렬왕후는 인조의 계비에 이어 효종, 현종, 숙종 대까지 4대에 걸쳐 왕실의 어른으로 지냈다. 이 시기의 붕당정치는 장렬왕후(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설치공사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 무선마이크

POWER+

투윈미디어의 특허품

국내최초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향기기 “엠파워 플러스”(400W급)

AC전원 USB충전 스피커 배터리 충전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소형IT제품군 재생 차량 점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 계좌번호 : 신한은행 011-229-849384 최유창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정토불교 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 위주 수업
- 불교전법(포교)활동을 원하시는 분
- 포교원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
- 수시 상담 가능

연락처: 종무소 02)2208-609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문화불교대학(다음까페:문화불교)
- 법사과정:주말 집중교육
- 토 요 일:역학 - 일 요 일:의식
- 평 일:상담

30년 경력스님(저자)직접지도
1년교육후 졸업증 수여
042)272-5786
011-9429-5786
대전교육원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불교전통예술종합대학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무,범음범패,바라춤,나비춤, 사찰행사,49재,점안식, 전통무용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찬불가 가야금,학인모집,실전교육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제 1기생 모집(6개월,1년과정)
2008년 3월 8일 입학

이혼녀보호센터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심각한 이혼상담 해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빙의천도
3.일반과정, 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건강 태극권 강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보현사 수서역 5분거리
031)723-7587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 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80)027-4684
010-6730-118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역학개인지도 · 숙식제공
명리,육효,육임,관상학 구성학,풍수,음양택,성명학, 최면술,빙의,전생,영가치유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大方廣佛華嚴經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
사 교(7권)
법화경(7권)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강본으로 사용
011-545-725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천도재, 구병시식,49재
천도재, 구병시식,49재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을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사람을 찾습니다
고향이 안동인 김남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부전스님도 모십니다(비구)
▷문경
010-8819-89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정릉 보림사
02)919-04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031)584-1541
011-9723-0967

처사님 모십니다
054)533-3474
016-9697-2222

여사무원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운전면허 보유자
부평소재의 절
032)522-8131
016-302-7711

사찰 유치원
운전기사 모집
대형면허 소지자로
운전 경력 있는 분 원함
(경기 고양시)
019-9729-700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955-7191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부전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출가할스님,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부전스님(비구,비구니) 모십니다
051)761-1447
011-579-6444

큰 법력으로 정말 신심나며 재자와 영가가 동시에 해탈하는 한글, 한문, 천도재, 49재 및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많이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장 합장
011-854-8107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근교(하양)
017-803-0202

경험있는 사찰 종무원을 구합니다
(울산 연지암)
052)298-9911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3월6일 개강(18:30분)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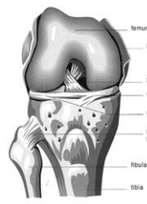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4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 동신방 한의원에서 - 한방(韓方)요법으로 다스려!
◆ 허리, 목 디스크 한방요법 치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 퇴행성 관절염 통증
◉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 목, 허리 디스크 통증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허리, 목 부분까지 연결 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 태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액을 디스크(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파괴되어 생긴 병이라고 하며, 동신방 한의원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나 목과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해졌을때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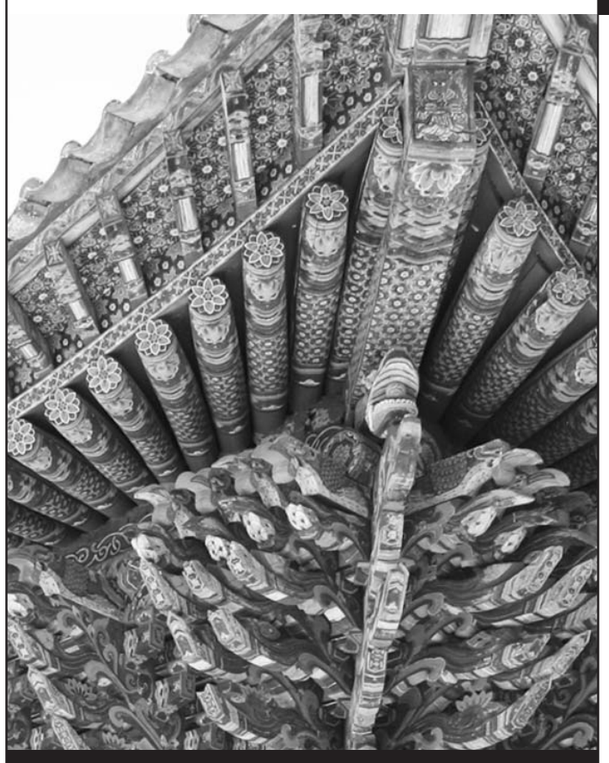


치료하기 위해 저희 한의원의 노하우가 담긴 처방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한의학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약물 치료 요법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동신방 한의원은 말한다.

동신방한의원 문의 080-598-983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임법당 : 40평 (단독주택)
● 월세 : 4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 위치 : 동해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5억 2천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의령 정곡
● 대지 :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 요사 30평(공양간)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2억 8천만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5포)
● 지장전 30평,요사채 40평, 산신각5평 공양간 45평, 대종각, 사무동(2층)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격:15억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부지 : 1만평
● 법당 : 40평(목조, 단청, 주3포)
● 요사 : 80평
● 산신각 : 20평(목조, 닷집, 단청)
● 기타 : 연못, 석불, 석등
● 가액 : 7억3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으로 주지스님의 신병관계로 급히 양도코져 함

● 위치 : 경남 김해시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단청)
● 요사 : 40평
● 기타 : 산신각, 연못, 석등
● 가액 : 2억3천만원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
● 건물 1동 30평
● 종교용지 300평
● 250m 지하석수, 전기 청정계곡 영골
● 가액 : 7천5백만원
011-494-09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 주방, 샤워실 (비품일체 양도)
● 가액 : 시설비 15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010-5013-2526

대구 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7천5백만원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에어컨 3대, 전광판 2대 법당조명, 음향엠프시설 완비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10-6287-3552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 경계 원도봉산
● 시지 약 300평, 별채 20평 신축건물 임법당 45평,
● 경내 7층석탑, 관음석불,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지하수, 상수도 공기 청정하고 조용하며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 심야 전기 보일러 있음
011-875-35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서구 내당동
● 3층 건물 중 3층
● 법당 40평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별도)
010-6689-5959

비구니스님들이 모여사는 곳

● 위치 : 경주
● 3층건물 중 3층 14평
● 거실1, 방1, 주방, 목욕탕, 세탁실, 붙박이장
● 교통 편리한 곳
● 가액 : 5,460만원
054)777-0878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앞) 아산KTX, 천안IC10분 거리 아파트 3만세대 입주예정
● 약 70평, 7층 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 문의 후 협의가능
041)565-9111

사 찰 안 내

큰 뜻을 품은자 창건 대 도량터에 최고의 불교성지를 이루고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단 한번의 기회뿐!

●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유일한 인연자 오로지 당신뿐
● 팔공산하 6000평 (분할 3000평도 가능)
● 건평 150평(공정 80%)
● 지금 산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는 만큼 열릴것입니다
주인직통 010-4512-08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청량리역 부근
● 특징 : 천불전 완성
● 옥상 60평 중 30평 법당
● 가액 : 5800만원(시설비 포함) 월세 65만원
010-8677-1681

포교당 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사찰전·월세 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대지 : 2000평
● 법당1, 요사채3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전세 : 5천만원 월세 : 보증금 2천만원/월20만원
010-8833-0506
011-211-99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김해 최요지 상가지역)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사 찰 전 세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0-2877-7746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평수 : 1530평 법당15평, 요사채 40평
● 화장실, 샤워실 별도 지하수, 심야보일러 설치
● 법당 앞에 연못과 조경 편안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010-9690-223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고창
● 부지 : 약1200평, 법당 : 20평
● 요사채 : 50평, 주지실 : 20평
● 약 100여년된 전통사찰 삼존불 봉안 외 법당 내부시설 완벽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4천만원 필히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618-7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 체육관 앞
● 포교원 : 45평,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00만원
● 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 법사님, 보살님도 가능함
011-9762-2286

토 굴 안 내

● 위치 : 마산 진주 사이
● 평수 : 410평 임법당1채, 요사채2동
● 비구니스님 토굴로써 적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5천(절충가능)
011-9554-567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지
● 대지 70평
● 가액 : 3천 2백만원
● 법당, 요사채
● 바다가 보이는 마을
055)672-0874
011-550-82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법당 20평, 방1, 공양간1
● 삼존불, 후불탱화 등 완벽하게 모셔져 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약 1700만원
019-291-5558
051)503-0908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마을에서 20분거리
● 부지 : 700평
● 법당 1채, 요사채 3채, 소나무 숲속
● 가액 : 상담 후 결정
055)882-0319
016-9881-7363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김해시 장유면
● 대단지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45평(3층 건물중 2층)
● 최신식 현대시설의 <지장도량>
● 법당, 공양간, 방2, 주차장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는 현장 확인 후 절충
016-9620-3346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기성동
● 대지 75평
● 한옥목조 임법당 25평
● 실사용평수 150평(주차장 포함)
● 가액 : 1억1천만원
010-9040-20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진천
● 2층 건물 2층 43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협의 후 결정
010-8622-1285

기도도량 안내

대둔산 도술봉 약사용궁도량

● 총 560평, 대지 125평,
● 법당(조립식), 칠성(조립식), 산신(허공), 용궁, 약수, 연못 요사채, 거실, 주방, 방4, 화장실2, 다락1
● 굿당(조립식), 선낭(조립식)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
041)753-8433
011-9211-4219
011-420-6236
꼭 보실분만 연락바람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 대지 : 507평, 법당 : 25평
● 주지실, 극락전 45평, 요사채 40평 기본시설 일체완비
● 가액 : 직접 답사 후 상담(전화상담 가능)
011-704-2858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시내중심가
● 평수 : 46평(3층 건물중 2층)
● 법당1, 방3, 사무실, 주방, 세면실2 관음도량, 150 원불
● 역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시설비 1500만원
011-258-1147

사 찰 임 대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척면(시내 10분거리)
● 부지: 대지 300평, 시유지100평 (주차장)
● 건축:요사채 35평 (요사채 일부 임법당 사용중)
● 삼존불 신중님 칠성님 산신탱화
● 엠프 집기 비품 일체 구비
● 산세경관 수려하고 교통편리
● 몸만 들어오셔서 절운영하실분 적합
● 전세 9천만원-1억 (절충가능)
011-9038-6531

암 자 안 내

산중토굴 가액으로 시내중심 암자 양도받으세요

● 위치 : 경북 풍각면소재지 중심
● 대지 70평, 건물 40평(임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영단, 용왕단
● 방3, 화장실2, 욕실 등 기본시설완비 대문앞까지 차량진입
● 양도가 7500만원(농협 1500만원 포함)
011-509-0124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무안 운정리 노리실 석굴암
● 대지 :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 20평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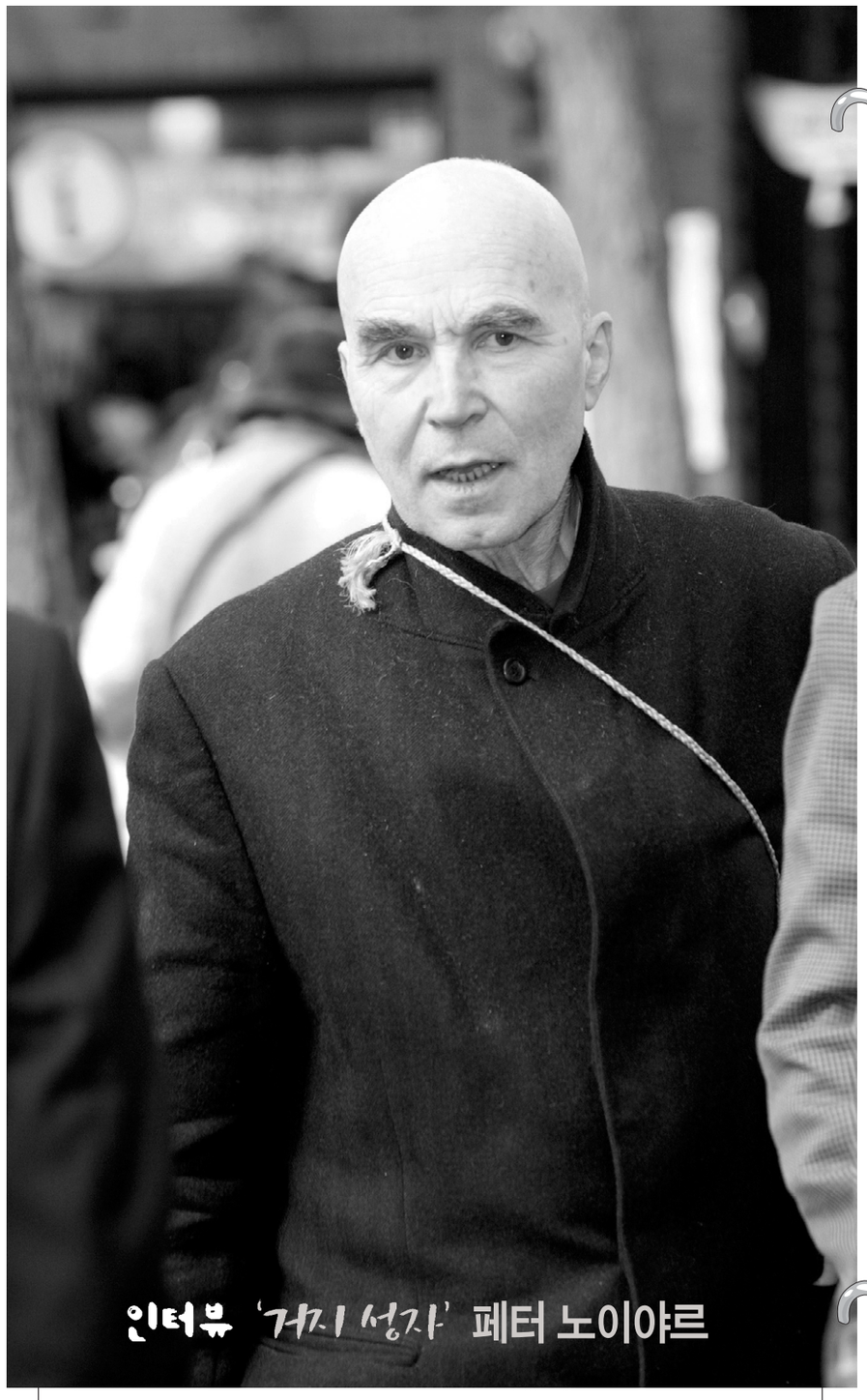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관음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 서재방1, 종무실1, 대중공양실1, 방사 2칸
● 후원 5평, 시설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만
010-4802-52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홍제지하철역 2분 거리(150m) 내부순환도로 바로연결, 상업지역
● 평수 : 20평(3층)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시설A급, 즉시법회, 생활가능함
● 포교원, 법당 처음하시는 분 최적지 침술, 역학치료하시는분 최적지
010-2709-6101

불자정보 계속



인터뷰 '거지 성자' 페터 노이야르

페터 노이야르는 1941년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서 태어난 그는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의 해군복무 이후 제지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혁명을 체험한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불교사원에서 수도했다. 1980년 독일로 돌아와 아나가리카 즉, '집 없는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때부터 그는 28년간 쾰른대 중앙도서관 호숫가 숲속에서 자며 집, 돈, 여자가 없는 '3무(三無)'의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다. 늘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그의 일과는 유기농산품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얻어 하루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장서 500만권의 쾰른대 도서관에서 독서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누더기와 작은 손수레, 보자기, 실과 바늘이 전부지만, 망명한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에게 고민·신앙 상담을 해주며 불법을 전하고 있다. 1980년대 독일에 유학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전재성 박사는 쾰른에서 그를 만난 후 감명을 받아 지난 1999년 <거지 성자>란 책을 펴냈다. 속편격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도 인기를 얻었으며, KBS 일요 스페셜에서 그의 삶을 방영해 널리 알려졌다.

국내에 '거지 성자'로 알려진 독일인 페터 노이야르(67)가 네 번째로 서울에 왔다. 3월 15일,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만난 그는 맨발에 검은 잠바 차림으로 가부좌를 한 채 '깨달은 만큼 실천하는 삶의 소중함'과 '곧은 마음(直心)이 바로 도량' 임을 전했다. 그의 이번 방문은 1999년 자신의 이야기를 <거지 성자>라는 책으로 펴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최근 초기 불경 <앙굿따라니까야(증일아함경)> 전집을 완역한 전 박사의 완간기념 봉정식(2월 23일)에 초청된 후 서울에 머물고 있다.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의 통역과 전 박사의 해설로 진행된 다음카페 '구도역정' (cafe.daum.net/kudoyukjung) 20여 회원들과의 이날 만남은 제가자의 수행과 무소유, 대운하 등 다양한 주제로 문답이 이어졌다. 법담 내내 그는 '세기를 관통하는 무소유 정신의 실천자'란 찬탄만큼이나 진실하고 겸손했다.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친구처럼 대하면서도, 지구 생태계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현대 서구문명에 대한 반성과 욕망을 버린 무소유의 삶을 강조했다. 이날 문답을 요약했다.

"대운하, 경제논리만 따져선 안돼"

–이번이 네 번째 방한으로 안다. 그동안 보고 느낀 한국 불교와 불자들에 대한 인상은.

"한국 불교는 외형적으로는 크고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법의 흐름이 약해진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고 진지하며, 불심이 깊고 수행에 열심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 특히 보조지눌 스님의 저서에 나타난 생생한 개혁 의지와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에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요즘 대운하 건설이 이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운하와 관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운하 건설이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과 자연의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운하 건설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 운하를 건설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세금만 잡아먹는 '완전한 재앙'이 되고 말았다. 환경·경제·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불란서 혁명 때의 정치가 탈레랑은 '세상에 얼마나 쓸 모 없는 일들이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논리만으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선생은 1999년 처음 방한했을 때 섬진강과 동강을 둘러보고, "내 생애에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찬탄한 적이 있다. 그 때 동강댐 건설과 관련,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네.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석을 왜 한 줌의 돈에 얽매여 물속에 가라앉히는가?"라고 반대한 적이 있다. 한국의 정치인이나 시민들에게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조언해 달라.

"부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고통을 싫어한다'고 하셨다. 인도의 성자인 카비르는 '모든 생명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자연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자연을 보전하는 길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살인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죽이지 말고, 속임수·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셨다. 상대방을 해치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예외 없는 인과법칙이다."

–선생은 "지금 우리는 2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인류의 파멸을 촉진하듯, 자연을 파괴한 적이 없다. 소유욕이 우리 삶의 터전인 공기와 물,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으로 강조하는 '무소유'의 참뜻은 무엇인가?

"소유란 탐진치(貪瞋癡)가 있다는 뜻이고, 무소유란 탐진치 삼독(三毒)이 없는 것이다. 5계를 지키면 무소유고, 지키지 않으면 소유다. 무소유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임제선사는 불성을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이라고 불렀다)'이다. '나에 대한 집착(我執)'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法執)'마저도 놓아야 한다. 강을 건너 뗏목마저 버리는 것이 무소유요 완전한 해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승려들에게 '새가 날개의 무게로만 날듯이'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살라고 가르쳤다. 또 공양을 얻기 위해 마을에 들어갈 때도 '벽에 비친 달 조각만큼만' 취하라고 하셨다. 죽을 각오로 진리를 찾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출가정신이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명상하기란 쉽지 않다. 부처님처럼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해 보는 것은 소중한 수행이다. 옷도 주워서 입어보고 걸식도 해보면 정신적으로 깊은 경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해서 세간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불행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나도 부처님처럼 마을 가까이에서 머물며 탁발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生老病死)로부터의 해탈'을 화두로 수행해서 열반을 증득했다. 이것을 근본화두로 볼 수 있는가.

"사실, 선종에서는 다소 모방적이고 위선적인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생로병사에 대한 큰 의심을 화두로 본다면 '근본화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어떤 수행이든 모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몸과 입과 마음의 문을 지키고, 팔정도를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선생은 <거지성자>에서 "오랜 수행 결과 저

재앙으로 끝난 독일 대운하 사례 거울 삼아야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선생의 깨달음은 어느 도과(道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도과를 얻은 바가 없다.(무상정등정각은 얻은 바가 없어야 한다) 오로지 초발심으로 정진할 따름이다. 사람이 겪는 생로병사의 현상세계는 환상일 뿐이다.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이고 지복과 환희의 땅에 도달한 것이다."

–끝으로 한국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진리는 실천할 수 있을 때만이 값진 것이다. 어떤 가르침도 삶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쌍윳따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등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자명해서 하나라도 숨긴 것이 없다. 분명한 가르침(法)을 스승으로 삼아 법문 한 마디라도 깊이 사색하고 실천해 보라. 금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글=김성우 객원기자·사진=박재완 기자

불자정보

672호 |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평수 79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큰 창고
- 비구니 스님 기도처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포교의 최적지)
- 6층 건물중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법당, 종무실, 방2,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즉시 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꼭 하실분 절충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삼존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미륵불, 관음지장원불)

010-2774-1250
031)653-03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요사채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6000만원(양도 및 월세가능) 사찰 규모 완벽함, 시설비 절충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하여 급 안내함

055)674-5978
011-9393-232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광천역 택시 5분거리)
- 산기슭 토굴
- 특징 : 25평. 땅은 종정땅
- 방2, 욕실, 마루, 부엌, 창고 텃밭있음
- 산 공기가 매우맑음
- 가액 : 1500만원

032)883-479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06-4661
011-545-5060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 5,064㎡(약1500평) 임야
- 가액 : 평당 28,000원
- 진입로 포장, 섬진강변

011-647-4444

사 찰 터 확 보
- 총 평수 : 260평 (실평:308평)
- 황토건물 31평(남해지역) 현재 창고 100평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 창고 별도 양도가능

011-844-40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9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동면 면소재지 교통편리함
- 대지 : 200평 2층 법당 20평
-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
- 법당집기 일체 보시하고
- 가액 : 1억9천만원

010-3805-3382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 대지 : 600평
- 법당 : 100평(1,2층)
- 요사채 : 50평
- 산신각 8평(1,2층), 창고 1 법당 시설완벽
- 가액 : 8억원 (상담 후 절충가능)

011-477-0671

사 찰 터 확 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성주대교 7분거리
- 대지 : 약600평 절터 앞 저주지 있음
- 가건물 2동, 원건물은 건축중단 차량진입 가능, 조용한 명당절터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6천 3백만원

017-804-123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근교(주택밀집)
- 대지 : 200평
- 넓은마당, 풍부한 물
- 법당, 산신각, 친견실, 요사채, 방4 집기 비품완비, 즉시 법회 생활
- 불상 탱화 제외 가능
- 보증금 100만원, 년2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780-627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청 주변
- 평수 : 40평. 법당, 방2, 주방
- 주차시설편리
- 보증금 2천만원/월15만원 시설비 포함

051)517-4513
011-857-1906
남·여 행자 모집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태백산 오전 약수탕)
- 부지 : 2600평(종교용지, 대지 600평)
- 건물 : 법당 25평 (춘양목 5포 7포, 단청, 삼단 닷집)
- 요사채 30평, 누각 18평, 산신각, 명부전
- 현대식 부엌, 화장실 호수 위에 위치하여 500평 마당과 경치가 수려함
- 가액은 협의 후 조정

017-848-33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송파역2분거리) 4층 건물중 2층
- 총평수 : 65평, 삼존불, 동불상
- 법당, 방 2, 주방 1 주차가능, 에어컨 3대 살림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0만원, 2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3088-31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중심지 사찰
- 대지 : 230평 법당 25평, 요사 5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7억원

- 위치 : 부산중심지 산밑
- 대지 : 80평, 법당 20평(슬라브) 요사 40평(슬라브)
- 가액 : 2억6천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206㎡(약366평)
- 임야 : 130㎡(약40평)
- 요사 : 198.24㎡(약60평)
- 대웅전 : 109.44㎡(약33평)
- 삼성각 : 30㎡(약9평)
- 실사용평수 : 약 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협의요

011-9143-00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 영동역에서 3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복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평당 5만원 : 1100평 평당 15만원(대지), 200평, 300평, 500평

010-3545-9992
043)732-2756

‘불교’ 황권 아래 복속…흥망성쇠 황제 손에

중국불교의 거사들 〈6〉



그림 · 김홍인

북조(北朝) 황제들의 봉불(奉佛)과 폐불(廢佛)

동진16국 시대를 거치며 불교는 통치사상의 기능과 함께 문화를 이끄는 주요한 사조(思潮)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남북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남조(南朝)는 동진이 망한 후 420년부터 589년까지 장강유역에 한족(漢族)이 세운 송(宋), 제(齊), 양(梁), 진(陳) 네 나라를 가리킨다. 북조(北朝)는 420년부터 수(隋)가 전국을 통일한 589년까지 선비족이 세운 북위(北魏)로부터 동위 · 서위 · 북제(北齊) · 북주(北周)를 말한다. 이 시기에 남조는 동진으로부터 이어진 현학과 불교학이 결합된 형태를 유지해 중국적인 특색을 갖춘 불교를 만들어 갔다. 또한 북조도 오호(五胡: 匈奴, 羯, 鮮卑, 氐, 羌) 16국 정책을 이어받아 불교를 신봉하는데 주력한다.

북조의 불교가 어느 정도 흥성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위서(魏書)〉 ‘석로지(釋老志)’와 양현지(楊衒之) 거사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가 있다. 그에 따르면, 북위 말년에 사찰이 3만여 개에 이르고, 승려들이 200여만이며, 낙양 성내에만 1300여 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북위의 태무제(太武帝)와 북주의 무제(武帝)를 제외하고는 북조의 모든 황제들이 독실하게 봉불(奉佛)한 결과였다.

태무제·무제 때 일어난 법난으로 폐불 위기 겪어
다양한 법회·강설 개최로 비담·지론 등 교학 발전

남북조의 불교와 정권의 관계는 ‘출가사문이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가’ 하는 문제에서 표출됐다. 남조에서는 동진 시기에 불교를 대표하는 여산 혜원 스님의 유명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에서 보인 것처럼 출가사문은 유가의 강상명교(綱常名敎)와는 달라서 속세의 국왕과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철저하게 ‘왕(王)의 치도(治道)를 돕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 완벽한 정교(政敎)분리를 유지했다. 이는 황제들이 철저하게 불교에 귀의하는 남조에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북조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랐다. 〈위서(魏書)〉 ‘석로지(釋老志)’에 따르면, 당시 북방 스님들의 지도자였던 법과(法果) 스님은 “태조는 밝고 뛰어나 불도(佛道)를 좋아하시니, 곧 지금의 여래(如來)와 같다. 따라서 마땅히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말해 황제를 부처님의 화신으로 대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북위가 439년 북방을 통일하고 ‘승관(僧官)제도’를 확립시키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불교가 철저히 황권 아래 복속된 것이다. 남북조시기에 황권에 의한 두 차례의 법난이 모두 북조에서 발생했던 것은 이런 정교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다.

북위의 도무제(道武帝)를 비롯한 명원제(明元帝), 효문제(孝文帝)와 선무제(宣武帝) 등 역대의 황제들은 모두 정치적 필요와 개인적 신앙으로 불교를 중시해 거대한 불사(佛事)를 일으킨다. 하지만 명원제의 아들인 태무제(재위 423-451)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도 즉위 초에는 불교를 신앙했지만, 효문제 · 선무제 · 태무제에 이르는 3조(朝)의 신하 최호(崔浩)와 그와 결탁한 도사 구겸지(寇謙之)의 영향으로 점차 도교를 신앙하게 됐다. 그에 따라 태무제 시광(始光) 원년(424) 북위 수도 평성(平城)에 도관(道觀)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교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태연(太延) 4년(438), 태무제는 최호와 구겸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50세 이하의 모든 사문은 환속하라는 조칙도 내렸다.

440년에 이르러 태무제는 도교를 국교화하려는 의도에서 ‘태평진군(太平眞君)’으로 개원(改元)했다. 태평진군 5년(444), 태무제는 왕공(王公) 이하 일반 서민들에게 사문에게 공양을 금지시키는 조칙을 내리고, 당시 승가의 지도자인 현고(玄高), 혜승(慧崇) 등의 스님들을 살해했다. 태평진군 7년(446), 관중지방에서 개오(蓋吳)의 반란이 일어나자 태무제는 친히 정벌에 나섰다. 장안의 사찰에서 병장기를 숨긴 것을 발견하고, 태무제는 모든 불상과 도형 및 경전을 남김없이 불사르고, 승려를 모두 묻어버리라고 명했다. 그 결과를 혜교(慧皎)의 〈고승전〉은 ‘북위에는 단 한명의 스님도 없었다’고 적었다.

태무제에 의한 법난으로 북위 불교는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지만, 문성제의 노력에 의하여 빠르게 회복됐다. 결과적으로 북조의 불교는 태무제 이전보다 더욱 발전했다.

북위 말년에 정치적으로 문란해지고, 동위 · 서위의 양국으로 분열되는 등 북조의 정치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됐다. 서위를 이은 북주(北周)의 무제(武帝)에 이르러 불교는 다시 폐불 상황을 맞게 됐다. 무제는 즉위 초 불교를 신앙했지만, 이후 유가(儒家)를 중시했다. 당시 불교 사원과 스님의 수가 날로 증가해 국고 수입이 점차 감소됐고 국가경제가 위협을 받았다. 그때 환속한 위원숭(衛元嵩)은 나라를 다스림에 불교는 적합하지 않으니 사원과 스님의 수를 감하라는 상조를 올렸다. 무제는 불교 탄압을 위한 여론 조성을 하고자 천화(天和)에서 건덕(建德)년간에 이르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문무백관과 스님, 도사를 소집해 유불도(儒佛道) 삼교의 선후를 논했다.

그러나 유불도 삼교의 선후를 논한 자리에서 매번 불교는 도교와의 논쟁에서 이겼다. 결국 빌미를 찾을 수 없었던 무제는 건덕 3년(574) 5월, 불 · 도 양교를 금지하고, 경전과 불상을 모두 없애며, 스님과 도사를 모두 환속시키고, 사원과 도관의 재산을 몰수해 왕공(王公)에게 하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6월 무제는 ‘통도관(通道觀)’을 설치해 불교와 도교의 명사 120명을 선발해 ‘통도관학사(通道觀學士)’라고 칭해 불교와 도교의 명맥만을 남겼다. 건덕 6년(577), 북제(北齊)를 멸해 다시 북방을 통일한 무제는 북제의 영토에도 불교를 금하는 조칙을 내렸다. 조칙에 따라 북방의 수많은 사원들이 훼손되고, 많은 수의 스님들이 남방으로 피신했다.

무제에 의한 법난은 표면적으로는 유가를 중시하고 불 · 도 양교를 폐한 것이지만, 사실상의 원인은 3만여 곳이 넘는 북주 사찰과 200만에 이른 승려 인구가 전인구의 1/16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불교세가 커진 것에 있었다.

북조의 태무제와 무제에 의한 법난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교가 황권에 예속돼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조 역시 끊임없이 유 · 불 · 도의 삼교가 치열하게 쟁론을 벌이고, 사원과 스님의 규모도 북조와 비슷해 국가경제를 위협할 정도였지만 북조에서와 같은 법난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제가 폐불을 단행하면서 “제왕(帝王)은 여래이고, 왕공(王公)은 바로 보살”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교를 폐하여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은 그를 반증하는 것이다.

후대에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으로 칭해지는 법난 가운데 다른 2개의 법난 역시 북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당말 무종(武宗)에 의해 회창(會昌)연간에 발생한 법난과 오대(五代)의 난세에 다시 북방의 후주(後周) 세종(世宗)에 의해 일어났던 법난이 그것이다. 이러한 ‘삼무일종’의 법난이 모두 북방을 중심으로 발생해, 북방 불교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중국불교의 주도권은 남방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그것은 후대의 일이었고, 북조 불교는 태무제와 무제를 제외한 모든 황제가 불교에 귀의함에 따라 문무백관도 모두 불교에 귀의했고, 다양한 거사불교가 나타났다. 그러나 북조 불교는 모두 관방에 소속돼 남조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거사는 아주 드물다. 북조 불교는 황권에 예속되어 모든 불사를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다.

북조 불교에서 평가해줄 수 있는 점은 낙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회를 열고 강설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위 효문제는 승려들의 안거(安居)와 불전 강설을 매우 좋아했으며, 북위의 여러 황제 가운데 강경(講經) 법회와 안거를 행하게 한 사람은 효문제가 최초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안과 낙양에서는 비담(毘曇), 지론(地論), 섭론(攝論), 성실(成實), 열반(涅槃), 삼론(三論) 등의 교학이 상당히 발전했고, 이후 천태종, 유식종, 화엄종, 율종, 정토종, 선종 등의 종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 4월 6일 서울 법문은 선원의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5월 4일(日)로 연기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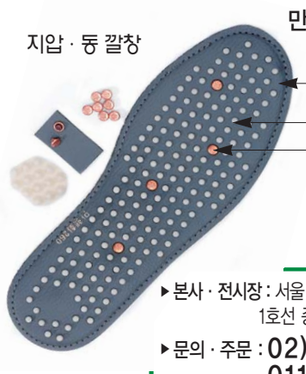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특허 10-0806337호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지압 · 동 깔창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훈)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Daum 다음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세요!
통합검색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검색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500,000원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무상사 소비자상담실 대리점 모집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因緣·絕緣 公告

긴 세월을 지나온 동안 本人을 스승이라고
因緣을 맺은 恩 · 法 상좌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本人이 不德하여 여러분들의 傳法度生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修行에 障碍될까
염려스러운바 格別한 因緣, 小數를
除外한 모두를 絕緣함을 이에 公告합니다.

佛紀 2552年 3月 13日字

大韓佛敎 總和宗 總務院長 玄翁 全南亭



누구에게나 재료는 있으니 그냥 여여하게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참 컸고 또 스님의 노고도 컸습니다. 저번 날 여기 스님이 개원식에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다른 약속도 있고 그래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못 온다고 했습니다. 속으론 안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할 때는 아니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슬프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너 아니면 뭐 못하랴'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항상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스님에게 감사하고 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쨍쨍한 햇빛 아래 잎 속으로 과실이 주렁주렁 열렸더군요. 그런데 제일 큰 과실을 하나 딱 따 보니까 안은 덜 익었어요. 그러나 거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왜 그렇게 흠집을 내놨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심하게 야단을 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법당에 척 들어서니까 부처님 눈이 꼭 짓눌려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야단을 좀 치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러니 부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부처님께서 화난 것도 아니고 화 안 난 것도 아니시지마는 호통을 좀 치라고 하신 뜻은 아마, 어느 거든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맞부딪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이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그걸 또 묘하게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을 한 분 모셔 놓으면 양옆에 문수도 있고 보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귀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 뜻은 아셔야 돼요. 타의나 자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건 뭐냐? 한 분이 생각을 해서, 즉 부처님의 생각으로서 바로 문수가 생긴 거죠. 문수는 생각을 하는 중이니까 법신이에요, 그게.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현은 그 생각을 받아서 움죽거리는데, 모든 것을 움죽거리면서 평등하게 보(保)하면서 행해 나갑니다. 보현은 바깥에서, 문수는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문수가 안에서 지명을 하면 바깥에서는 보현이 하듯이 이것이 바로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지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한생각이 사바세계에서는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걸 뭐라고 그럴까. 마음으로 꼬리표를 붙였다고 그럴까요, 상표라고 그럴까요?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붙여 놓고 동방에는 아촉이라고 붙여 놓고 서방에는 미륵이라고 붙여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이라고 붙여 놓고…,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 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고 움죽거림이 없다면 입에 밥도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또 생각하고 움죽거리는 동시에 우린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없다면 과학이라든가 우리 일체 생활이라든가 한 국가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움죽거리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보죠. '돌과 돌을 쥐고서 한번 딱 치니까 불이 번쩍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 불이 일어난 거조차도 없느니라.' 그것을 표현하자면 과거는 지금 현실에 짊어지고 나와서 살고 있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 없고 현실은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없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없이 공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한 것을,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공이라는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니까 "그 공했다는 것도 공했기 때문에, 분별도 공하고 공이라는 공도 공했기 때문에 공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감이 잡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은 최상승의 굴림을 굴리고 가는, 보살들의 굴림에 의한 중용으로서의 용(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함도 공했기 때문에 그대로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와 같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접어둘까요?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의 인간 모두에게는 자기 마음의 불성 주장자 안테나가 있다. 안테나, 그 위에 레이더망이 설치돼 있다. 그다음 중간에 자동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심성 빼놓고는 없어요. 자동 컴퓨터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아래 탐지기가 있고 또 팩스와 천체망원경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다섯 가지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레이더망은 위에 설치가 돼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 통신을 합니다. 법계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알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활하는 데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큰 나라에서는 이거를 연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력이니 광력이니 하는 것도, 빛으로 가고 오는 것도 잘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진리를 깨달아 통달을 해 가지고 49년을 설하셨고 행으로 보여 주셨고 또 그 모든 걸로, 앉은 걸로 보여 주셨고 선 걸로 보여 주셨고 누운 걸로 보여 주셨고 평발로 디딘 걸로 보여 주셨어요. 손 없는 손을 보여 주셨고 자루 없는 망치를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설법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첫째는 하늘을 받치고 둘째는 말없이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그 뜻으로 불바퀴를 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래로는 평발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한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그대로 자유스럽고 여여하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으니 그냥 여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기복으로 빌어먹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그렇고 절마다 그냥 무슨 탱화를 여기저기 붙여 놓고 울긋불긋 울긋불긋하게 해 놓질 않나.

우리 마음으로서 불성이 있기 때문에, 즉 그걸 마음내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내기 이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움죽거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보에 귀의합니다' 하는 건데, 그저 여기 갖다 놓으면서 이거 따로 보고 저기 갖다 놓으면서 저거 따로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찾으려다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우주의 섭류를 어떻게 다 파악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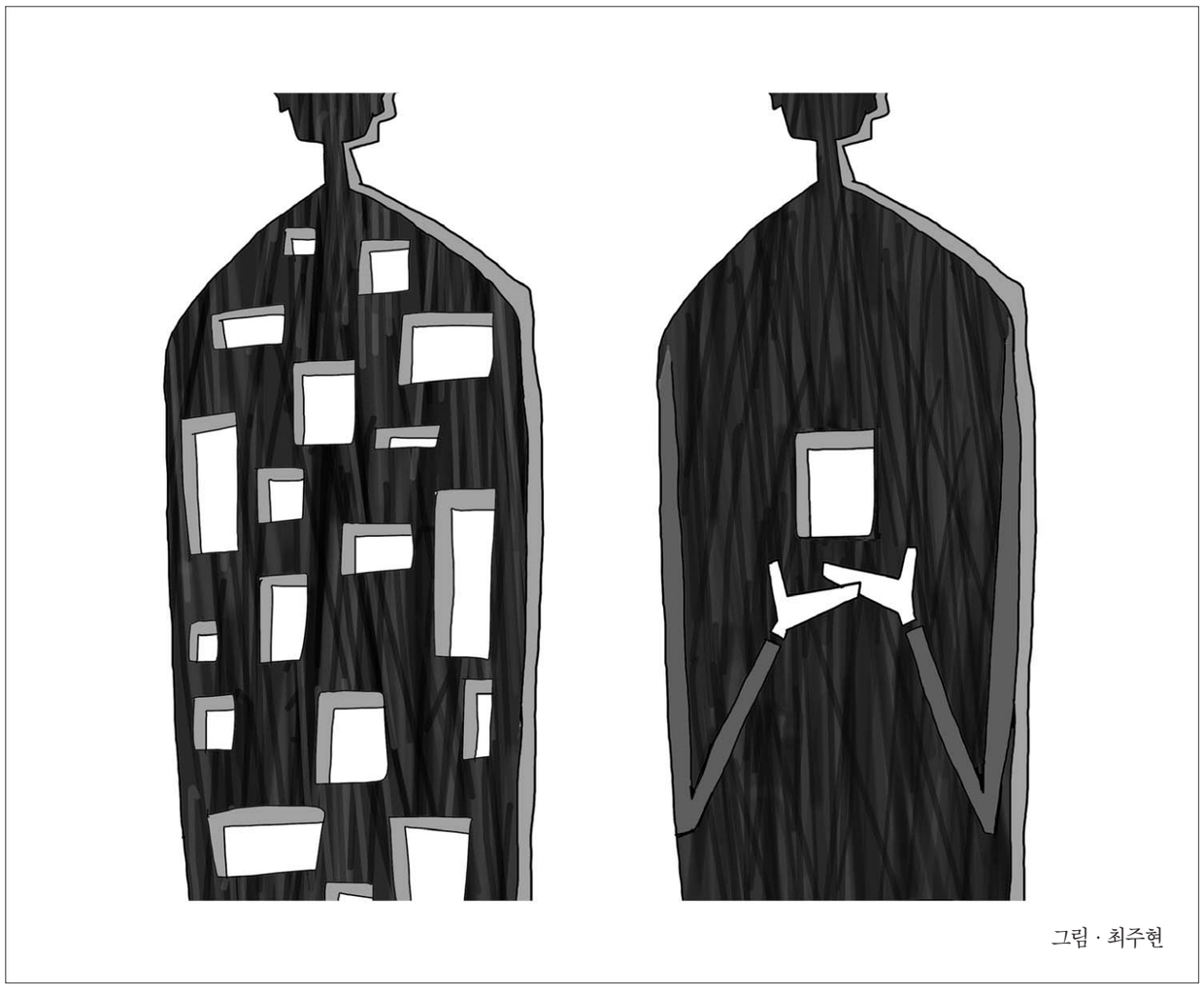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책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려 세상에 흘러 전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떠들지 않으면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부추기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줄 모르는 오늘 바람 넉넉히 안아... 어제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신문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지요.

500원씩, 천 원씩 보시를 받아 6만원을 모아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은 더 발품을 팔아야 광고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사찰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반연없이 신생사찰을 꾸리자니 포교비용에, 운영비에 쪼들리는 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내 사정을 바꿔보려고 작년 말에 수행지침서인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고, 얼마 전에 『나를 바꾸는 108배 대참회문』을 낳았습니다. 두 권 다 제 나름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 사정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제 책 좀 사주면 안되나요?

전국 불교서점 및 교보, 영풍, 인터넷서점 등에 있습니다.

시방사에서 석호 합장

• 포교후원계좌 : 대구은행 034-10-003424 (예금주 : 시방사)
문의전화 053)654-0408 / 법공양문의 053)253-19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빠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밤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 (0.2평의 기적)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 무료)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그대로 공했으니 공한 도리가 없이 공했다!

☞25면에서 계속

하시렵니까? 그걸 파악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자기 몸, 생활, 한 식구를 지켜 나가는 것도 다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절에 오면 요기 놓고 조기 놓고, 잘못됐다 잘됐다 참견이 많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옳고 이걸 떼버리면 안 되고 이걸 붙여야 되고 이걸 모셔야 되고 이야단들입니까? 자기 부처 하나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를 챙겨라 이겁니다. 아까 내가 컴퓨터 얘기 했죠. 그때 미처 얘기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에다 항상 입력을 해 넣어야 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일반 컴퓨터는 물질적으로 설치가 돼야 입력을 할 수 있죠. 돈을 주고 사다가 시스템을 전부 해 놔야 그게 착착 들어가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말 잘합디다,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라요! 우리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 놓는다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 맡기는 것도 그냥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입력을 하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러죠, 놓고 돌아가라.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게 입력이에요. '내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 그렇게 놓으면 자동적으로 입력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순간순간 돌아가는 우리 생활의 지침이지만 우리나라를 건지는 데도 이 세계를 조절 안 하고 입력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디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어디에서 뭐가 끼어드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 놔야 레이더망에도 잡히고 레이더망에도 또 통신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자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갖춰진 그 다섯 가지의 재료를 쓸 수 있는 자동적인 시스템, 그 시스템의 다섯 가지가 전부 돌아가면서 레이더망에 걸리면 여기서 통신을 해서 다 굴릴 수 있게 하고, 입력을 하는 대로 다섯 가지가 다 돌아가면서 입력이 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쪼그만 거 쓰면 쪼그만 거 쓰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거대로 쓰고 큰 건 큰 거대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라. 나를 발견해야만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 아닌 도리를 알면 둘이 아닌 나툼을 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돌아감으로써 월(月)세계도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월세계도 될 수 있고, 태양의 근본이 내 근본이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워서 못 사는 데도 생명이 있고 아주 차서 못 사는 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악해서 부처님께서 모두 안아서 응해 주셔도, 그게 굴러 나와도 도대체 무쇠는 무쇠대로 있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깊숙하게 넣어서 옴쭉을 못하게,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연유도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들에게 해를 끼치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따로 보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도리로 아주 마구니라도 따로 보지만 않는다면 선자(善者)다 마구니다 외도다 이런 것이 따로 없이 그대로 우리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 과거는
> 지금 현실에
> 짊어지고 나와서
> 살고 있으니
> 없고!

모두 벗이 되고 나 아님이 없고 모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도리를 배우는데 밥이나 떡이나 놓고 "아이구 관세음보살, 날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바깥으로 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든 뭐로든 전 세계를 보고 듣고 사시죠.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바쁜 세상인 줄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부부가 함께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하는 바쁜 세상에서 지금 움죽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전처럼 여자는 밥이나 해 먹고 살림이나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남편을 반 이상은 리드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돼야만이 남편이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은 아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뛰어야 하는, 뭐 몸뚱이가 팔팔 뛰어서 뛰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정신력으로 뛰어서, 천 리를 뛸 거를 만 리를 뛰어서 남편의 앞을 닦아 준다, 이런 문제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몸뚱이로 돌아다니면서 치맛바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빼놓고는 없어요.

아까 한 말을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주장자에, 안테나 주장자에 레이더망이 있고 거기 컴퓨터가 설치돼 있고 탐지기가 설치돼 있고, 천이통 즉, 무전통신기가 설치돼 있고 또 신족통 즉, 팩스가 설치돼 있고 말입니다.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시스템이 사람에게는 다 아주 철통같이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죠.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일체 만법을 능히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한테 한 말을 되하고 한 말을 되하고 이러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실천궁행하는 데에 그 뜻을 적용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만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귓가로 흘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놓고 가느냐는 거지요. "나를 믿는데도 그렇다. 나는 놓고 가는데도 그렇다." 그러는데, 놓고 가는 줄 알면 놓고 가는 게 없어요. 놓고 간다 하는 것도 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우습게 들으시면 참 억울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나와서,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창문이 밝으니까 그게 나가는 문인 줄 알고 입으로 쪼다가 그냥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고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까지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거지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게 걸려 가지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쓰나.' 하면서 그저 거기에 걸려 가지곤 온통 그냥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통과 통과 하라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통과하고, '어!' 하고 통과해요. 그렇게 굴리다 보면 그게 진리에 순응하는 거라고요.

'이게 뭣고?' 하고서는 그냥 붙들고 있는데, 화두를 누구한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듣는 거지요. 얘기를 듣고 거름 삼아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지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놈이 뭣고?' 하기 이전에, 뭐긴 뭐예요? 이 세상에 어쩌다 나온 놈이지요. 하하하…. 어쩌다가 나온 놈이지 뭐긴 뭐예요? 나온 놈이기 때문에 움죽거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그렇게 가고 오고 부지런히 뛰고 온통 정신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온통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강중강중 뛰는 셈입니다.

아주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시간을 생각하고 공간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나요? 급하게 그냥 똥이 마려워서 변소간에 들어갈 때 시간 보고 들어갑디까? 안 그러죠? 배고파 죽겠어서 밥 먹는데 몇 시인가 보고서 먹는 사람도 없어요. 인제 다 치워 놓고 '아이, 몇 시나 됐나?' 하고 보거나 출근할 사람이 보는 거죠. 그땐 벌써 급한 거는 다 해 놓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거는 벌써 이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참 급해서 일할 때는 초월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살림살이가 전부 공했다 이런 소립니다. 이 공한 도리를 알면 공한 데만 또 신경을

> 미래는
> 아직 가지 않았으니
> 없고!
>
> 현실은
>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 없노라!

쓰는데, 그대로 공했으니 공한 도리가 없이 공했다 이거죠.

이 온양에 지원을 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돼지 기르던 터라고 그러는데, 돼지가 따로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한 부모가 어느 산골에 살면서 삼 형제를 길렀어요. 그런데 막내는 아주 늦게 낳았죠. 옛날에야 지금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늦게 생겨서 그거 낳아 놓고선 어린 거를 두고 부모가 고만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 둘만 있으니 형들이 사냥을 해다가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러다가 형들마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사냥을 나가서 토끼나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연명을 하고 살았더랍니다. 하루는 산골짜기에 가니까 사슴 두 마리가 그냥 붙어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거라도 잡아서 갖다가 팔아야 입에 풀칠을 하겠다 싶고, 또 그래야만이 남한테 꾸어다가 먹은 쌀도 좀 갚겠다 싶어서 아주 좋아서 활로 그냥 쏘아 버렸단 말입니다. 새끼 두 마리가 비비고 놀다가 그냥 한 꼬챙이에 다 꽂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러 가려고 막 나서는데 어미 사슴이 또 왔어요. 어미 사슴이 와서 그 새끼 사슴에 꽂힌 화살을 빼기 위해 그냥 발버둥이를 치는데 거기서 피가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사슴이 막 그냥 엉엉 울거든요. 저 어른 사슴마저 잡으면 오늘은 수지가 맞겠다 싶어서 화살 하나를 또 겨냥하려고 그러니까 아, 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미가 쓰러져요. 참 이상스럽다 그러고 거두어서는 내려가 보니까 어미 사슴이 그냥 새끼 사슴을 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죠. 지금 같으면 그 뜻으로라도 좀 알 텐데 아마 머리가 좀 둔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선 화살을 빼고 그 어미가 왜 죽었나 보기 위해서 동네 여러 사람하고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모두 동강동강 끊어졌어요. 그 동강동강 끊어져서 죽은 걸 보고 그때서야 그걸 안 거예요, 걔가. 나이 20세도 안 됐지만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에. '아하! 이것도 역시 우리 엄마와 같구나.' 어린 자기를 두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자기 손을 붙들고 눈을 감지 못하던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돼지나 사슴이나 토끼나 다 엄마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이나 짐승들이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이러는 도리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태 그거를 몰랐었거든요. 그 도리를 알고 나서 그거를 그냥 판 게 아니라 꼭 싸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그 잡은 자리에다가 묻어 줬어요. 묻어 주고 그때서부터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갔는데 스님이 "뭘 하러 왔느냐?" 하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덧없이 살기는 정말이지 싫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저로운 데다가 더욱이 인제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미 사슴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여길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거를 아느냐?" "뭘 말입니까?" "네가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느니라. 그 어미 사슴이 누구였는지 그 새끼 사슴이 누구였는지 네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정진을 한 겁니다. 그거를 빨리 일러 줬으면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지금으로 치면 한마음의 도리, 나 자체 있기 이전을 찾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0년 3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책 좀 사주면 안 되나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려 세상에 흘러 전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떠들지 않으면 스스로 볼 줄 모르고 부추기지 않으면 스스로 행할 줄 모르는 오늘 바람 넉넉히 안아... 어제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신문광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지요.

500원씩, 천 원씩 보시를 받아 6만원을 모아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은 더 발품을 팔아야 광고비를 충당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사찰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반연없이 신생사찰을 꾸리자니 포교비용에, 운영비에 쪼들리는 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내 사정을 바꿔 보려고 작년 말에 수행지침서인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고, 얼마 전에 『나를 바꾸는 108배 대참회문』을 낳았습니다. 두 권 다 제 나름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싶었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 사정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제 책 좀 사주면 안되나요?

전국 불교서점 및 교보, 영풍, 인터넷서점 등에 있습니다.

시방사에서 석호 합장

• 포교후원계좌 : 대구은행 034-10-003424 (예금주 : 시방사)

문의전화 0531)654-0408 / 법공양문의 0531)253-19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체과학원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짱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야만성의 토양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47세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온 19세의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맞아 죽은 사건을 판결해야했던 판사가 이런 내용의 판결문을 읽으며 눈물지었다는 기사를 읽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

야만성. 그렇다 이 시대에도 야만성이 문제다.

인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인간 속에 야만성은 늘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문화나 문명, 종교, 교육, 사회적 환경, 개인적 수행의 깊이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사람에 따라 그것이 마음 속 깊숙이 보이지 않게, 아니면 표면 가까이 그 존재 위치가 달라질 뿐이다.

인간 마음 속 여러 야만성에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기축시대(Axial Age)'라 불리는 서기 전 몇 백 년 사이였을 것이다.

서로 간 교통이 있었든 없었든 고대문명세계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가 형성되고 독특한 사상이 움튼 이 기적 같은 시대,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모든 성인 학자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불교의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의 첫 연과 비슷한 메시지들을 던졌다. 조로아스터, 노장과 공맹, 석가모니, 모세, 소크라테스 등이 그들이다.

야만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대단한 눈뜸으로 인간은 자기 속 야만성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 왔고 그동안 성과가 어떠하였든 지금도 그 가능성에 기대 야만성을 다스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신부 구타살해 사건 뿐 아니라 두 어린 소녀의 유괴 살해 암매장, 자신과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던 여성 일가족에 대한 어이없는 살해 암매장 등 요즘 우리 사회에 잇따르고 있는 이 끔찍한 야만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앞에 나온 판결문의 문구처럼 '경제대국 문명국'에서는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울 그 야만성이 왜 이처럼 쉽게 드러나는가?

어느 시대에서나 인간의 삶에서 안전은 최고의 요구조건이며 그 안전이 최대로 보장된 사회를 태평성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야만성이 쉽게 드러나는 사회에 안전이 보장될 리 없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으며, 낯 선 인물 뿐 아니라 이웃마저도 서로를 의심 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선 국가 사회의 지향성을 한번쯤 점검해 보았으면 한다.

지금은 모두들 경제 우선의 기치에 들떠있다.

경제우선은 자칫 욕망 충족을 개인 영역으로 묶어 가면서 그 욕망을 한없이 확장 시켜 나가는데 몰두하고, 그런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경쟁에 불을 붙이며 이를 위해 다시 터무니없는 욕망을 부추겨야하는, 그런 욕망에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부추기는 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맛에 아부하는, 그것이 비록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폭력과 섹스가 쉽게 누구의 손에 나 잡힐 수 있게 하는 사회. 웰빙(Well-Being)이나 로하스(LOHAS)라는 그럴듯한 단어조차 상업성 속에서라야 꽃피게 할 수 있는 사회. 지금 우리는 못 살고 있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 때문에 경제에만 솔깃한 세상. 이만하면 야만성의 토양은 충분하지 않은가?

여기에 문명이나 문화 교육 종교 그 무엇도 얄팍한 허울뿐이라면 이 끔찍한 사건들에 새삼 놀랄 수도 없는 일이다.

야만성은 터무니없는 욕망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은 이미 몇 천 년 전 기축시대의 가르침이다. 인간은 그 가르침들을 아직 소화해내고 있지 못한 것인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얼마간이라도 수정하자고 권하고 싶다.

"좋아 보인다고요? 매일 108배 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⑯ 마음을 밝히는 108배

마음으로 하는 절

정씨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표정이 무척 밝아보였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는 "아, 제가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비결이 있지요"하고 웃으며 대답한다. 정씨는 최근 아침마다 108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전에도 절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시도는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을 못 갔다. 절을 하며 108배까지 세기도 힘들고 몸도 지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곤 했다. 경전 테이프를 틀어두어도 왠지 지루하고 잘 안 되었다. "그런데 도반이 선물을 해 주었어요. 바로 <나를 깨우는 108배(불교TV제작, 김영사)>라는 책과 CD였어요. 별 기대 없이 틀어보았는데 아주 쉽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는 그 테이프에 맞추어 한 번 한 번 절을 하니 전혀 힘든 줄을 모르게 되었다. 일 배마다 각각 좋은 말씀을 낭송해 주어서 힘이 나고 자신의 마음도 많이 돌아보게 된다고 좋아하였다. 많은 도반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특히 마음을 울려주는 구절을 소개해준다.

스스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다면서 일부를 소개해 준다.

참회의 내용들

참마음 망각 참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은혜와 공덕 망각 참회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아상과 잘못된 언행 참회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별심 참회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자비심 부족 참회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의 아름다움

수행이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시 스스로 대중과 함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자 하셨음을 기억하여야 겠다. 하물며 아직 정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고 바꾸고자 실천하는 것이다. 참회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하심 하는 마음이며 업이 녹는 정진의 길이다. 매일 아침을 참회로 시작하는 정 씨에게 자성부처님의 미소가 함께 하는 것 같았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지계청정' 승단을 기대하며

"열반, 열반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열반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이 사리불에게 물었다. 사리불은 그에게 "벗이여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일컬어 열반이라고 한다"고 답한다. 우리는 탐욕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라 한다. 이 삼독을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열반적정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가장 이상적인 지표가 삼학(三學, 戒 定 慧)이다.

불자에게 있어 계와 정과 혜는 삶의 근본이다. 이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틀은 당연히 계다. 계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정도 혜도 열리지 않는다. 수행의 종교인 불교는 계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불교계는 어떤가? 사찰마다 수계법회를 열고 계를 지키는 삶을 다짐하지만, 실제로 계에 의지해 사는 불자는 그리 많지 않다. 승가의 반계율적 생활도 사회적 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0일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불교계에서 이름난 율사이기도 하지만,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된 일이다. 수행의 종교에서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율을 삶의 근간으로 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이다. 승단을 위한 법이지만 이 법을 계기로 조계종 승단이 지계청정의 모습을 확립한다면 재가불자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재가계율의 토대도 튼튼하게 마련될 것이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이 입법기관에서 통과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실' 하게

신년벽두에 온 나라를 경악케 했던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사건은 목조문화재 보호에 대한 큰 법문이었다. 무엇보다 사찰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강조되는 계기였다. 우리는 수차례 국보 제1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올해의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이 건무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경보장치 및 수동소화 설비를 완비하고 내년에는 자동진화 설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언이 한 치의 허술함도 없이 실현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문화재 관련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 주목 받을 뿐 뒤가 흐지부지되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그간의 관례다.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 마인드다. 사찰의 목조문화재도 마찬가지다. 불자들이 솔선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찰측도 방재 매뉴얼을 작성해 숙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백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은 유형의 유산이면서 거기에 엄청난 무형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 문화재를 화마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해당관청의 빈틈없는 정책과 관리주체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향유하는 국민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건무 청장의 공언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경원력 공개특강

사) 동방문화진흥회에서는 주역의 대가 也山 이달 선사께서 창제하신 경원력(庚元歷)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경원력 공개특강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일시 : 2008.3.26 (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흥사단 3층 대강당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강사 : 청고 이응문(동방문화진흥회 회장)
내용 : 경원력 특강 및 질의응답

◈ 「주역」계사전(총론) 개강
계절의 변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만물이 나고 죽는 것 등에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周易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청고 이응문 선생님의 '쉽고 간단한' 주역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 만나보자.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장소 : 흥사단 3층 대강당

사단법인) 동 방 문 화 진 흥 회
☎ 02)2237-9137, 2237-8970
www.DONGBANG.or.kr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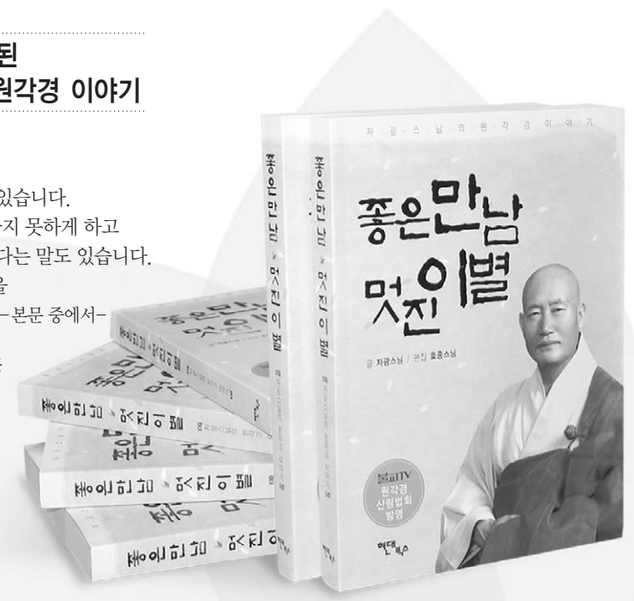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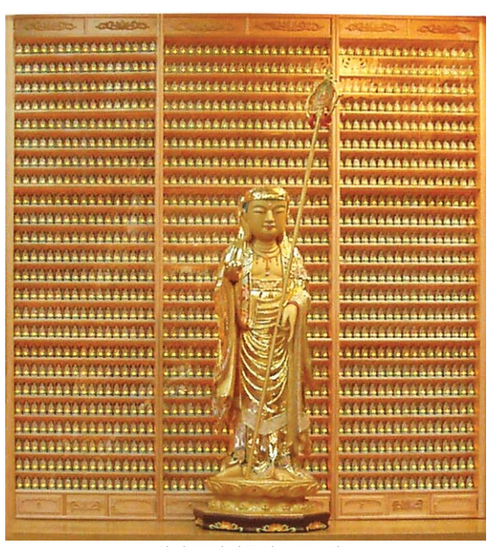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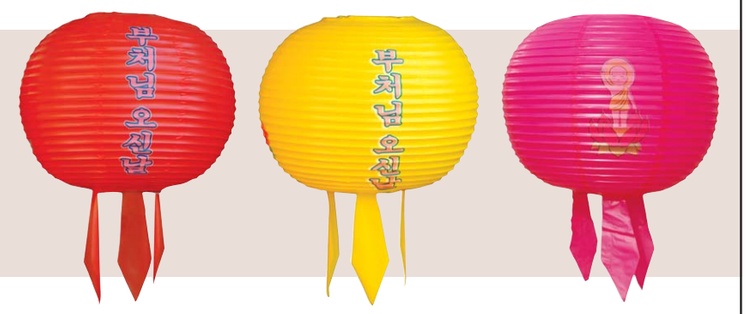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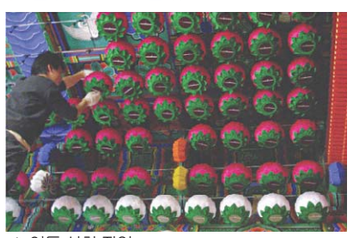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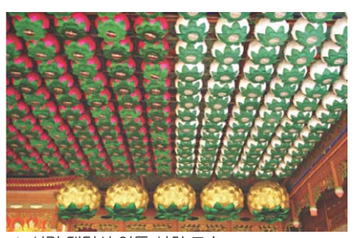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애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애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괘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